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3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 361 호



법석 조대 **도견 스님** 대구 금성사 조실



"껍데기로만 불교를 믿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계를 철저히 지켜야 수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계율은 잡념과 망상, 게으름을 견지는 지팻대입니다. 계를 수지하고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참회 발원하는 출가 - 열반절

이 달에는 부처님오신날, 성도절과 함께 불교4대 명절인 출가절(음력 2월8일)과 열반절(음력 2월15일)이 들어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리를 찾아 떠난 출가절이 21일(양력)이고, 일체의 번뇌를 끊어 영원한 자유에 드신 열반절이 28일(양력)이다.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는 불교의 '처음과 끝'인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이렇게 적고 있다.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三界)에서 뛰어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인 것이다."

2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예년처럼 부처님의 출가정신과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법회를 봉행한다. 봉은사의 경우 이 기간 동안 1일 만배 참회정진을 실시하고, 정토회는 하루 1천배 등 단기출가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각 사찰과 단체들은 저마다 철야용맹정진과 함께 큰스님 설법, 3천배, 참선, 참회기도, 사경, 독경법회, 열반경 산림법회, 성지순례 등을 통해 새롭게 발심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올해 출가 열반절은 종단차원에서 공식화되고 생활속에 정착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12일, 21일부터 28일까지를 '출가열반절 108 참회발원 정진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국의 사찰 신도회 및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이 참여하는 일상적인 수행문화 행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오후7시 조계사에서 입재식에 이어 각급 신도회와 포교단체, 직장직능단체 회원들이 매일 릴레이 108참회정진을 하게 된다. 오는 28일 오후 7시 회향법회에서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의 법어를 듣게 된다.

포교원은 이번 출가 열반 행사를 통해 참회 및 발원정진하는 신도상을 정립하고, 신행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의 확산을 위해 출가열반절 안내서 및 108대참회문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733-7277.

김재경(취재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조계사 공권력 난입

1. 지난 10일 발전노조원들의 검거를 위해 조계사에 경찰병력이 투입된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종교의 신성성을 경시하는 공권력의 태도 ②불교계의 위상 저하 ③종단의 미온적 대처 ④기타
2. 향후 어떻게 결론지어야 할까요?
   ①서울경찰청장이 사과했으니 마무리해야 ②경찰과 종단의 문책성 인사조치 뒤따라야

설문 참여: 3월 21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2호 9면에 싣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짜기에 부심

'템플스테이', 시설개보수 마쳐 … '진척도 40%'

월말 관광예약 가동 · 홍보물 25일까지 제작
30여개국 대사부부 초청 불교 체험케

1. 시행, 두 달 앞으로 …
2. 우려는 이렇게 준비한다
3. 일본의 경우

월드컵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교계의 템플 스테이 운영에 따른 준비도 바빠지고 있다.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42일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장을 제공하게 될 템플 스테이 사업이 지난 2월말 31개 사찰을 운영사찰로 선정(본지 359호 2면 기사 참조)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사찰들은 현재 거의 대부분이 관광객 수용을 위한 시설 개 보수를 끝낸 상태며, 개별 프로그램 마련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세부 운영방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달 20일경 템플 스테이 홈페이지가 개통되고, 이달말에는 관광객 예약 프로그램도 가동될 것으로 보여 다음달 초에는 템플 스테이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숙박비는 1인당 하루 3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템플스테이 로고.

조계종 포교원 템플 스테이 사무국은 리플릿, 포스터, 책자 등 템플 스테이 홍보물을 이달 25일까지 제작, 운영 사찰에 배부하는 한편, 다음달 중으로 한 두 차례 각 사찰 실무자 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말 선발한 163명의 통역봉사자 외에 추가로 100여명을 더 선발해 사찰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여개국의 주한 외국인 대사 부부를 초청, 5월 중순경 직지사에서 한국불교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템플 스테이를 홍보한다는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준비상태를 40% 수준으로 보고 있다. 템플 스테이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면서 운영사찰 선정이 늦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데다, 예산마저 크게 줄면서 사업추진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특히 봉원사, 관문사 등 다른 사찰보다 한달 여 늦게 운영 사찰로 선정된 6개 사찰은 재원 및 세부일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봉원사 총무국장 선암스님은 "시설은 이달말이면 완비가 되지만 아직까지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무국과 운영 사찰들은 아직까지 완비돼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자 확보 등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다만 예산부족에 따른 충분한 자료 및 프로그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10억원의 예산 외에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운영자금 2억원을 정부에 추가 요청할 방침이다.

템플 스테이 사무국장 주경스님은 "남은 기간 동안 사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홍보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초파일 연꽃등 만들어요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이 2달여 가량 남은 14일 강화 선원사에서는 초하루 법회를 마치고 주지 성원 스님과 신도들이 대중방에 둘러앉아 초파일 연꽃등을 만들며 즐겁게 법담을 나누고 있다. 자신의 연등을 직접 만들어 불을 밝혀 보는 것도 부처님오신 뜻을 되새기는 일일 듯. 강화 선원사=고영배기자

"법당 경찰난입 묵과 못한다"

대불청 등 범종교인 청년학생규탄대회서 촉구

지난 10일 오후 조계사에 들어온 발전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대웅전에 경찰이 난입한 사건에 대해 불교계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총무원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교수불자연합회 등은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범종교인 청년학생 규탄법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실무자인 종로경찰서장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등 10여개 불교단체도 12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장의 공식사과와 현장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조계사 신도회와 청년회 등도 11일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불자들의 규탄이 잇따르자 김순선 종로경찰서장이 11일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을 사과방문한데 이어, 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도 12일 조계사를 방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편, 총무원 측이 공권력 투입과 노동자들의 퇴거를 서면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불련은 15일 경찰 투입 요청에 대한 공개질의서 총무원에 전달했으며, 재가연대와 청정화합시민연대도 14일 대웅전 난입에 대한 경찰청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공권력 투입요청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총무원에 요구했다. ☞관련기사 2 · 3면

한명우 기자

태고종 대각정진 대법회

화합종단 새 진로 모색, 승정 9명 추대식도

태고종은 종도들의 화합과 종단의 새 진로모색을 위한 '태고종도 한마음대각정진 대법회'를 2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지난 내분사태 과정에서 빚어진 원로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명실상부한 정신적 지도자로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원로 9명의 승정추대식도 함께 열린다.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상축 기원문 대회사 격려사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 법회는 운산 총무원장, 운곡 종회의장 등 3원장 스님들과 각급 기관장, 중앙종회의원, 지방교구종무원장, 신행단체장 등 3백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무선인터넷 불교정보 업그레이드 위해 일시중단

현대불교신문사가 5대 이동통신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불교정보 서비스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일시 중단된다. 그간의 서비스 체계에 대한 일부 개편작업과 벨소리 서비스, 불교케릭터 다운로드 받기, 모바일 백고좌법회 등 새로운 이벤트와 서비스를 위한 조치다. 무선인터넷 불교정보 서비스는 4월 1일부터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네티즌들을 찾아 갈 계획이다.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설법대회

■3월 23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 ■본사 · 조계사청년회 공동 주최

서해의 진주 변산반도 관음기도도량

내소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봉안식



◇ 내소사 전경 (흰선 부분이 신축한 관음전 모습)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모든 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원력으로 633년 해구선사에서 창건한 내소사는 관음조(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의 전설로 유명합니다.

법당을 완공하자 화공이 단청을 하기위해 법당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단청을 다끝내고 나올때까지 이 안을 들여다 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달이 다 되도록 화공이 나오지 않자 호기심 많은 선우스님이 살짝 문을 열고 법당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화공은 없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던 오색영롱한 새(관음조) 한 마리가 들어오는 스님을 보더니만 단청 한 곳을 못한채로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간 그 관음조는 능가산 중턱에 앉았는데, 그때 부터쯤 노스님이 암자를 짓고 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스님을 관음조의 화신이라고 불렀으며, 이후에도 암자에는 스님들이 살았으나 어느 때부터 암자는 폐쇄되고 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암자터를 복원하여 관음전을 새로 지어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을 봉안하고 봉불식을 갖게 되니 서해 진주 변산반도 능가산에 그 가피가 가득하고 사부대중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능가산 진달래 벚꽃은 관음의 미소요
촌닭새 소쩍이 노래는 남순동자의 법문이라
멀리 바다의 갈 아지랑이 온 천지에 너울너울 춤을 추니
겹겹한 산봉우리 마다마다에 봄소식 미소가 가득하다네

회 주 : 우암 혜산
선 원 장 : 한벽 철산
주 지 : 진원 · 사부대중 합장

봉불식 안내
◇ 일 시 : 2002년 4월 13일 오전 11시(불기 2546년 3월 초하루) 토요일
◇ 장 소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내소사 관음전
◇ 연락처 : 063-583-3030(주지실) 583-7284 (총무실) 583-7281(종무소)

법회안내
◇ 특별정진법회 (해안 대종사 추모재, 내소사 다경재, 전등회 창선 정진법회) : 음력 3월1일 - 3월7일
◇ 철야용맹 정진 및 천도재 안내 : 매월 2째주 토요일밤 9시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제 24교구 능가산 내 소 사

사 설

다신 이런 만행 없어야

지난 10일 오후에 발생한 경찰의 조계사 법당 난입사건이 수습되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확대될 조짐을 보여 큰 걱정이다. 우리는 먼저 정부가 이번 경찰의 불교 경시 내지 불자 멸시 행위를 야기한 지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신뢰적 조치를 취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길 바란다.

당시의 현장상황을 보면 경찰이 군화를 신은 채 법당에 난입할 정도로 긴박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법당으로 피신한 일부노조원들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법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사태를 자행한 것은 쉽게 용서하지 못할 중대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이번사태의 배경엔 총무원측이 공권력 투입과 노조원들의 퇴거를 경찰에 서면으로 요청한데서 발단됐다고 전해지고 있어 많은 불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무원측은 그 이유를 해명하고 불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조속한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조계사의 시설보호가 급하고 불가피했다 해도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고, 또 공권력투입 자체를 요청한 명동 성당 쪽과 비교할 때 너무나 대조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종교시설은 만인을 위해 보호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난처의 역할도 저버릴 수 없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 대다수의 불자들은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신군부에 의해 조계사 법당이 유린당한 1980년의 대법난을 생생하게 떠올린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부처님 출가정신 되새기자

조계종 포교원이 출가 열반절을 맞으면서 불자들의 신행 풍토를 일신시키기 위한 정진주간을 선포하였다. 종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정진주간을 선포한 것은 전국 사찰과 신도회 등의 대대적인 동참 아래 부처님의 출가와 성도의 의미를 되새겨 오늘의 불교를 새롭게 바꾸는 큰 힘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려는 뜻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은 불자들 삶의 처음이자 끝이다. 그리고 그 출가와 열반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욕망의 삶을 떠나 불퇴전의 서원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불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로 서원하는 것이며, 불교가 오늘날 사회를 이끌어 가는 종교로 서기 위해서도 이 정신이 올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이번의 정진기간이 바로 이를 확인하고 그 길을 다시 출발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욕망의 삶을 떠남에 의해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생명은 시작된다. 그 떠남은 단순히 소극적인 떠남이 아니다. 우리 불교계가 진정한 '떠남'의 의미를 구현할 때 불교계 내부의 세속적 갈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 세계에 참다운 삶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갈 불퇴전의 서원을 확고히 할 때 소극적이고 퇴영적인 모습을 벗고 보다 밝고 맑은 세상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번의 정진기간이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삶을 본받는 것에서 불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기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명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사찰환경수호 활동 본격화

공대위 출범 "북한산 관통로 잠정 중단" 정부 답변 받아

환경분쟁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사찰수행환경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타, 이하 공대위)가 11일 출범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문제 해결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대위는 1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데 이어, 18일 김명자 환경부장관 면담을 성사시켰고, 대통령, 국회 건설위 의원 면담도 연속적으로 추진해 사찰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해 문제의 중요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공대위가 북한산 사찰환경수호 문제 등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범어사, 회룡사, 내원사, 용화사 등의 수행환경 침해사례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족한 공대위는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저지에 주력하는 한편, 환경 분쟁을 겪고 있는 개별 사찰들에 대한 정책 및 예산 지원과 함께 이들을 대표해 정부·대기업과 협상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 분쟁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두레생태기행,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불교계 환경단체들과 세미나와 토론회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한다.

지난 11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공대위는 위원장에 성타스님(불국사 주지), 상임집행위원장에 현고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을 선출하고, 상임집행위원에 수경(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성오(범어사 주지), 일면(봉선사 주지), 성견(회룡사 주지) 스님 등을 위촉하는 등 인선을 마무리했다.

한편 덕천사, 미가사, 흥법사, 망월사 등 북한산 관통도로의 피해를 받는 인근 10여개 사찰들은 14일 망월사 입구에서 관통도로 공사 저지를 위한 '청정도량' 개원식 및 불상봉안식을 봉행했다. 이 행사에는 수경, 일면, 현고스님과 의정부·서울북부지역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청정도량'은 스님들이 교대로 정진하며 북한산 관통도로의 송추입구 반대편인 망월사 입구 공사를 저지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될 전망이어서 교계의 발 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일 휴무에 따른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종업원 1천명이상 기업에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행
불교계 대책수립 서둘러야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한 자리에서 민간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선도하고, 토요

그린벨트법 개정 요구

조계종, 사찰복원·진입로 개설 등 어려워

조계종은 최근 그린벨트내 전통사찰의 경우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설치가 불허돼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계종이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문화자원으로서 전통사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이나 근린시설처럼 건물의 신축과 원형복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시진입로 개설시 구역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과도한 훼손부담금을 감면하고,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건축된 건물의 증축가능면적 선정방법도 명문화 해줄 것도 청원 했다.

김원우 기자

인사 4사운동 실천 선포 진각복지재단

성금모으기 전개·홍보물 교계·일반에 배포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 이하 복지재단)은 3월 12일 종암동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효암 대표이사를 비롯해 평불협 법타스님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간 4사 운동 실천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편승엽 씨, 진각복지재단 효암 대표이사,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 지도교수로 위촉된 한성대 황진수 교수(왼쪽부터 순서대로)가 인간 4사운동 처량용 홍보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인간 4사 운동은 인사, 감사, 봉사, 희사를 통해 인간성 회복과 불교정신의 대사회적 구현하자는 대사회계몽운동이다. 복지재단은 홍보스티커, 포스터, 저금통 등을 제작해 불교계와 각 복지시설 및 일반 시민에까지 배포하는 한편, 1% 성금모으기 운동도 전개한다.

효암 대표이사는 "점차 사회가 집단이기주의와 온갖 병폐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전통문화 정신과 맞닿아 있는 불교사상를 통해 사라진 인간성을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이번 운동의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이날 선포식에서 한성대 황진수 교수를 지도교수로, 가수 편승엽 정수라 씨를 홍보대사로 각각 위촉했다.

김철우 기자

봉축등 경연대회

봉축위, 4월25일 발표

봉축위원회(위원장 정대)는 4월 23일 조계사 내 불교희관 1층에서 제3회 봉축 등경연대회를 실시한다.

봉축 등 경연대회는 등 문화 보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 작품 및 단체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작품은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봉축위원회에서 접수하며, 4월 24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02)725-6641~2.

김원우 기자

은해사 승가대학원 지안스님 원장취임

은해사 승가대학원은 13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3대 대학원장 지안스님 취임식 및 3기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했다.

지안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승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학을 진작시키고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안스님은 15년간 통도사 강주를 역임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입학식에서는 7명의 스님이 입학했으며, 이들은 3년간의 전문 교학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여기가 어디라고!!!

제보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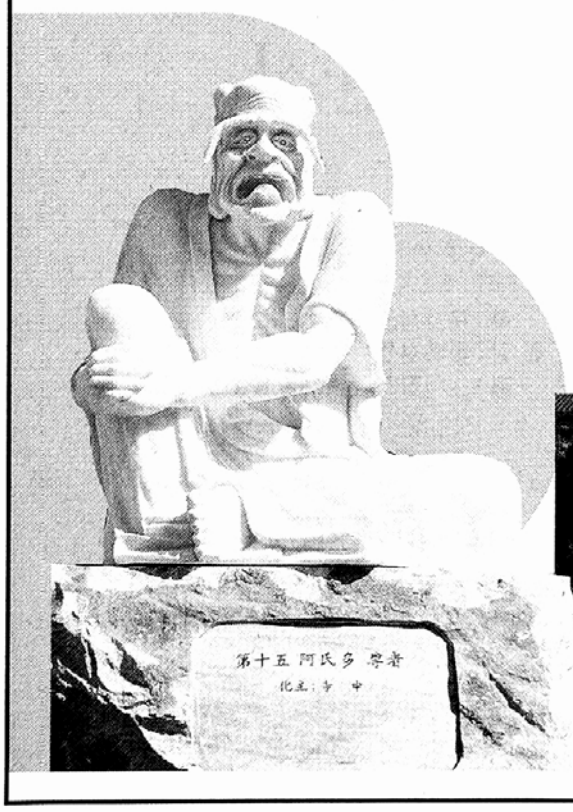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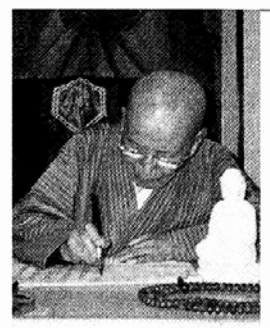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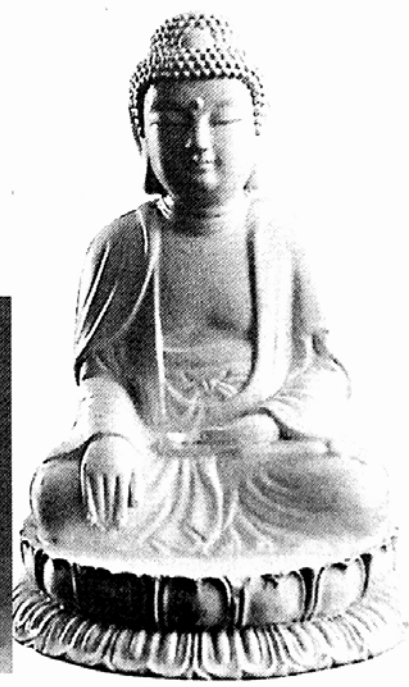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 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 造成한 圓滿
慈悲 智慧로 遍滿
具足하신 無上圓滿 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 二月 二十一日
小菴 玉崙 謹書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korea buddha 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조계종 종정 26일 만장일치로 추대

후보 법전 · 숭산 · 성수 스님



◇11일 종정 추대회의에서 종정 후보에 추천된 법전(왼쪽) 숭산(오른쪽) 성수(가운데) 스님.

조계종 제 11대 종정 후보로 법전 스님(法傳 해인사 방장), 숭산 스님(崇山 화계사 조실), 성수 스님(性壽 황대선원 조실)이 추천됐다. 오는 26-27일 열리는 추대회의에서 이들 3인의 원로 스님중 새 종정이 만장일치로 추대된다.

조계종은 11일 오전 총무원 4층에서 종정 추대회의를 개최하고, 법전 숭산 스님을 종정후보로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종산 활안 녹원 성수 지관 동춘 스님 등 원로 6명과 총무원장 정대, 종회의장 지하, 호계원장 월서 스님 등 총 9인을 전형위원으로 선정하고, 종정 추대를 위임한 뒤 오전회의를 마쳤다.

하지만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도 종정추대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해 법전, 숭산, 성수 스님 등 3인의 원로를 후보로 추천하고 추대회의를 26일로 전격 연기했다.

이날 종정추대가 연기된 것에 대해 기획실장 현고 스님은 "종정스님의 위상을 생각하여 몇 번 추대회의를 거치더라도 여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본래부터 총무원장 스님께서 갖고 있던 생각"이라며 "종정후보 당사자 스님이나 어른스님(원로의원), 해당문도 스님들이 차분히 호흡조절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다음 회의에서 만장일치 추대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스님도 "추대회의가 열리는 26일전에 예비모임을 갖고, 추천된 3분 중 한분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투표 없이 원만하고 여법하게 추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정추대가 연기된 데 대해 종단의 한 중진스님은 "추대위원 스님들의 뜻이 법전 스님과 숭산 스님으로 비슷하게 양분되어 있어 만장일치 합의추대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리이동에 따른 문중안배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기된 것 같다"고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종정추대가 이뤄지면 이에 따른 종단 수뇌부의 자리이동이 예상된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법전 스님

봉암사 결사 참가 … 선수행 강조

법전 스님은 1925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법호는 도림(道林)이다. 39년 불갑사에서 설호스님을 계사로 설제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44년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48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49년 봉암사 결사에 참가하였으며, 51년 통영 안정사 천제굴에서 성철 스님을 모시고 공부에 매진했다.

52년 이래 수십년간 창원 성주사, 문경 갈평토굴, 태백산 도솔암, 범어사, 해인사, 등 제방선원을 다니면서 참선수행했다. 67년 해인사 유나를 지냈고, 종회의장, 총무원장, 해인사 주지, 해인총림 부방장을 역임했다.

숭산 스님

해외 포교 선구자 … 군승제 시행

숭산 스님은 1927년 평남 순천에서 출생, 법호는 행원(行願)이다. 47년 수덕사에서 고봉스님을 은사로 출가, 54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49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50년 수덕사에서 하안거 이래 11안거를 성만했으며, 51년 마곡사 대교과를 졸업했다. 스님은 60년 대한불교신문사를 설립했으며, 61년 총무원 총무부장을 맡으며 군승제도를 시행했다. 스님은 66년부터 일본, 홍콩,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남아프리카에 홍법원을 개설했다. 87년 수덕사에서 '제1차 세계일화대회'를 개최하고, 92년 서울 화계사에 국제선원을 개설했다.

성수 스님

총무원장 역임 … 선원서 납자 지도

성수 스님은 1923년 경남 울산에서 출생했으며, 법호는 활산(活山)이다. 44년 범어사에서 성함스님을 은사로 출가, 47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44년 범어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1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67년 조계종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68년 범어사 주지, 78년 세계불교지도자대회 일본주최 한국대표, 81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절약을 솔선수범하는 담백한 성품의 성수 스님은 참선을 생활화하며 선원에서 납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대웅전 까지 짓밟다니…

재가연대 · 대불련 등 종로서장 파면 · 사과 요구

지난 10일 경찰의 조계사 법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불교계의 규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태 이후 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계사를 방문해 공식 사과했지만, 재가연대, 대불련, 조계사 청년회 등 대부분의 불교단체들은 사과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종로경찰서장 파면 및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불자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대낮에 수백 명의 경찰이 조계사에 진입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다, 대웅전을 군홧발로 난입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만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경찰의 대웅전 난입이 법회 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충격은 를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찰이 불교를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계사의 공권력 진입이 조계종 총무원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총무원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가연대와 대불련, 청정화합시민연대 등은 14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총무원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일부 교계단체들도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가연대가 확인한 총무원 측의 경찰병력 투입요청 문서에는 "발전노조원들이 10일 13시40분경 조계사 경내에 불법으로 들어와 종단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조원들을 퇴거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이 발전노조원을 연행하기 위해 조계사 대웅전에 난입하고 있다. 사진 = 진보넷 제공

다부분 불자들은 조계사의 공권력 진입이 총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경찰의 대웅전 난입 이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발전노조 진입을 우려해 지난달 25일 종로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는 사실 외에 공권력 투입 요청 사실을 감춰왔던 총무원 측으로서는 어떻게든 명확한 경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조계사 대웅전이 유린당한 이후 또다시 공권력에 의해 법당이 짓밟혔다는 점과 불교계를 가볍게 보는 경찰에 대한 불자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있어 단시일 내에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무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불교계 내부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명우 기자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불교문화학 정립할 터"

백제 불교문화대학 개설 사재동 교수



20년 전 불교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전에 중앙불교회관(대전불교대학)을 건립하고 포교에 나섰던 사재동 교수(69 · 충남대 명예교수). 20대 후반부터 대전지역 재가신도들의 모임인 달마회 활동을 시작으로 대전거사림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던 사 교수는 자신의 전공인 불교문학을 전공하면서 불교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다.

그런 그가 지난달 말에 한국불교문화학회를 창립한데 이어, 이달 2일에는 백제불교문화회관에 불교문화대학을 개설하고 불교문화 대중화에 나섰다. 불교문화학회 초대 회장이자 백제불교문화대학장을 맡은 사 교수로부터 취지와 계획을 들었다.

◈백제불교문화대학이 2일 개강했다. 일반 불교교양대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조계종 포교원의 전문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다른 불교대학과 같다. 다만 불교문화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문화대학에서는 문학 · 음악 · 미술 · 무용 · 민속 · 문화재 · 언어 · 복식 · 음식 · 다도 등 불교의 모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돼 있으며, 19명의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 26명이 강의를 맡는다. 처음 1년간은 교양과정으로 배우게 되며, 2년째부터는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하게 대학이름에 '문화'를 붙인 이유는.

"불교문학을 전공하면서 미술과 음악 무용 등 다른 분야를 모르고는 제대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해 알게 됐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불교문화를 접하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 불교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불교문화대학을 개설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불교문화보급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백제문화대 개설과 함께 한국불교문화학회를 창립한 취지는.

"현재 30여명의 각 분야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불교문화학회는 불교문화를 대중화하는 것 외에 불교문화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연구 성과물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불교문학이나 미술 등 각 분야의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다. 이를 일반에게 알리고, 학자들간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회에는 일반인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교수들은 정회원으로 두고 일반인들은 일반회원으로 구분해 운영할 생각이다."

◈불교문화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불교문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는 많았지만 불교문화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정리되지는 않았다. 종교나 사회 각 분야의 문화학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불교문화도 문화학 차원에서 접근하고 연구해야만 한다. 따라서 불교문화학회는 불교문화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역량을 결집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우선 6월1일 갑사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불교문화학의 방향과 방법'을 주제로 기념학술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불교문화제를 개최하고 불교문화 특강 및 각종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포교 도움' 문화대학 개설

학술제 · 특강 · 각종 공연 등 계획

봉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취임 대법회

행

모시는글

거룩한 彌勒前에 歸依 합니다.
부처님의 慈悲光明이 敎界 大德큰스님과 四部大衆 十方諸位께 늘 함께 하시기를 祈願 합니다.
금번 本宗에서는 第十一代 總務院長 深潗 法輪 大宗師 就任法會를 봉행코져 하오니 公私多忙 하시더라도 인연된 모든 불자들께서는 參席 하시어 이 法會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6년 3월 22일(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쌍미륵사(雙彌勒寺)
- **전 화** : 031-672-3353
- **총무원** : TEL 02-415-1602,1634,1688
  FAX 02-415-1631

증 명 종 정 학암(鶴岩)

부종정	태 암(泰岩)		
사서실장	법 철		
종회의장	도 명(道明)		
부 의 장	법 천(法天)		
사정원장	지 암(芝岩)	총무부장	성 암(聖岩)
교육원장	교 직(敎悳)	교무부장	법 일(法一)
연구원장	혜 정(慧定)	재무부장	혜 명(慧命)
참선원장	강 월(江月)	사회부장	진 성(振性)
참선부원장	도 선(道仙)	규정부장	대 광(大光)
포교원장	학 산(鶴山)	교화부장	일 공(一空)
홍보원장	학 림(學林)	교육부장	능 인(能仁)
사정위원	덕암, 혜산(德岩, 慧山)	연구부장	자 장(慈藏)
부산교구원장	지 암(芝岩)	포교부장	정 각(正覺)
경남교구원장	혜 철(鏸暶)	홍보부장	용 섭(龍燮)
충남교구원장	원 상(圓象)		

大韓佛敎 法相宗 總務院長 就任 準備 委員會 委員長 總務院 副院長 海月 合掌

일주문



경실련 통일협 이사장에

월주 김제 금산사 회주는 12일 경실련 통일협회 제5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



장학금 1400만원 지급

정련 부산 석암장학회 이사장은 14일 내원정사에서 중고 대학생 25명에게 1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불교병원기금 1억 전달

정우 구룡사 주지는 13일 동국대 이사장 녹원스님에게 일산에 건립 중인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

지원 삼보사 주지는 16일 지장만일기도도량 양주 육지장사에서 삼천배 철야기도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법문가요 음반 '참회' 출시

법만사 주지 법만 스님



중랑구 법만사 주지 · 사진)은 이번 음반 출시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결실은 1년전 월악산에서 칩거하며 음악작업을 하고 있는 백봉씨(한국향토음악인협회 상임부회장)를 만나면서부터다. 법만 스님이 직접 쓴 '참회 와 '수행' 등 두 개의 노래말을 나밀자 불심 깊은 백봉 부회장이 곡을 붙여준 것. 곡을 받자마자 흥겹게 노래 부르는 법만 스님의 음악적 끼를 알아본 백봉 부회장은 이어 '속죄' '산승의 모정' '불효자의 눈물' 등을 작사 작곡해 염불과 법문가요 총 8곡이 수록된 음반을 만들었다.

"노래로 부처님 가르침 전해 기뻐"

"찬불가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지만, 법문가요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래입니다. 즉 법문을 노랫말로 만든 것이지요. 법문은 대중들이 많이 모여야 되지만 음반으로 출시된 법문가요는 장소와 사람들에 구애없이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 포교 효과가 클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문가요란 새로운 장르로 최근 음반 '참회' 를 낸 법만 스님(서울 대한불교 법화종 직할교구종무원장 이기도 한 법만 스님은 "염불과 함께 노래로 부처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음반이 일상생활에 찌든 속세인들에게 감로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털어놨다. (02)433-6591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발심 북돋워 불자회 활성화

한빛은행 불자회 정진호 회장



"최근 회원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불자회 활동이 미약해지고 있어 회원들의 발심이 아쉽습니다. 회원들의 관심과 활동을 이끌어 내 불자회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6일 열린 한빛은행 불자회 창립 3주년 기념법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정진호(둔촌동지점장 · 사진) 신임회장은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소감을 피력했다.

정 회장은 "1백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팀단위 활동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지역별 · 직급별 소모임을 만들어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신임회장은 소모임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각오다.

정 회장은 "일반인들이 불교와 불자회에 대해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불자회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임 통해 유대감 강화 모색"

어렸을 적 할머니 영향으로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한 정진호 회장은 직장생활과 함께 시작된 서울 생활 중에도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와 봉은사, 구룡사, 강남포교원 등을 오가며 불심을 키워왔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08배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3회 염송할 만큼 불심이 깊다. 불교는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한다는 확신을 갖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절을 통해 해답을 얻어 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봉선사 교양대학 제24기 입학식



봉선사(주지 일면) 제24기 교양대학 입학식이 12일 봉선사 청풍루에서 봉행됐다. 이날 입학식에서 일면 스님은 "부처님의 교리를 한가지 배운 뒤 다른 하나를 배우려고 하기에 앞서 이미 배운 그 한가지를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불자가 되라"고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격려사를 하고 있는 일면 스님.

개금복지관 박용하 관장 취임식



개금복지관은 13일 복지관 강당에서 제7주년 개관 기념 및 관장 이 ·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취임한 박용하 관장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용하 신임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과정 개강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운광)는 11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2급 전문 지도자 과정 개강법회' 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운광 스님은 "3개월 동안 포교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앞줄 왼쪽부터 세번째가 법현 스님(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네번째가 운광 스님.

부산 여성불자회 8주년 기념법회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13일 부산시 백조뷔페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류경자 총무가 깊은 신심과 적극적인 포교활동으로 부산불교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혜응 스님이 류경자 총무에게 부산불교연합회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찰음식 학문적 정립"

선재 스님, 동국대 겸임교수



우리나라 사찰음식 연구와 대중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전통 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사진)이 20일 동국대 가정교육학과 대학원 겸임교수에 임명됐다.

그동안 동국대 가정교육학과의 요청으로 특강형식의 사찰음식 강의를 해 온 스님은 최근의 채식열풍과 사찰음식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맞물려 겸임교수 직을 수행하게 됐다.

스님은 "단순한 먹거리로서만의 사찰음식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이 담긴 철학으로서, 의학 · 과학 등 제 분야 학문과의 연계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눔의 집에 5천만원 기탁

소설가 공지영 씨



〈봉순이 언니〉의 작가 공지영(사진) 씨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 5천만원을 기탁했다. 공 씨는 5일 인세로 받은 2억 1천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써 달라"며 5천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대중 눈높이 맞는 불서 낼 터"

임오년을 뛰는 불자 ⑩ · (끝) 도서출판 운주사 김시열 대표



불교출판계가 수년 째 계속된 출판 불황과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획물로 임오년을 뛰는 출판인이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 김시열(사진)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 지난해 11월 불교총판 운주사에서 독립한 그는 올해 초 새로운 출판 기획을 세웠다. 그 기획들의 초점은 '대중성' 이다.

"불교출판이 활성화되려면 불교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 두지 않고 대중 속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출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특하면서도 참신한 기획과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우수한 필자가 있어야 합니다."

출판인으로서 무엇보다 기획을 강조하는 김 대표는 올해 새로운 기획을 시도한다. '누구나 알아두면 유익한 00시리즈' 가 그 첫 번째 기획이다.

'누구나 알아두면 유익 …' 시리즈 기획

불교 인물, 불교 문화재, 불교 용어, 불교 예절 등 불교의 세포라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초심자나 일반인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리즈는 권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최대한 불교를 세분화해 책으로 묶어내기 때문이다. 현재 불교용어와 예절, 불교 풍속 등 3 · 4권이 준비 중이고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김 대표는 콘사이스사전 형식의 대중용 불교사전 출간도 추진하는 한편 우리 불자들에게 요긴한 번역물을 꾸준히 출간 계획도 세워놓았다.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이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선학총서시리즈를 비롯해 학술서도 계속해 출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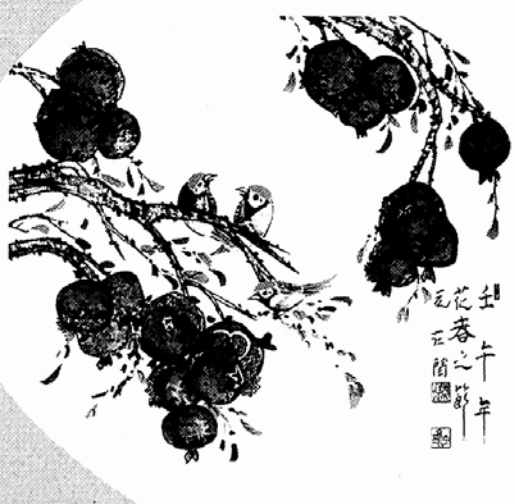
김 대표가 올해 심혈을 기울이는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 서점 운영이다. 그동안 법보신문사와 공동으로 운영해온 인터넷 서점 '붓다 북' 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김 씨는 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편안하고 쉽게 불서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꾸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좋은 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들이 좋은 책을 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서점은 독자들이 안방에서 언제나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판사와 인터넷 서점을 함께 운영하는 김 대표는 올해가 어느 해 보다 뜻깊다고 한다. 불교 출판에 발을 들여놓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그동안 구상해온 출판기획물들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慧賢 元在閏 作品展



인사말씀

修行한지도 어언 30여년이고, 붓을 잡고 시름한지도 어언 30여년 이 되었습니다.

靑雲의 꿈을 접어두고, 마음 밝히는 데 한세월을 보냈었구려...
젊음은 어디에 두고 흰 머리만 가득하니 오호라~통제여 가는 세월을 어느 누구가 잡고 막을수가 있겠는가. 어제 같이 개구장이였던 것 같은데, 눈 깜짝할사이 中年이 되고보니 봄날에 양지쪽에 누워 잠깐 자고 일어나니 어느덧 서산에 해가 지고 있드라 하더니 오늘날 내가 황혼에 접어드니 인생사가 꼭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몸도 마음도 움추려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가지에 찬 바람이 불어올 때 山寺에 풍경소리 그윽한 향내음이 나의 영혼을 일깨워 준다오.

自我라는 話頭에 일구월심으로 修行하지만 아직도 미흡함이 많고도 많아 자아를 뒤돌아 보는 일들이 한 두번이 아니옵니다.
人間이 완벽함이 없기에 모순이 있고, 모순이 있기에 眞理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만사 한시름 놓고 묵향삼매에 한번 젖어봄도 긴 인생사에 마음에 지식과 여유로움이 나의 풍류기질을 부축함도 있으련만, 즐거울때나 쓸쓸할 때 친구이자 벗으로 여기고 30여년 동반하여 왔습니다.

마음에 아니들고 미흡함이 많더라도 제방 큰스님네 제현들께서 왕림하셔서 문책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이만 인사 가름하옵니다.

2002년 3월 2일 청도화실에서
원재윤 합장



원재윤 스님

약력

- 불미전 입 · 특선
- 한국미술대전 특선
- 제1회 단원예술제 특선
- 한국예술83대제전 특선
- 불우이웃돕기 그룹전 출품
- 고승합동전시회 출품
- 은혜사 교무규정 역임
- 제적사 주지 역임
- 경흥사(경산)주지 역임
- 천석 박근술선생 사사
- 라홍원선생 사사
- 옥전 강지주선생 사사
- 일파 박영근선생 사사
- 97년도 대구에서 개인전 전시
- 영지사 주지 역임
- 현. 진왕화실 원장

■ 일 시 : 2002. 4. 2(火) ~ 4. 8(月)
■ 장 소 : 국제신문 문화센타 제 2전시장
■ 문의전화 : 051)500-5386

■ 화 실 : 경북 청도군 화영읍 송북리 404-3번지
■ TEL. 054)373-3556 H.P. 011)503-9933

공무원불자회 링 린포체 초청

과천청사 공무원불자연합회는 11일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링 린포체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링 린포체 스님은 "일체중생이 불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공무원불자들이 링 린포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금강회 무사고 안전운행 기원

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13일 회사내 금강원에서 차량안전운행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운전자들의 무사고 안전운행을 기원했다. 회원차량과 회사 업무차량 50여대에 대한 축원도 진행됐다. 지도법사 증악스님이 축원하고 있는 모습.



세무사불자회 법웅스님 초청법회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구정)는 8일 서울 강남 봉은사 선불당에서 법웅스님(봉암사)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참선수행을 주제로 설해진 법웅스님의 법문은 세무사불자회 홈페이지(www.buddhatax.com)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 정구정 회장(왼쪽) 등 회원들이 법웅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참선회 정일스님 친견법회

경찰청 참선회(선원장 자우)는 10일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서 정일스님(선학원 이사장)을 친견하고 법문을 청해 들었다. 20여명이 동참한 이날 정일스님은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는 화두를 내렸다. 사진은 정일스님(앞줄 가운데 앉아계신 스님)을 모시고 기념 촬영한 모습.



"모든 정부부처 불자회 결성"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이남기 고문



"과천에 입주해 있는 모든 정부부처의 불자회가 연내에 창립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직능 단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 59 · 사진) 고문은 정부부처 불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불자회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불자회 창립과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당시 든든한 후원자였던 이 고문은 "최근 공무원불자회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부부처가 있다"며 "불자들을 결속시키는데 후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불자회가 구성된 곳.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이 고문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은 결과다. 1999년 공정거래위 불자회(정불회) 창립은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불자회 창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승보'라는 법명을 갖고 있는 이 고문은 법화경 사경과 금강경 독송 등 틈나는 대로 불교를 생활화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더라도 지심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우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풀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10년이 넘도록 취침 전 관세음보살보문품경을 독송하고 매일 아침예불과 108배 올리는 것을 생활화 하고 있다.

시간 여유가 생길 때는 법화경 사경을 통해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단정히 한다. 어려움에 부딪칠 때는 조용히 금강경 4구게를 염송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참구한다. 어떤 때는 하루에 1백번 이상 염송할 때도 있다고 고백했다. 고위 공직자라는 자리가 그만큼 힘들 때가 많다는 반증이다.

그는 최근 모친의 49재를 청화스님(성곡사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 집전으로 북한산 승가사에서 치뤘다. 이를 계기로 청화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승가사 신도들이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도봉산 광륜사를 찾아오는 바람에 승가사와 광륜사 간 교류의 큰 물줄기가 트였다고 한 불자가 전했다.

이남기 고문의 가정은 대대로 독실한 불교 집안이다. 부인 이정희 여사는 매일 새벽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강남 봉은사를 찾아 새벽예불에 동참한다. 어두운 새벽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0여분 거리인 봉은사까지 매일 걸어서 왕래하고 있다. 특히 이 여사는 일주문을 들어와 새벽예불 후 그 문을 나갈 때까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일관, 주위에서 '새벽의 모범 보살'로 정평이 날 정도로 신심이 깊다. 이남기 고문은 "아내의 신행을 보면서 '아내같은 불자로 살아야겠구나'며 매번 다짐하게 된다"고 고마운 표정을 짓는다.

"불자결속에 후원 아끼지 않을터"

매일 아침예불·108배 생활화

틈나면 법화경 사경…마음 추스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단체 활성화 '꿈틀'

직장 직능 신행단체들의 창립기념일이 3월에 유난히 많다. 3월에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하는 직장 직능 단체들이 모임활성화를 위한 대안찾기에 나섰다. 한국석불선양회와 한빛은행 불자회, 제천불교산악회, 대한중석초경 석불회 등 단체들이 모임의 특성에 맞는 기념행사를 마련, 회원 확대와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창립 2주년을 맞아 10일 경기도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을 찾아 석불친견법회를 봉행하고 "석불에 담겨진 원력을 되새기고 불교적 신앙의 귀의처로의 회복"을 발원했다. 이 자리에서 석불선양회는 하반기중 부산, 대구 등 2개 지역의 지부를 설립하고 재가불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불교종합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등 활동계획을 밝혔다. 또 직장 직능 단체들의 사찰순례 법회를 석불친견 법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직장 직능 단체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빛은행 불자회(회장 정진호)는 16일 본점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회원들의 소속감 강화 등 모임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빛은행 불자회는 5~7명의 회원들로 지역별, 직급별 소모임을 운영하고 회원들의 직장내 포교활동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직장직능 단체들이 모임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석불선양회는 10일 소래산 마애불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석불선양회 부산·대구지부 설립

한빛은 불자회 소모임 활성화

이날 취임한 정진호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심을 유도해 불자회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창립 2주년을 맞은 제천불교산악회(회장 이명호)는 17일 제천 금성면 동산에서 산상법회를 열고 회원 확대와 불교산악회간 연대활동 강화 등 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밖에도 9일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 대한중석초경 석불회(회장 임갑수)는 회원들의 3교대 근무로 회원들간 친목활동이 부족한 점을 감안, 전체 회원이 동참하는 사찰순례와 대구지역 신행단체와의 교류 등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우리 모임에선

서울도시철도 법우회 사찰순례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환)는 23일 서울 종로 조계사 순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순례에서는 전통사찰 문화재 관람과 사찰예절에 대한 강의가 마련된다. 법우회는 매월 지하철역 인근의 사찰을 순례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다.

SBS · MBC 불자회 연합법회

SBS 법우회(회장 허원재)와 MBC 불교연구회(회장 장영효)는 21일 정오 서울 여의도포교원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방송사 불자회간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다.

서초반야회 법현스님 초청법회

서초반야회(회장 김동건)는 2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성사에서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 회원들은 삼법인과 사법인을 주제로 법문을 들을 예정.

대우기계·KAI 법우회 금강경 강독

대우종합기계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법우회(회장 곽차식)는 26일 오후 5시 30분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원광스님을 초청, 금강경 강독회를 갖는다.



◇이경재 팀장

철불협 전법팀 발대식

팀장에 이경재씨 선임

철도단체불교협의회(회장 정동진)는 9일 대전역 인근 식당에서 전법팀을 발족하고 팀장에 영주기관차승무사무소 이경재 씨를 선임했다.

전법팀은 불자회가 구성되지 않은 단위 사무소의 불자회 창립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단체의 법회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 철도청내 포교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전법팀을 구성하는 포교위원은 소속 종단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4월과 5월 간담회를 남부지역과 중부지역에서 개최해 창립가능단체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지역관리역 법우회를 5월까지 창립하기로 했다.

금주의 법회

■ 20일

△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2시 서울 구로동 관음포교원 △중앙병원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6시 병원법당

■ 21일

△국회 정각회 불교신도회=낮 12시 본청내 정각선원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7시 왕십리역 역무교양실 △SBS △보훈병원 보훈불자회 정기법회=낮 12시 보훈법당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 법륜회 정기법회=오후 2시 부산 승광사

■ 22일

△국립경찰병원 불자회 환자법회=오후 4시 병원법당

■ 24일

△금융단불교연합회 성지순례=영주 부석사 · 희방사

■ 25일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 정기법회=낮 12시 병원법당

■ 26일

△한전 삼천포화력 보림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고성 운흥사 △국립재활원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7시 병원법당

법회안내=(02)722-4162~3

중국 관정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극락은 있다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 신국판 | 정가 8,000원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선유현 적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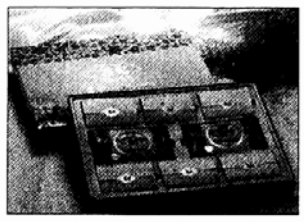
-본문 중에서-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솔천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 하품 · 중품 · 상품연화
아미타불의 부촉 / 인간세계로 돌아오다 ……

좋은 佛書 좋은 佛子를 만드는- 붓다의마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9 갤러리상 405호 ☎02)722-0292~3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할머니 박옥이 씨와 할아버지 엄영섭 씨가 손주들이 받아온 상장을 보면서 장래 교육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病苦속 세 손주 돌보는 할머니

"애들 배불리 먹여 봤으면…"

아침 7시 지용이(14)와 대용이(13), 막내 미정이(10)가 일어나 등교준비를 서두른다. 아침 끼니를 거르고 학교에 갈 때가 많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원망하기보다 며칠 전부터 당뇨가 악화돼 온몸이 퉁퉁 부은 할아버지 걱정에 발을 떼지 못한다.

생활고 비관 엄마가출

당뇨와 고혈압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엄영섭(72) 씨, 좌골신경통으로 잠시도 앉아 있기 힘든 할머니 박옥이(67) 씨. 이들 노부부가 아이들의 할머니·할아버지가 아닌 '부모 노릇'을 시작하게 된 것은 10년 전 작은 아들이 행방불명된 후부터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지용이 엄마마저 가출해 버렸고, 작은 아들 또한 충격을 받아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다보니 졸지에 고아가 되다시피 한 지용이를 거둬 키우게 됐다. 게다가 6년 전 큰 아들마저 뇌졸증으로 쓰러지면서 대용이와 미정이 남매 역시 이들 노부부가 맡게 됐다.

이들 노부부의 지나온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구하다. 엄 씨가 40년 전부터 결핵을 앓게 되면서 가족의 생계는 고스란히 할머니 박 씨가 꾸리게 됐다. 3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45년 넘게 수발을 들다보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의 연속'이었다.

"큰 아들 놈하고 서울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쓰러져 뇌수술만 다섯 번 넘게 했을 땐 눈앞이 캄캄했어요. 바깥양반과 시어머니까지 노환으로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만 있을 땐, 막막했지요."

요새 박 할머니에게는 유일한 낙이 있다. 손주들이 받아온 상장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는데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배고프다고 투정을 부리다 잠든 아이들을 볼 때면, 측은한 마음에 가슴만 쓸어내리곤 한다.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간 지용의 교복도 인근 복지관에서 얻어다 입혔다.

한달 생활비 15만원

이들 가족의 생계비는 할아버지 엄 씨 앞으로 나오는 생활보호대상 지원비 40만원이 전부. 전기세,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 25만원을 주고 나면, 다섯 식구는 15만원으로 한달을 살아야 한다.

"아이들만이라도 배불리 먹일 수만 있다면…." 할머니 박 씨가 말끝을 흐리다가 흐느끼고 만다. 보청기를 끼고 있어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할아버지 엄 씨가 표정만으로 이해했는지 옹크린 아내의 등을 토닥거려 준다.

전화 02)982-7754,

계좌 국민은행 052-24-0165-780 예금주 엄영섭

김철우 기자

신행 캘린더

3월 20일 (수)

■마아문화원 '절하기' 강좌=남들은 쉽게 잘하는 절이 왜 이리 힘든 것인지… 내가 하는 절이 격식을 제대로 갖춘 것인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스님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오후 3시 30분, 서울 안국동 본원에서 열린다. 강의료 4만원.(02)722-1050

■재가연대 '주말농장'='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곡식 한 알 한 알마다 농부의 땀방울이 맺혀 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공양의 의미를 경기도 파주 주말농장에서 찾아보자. 농사에 관한 기초지식도 함께 배울 수 있다.(02)764-6230

3월 23일 (토)

■히말라야 '요가 강좌'=인도 히말라야 리쉬케쉬 지역 요가 수행자들의 스승 스와비 베다 바라티. 그의 제자인 아슈토쉬 샤르마가 를 통해 알아보는 생생한 인도 요가의 실체. 인도 '하타요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강좌는 오후 4시 30분 강원도 원주 피라밋 명상원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3만원(017)420-2200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수지침' 강좌= 고려수지침학회 김기종 학술위원이 진행하는 무료 수지침 강좌. 전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모여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도 하고 있기에 더욱 뜻 깊은 강좌다.(02)723-6258



◇지난해 자원봉사련에서 열린 '수지침'강좌.

■터사랑 '성지순례'=신춘을 맞아 꽃피는 남녘의 성지를 찾아간다. 보물 제947호 미황사 대웅전, 보물 제1183호 미황사 응진전…. 아울러 조선 중기 문인 윤선도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보길도 세연정과 동천석실 등도 둘러본다.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후 9시 30분 안국역.(02)725-1284

■해인사 '팔관재계 수계행사'=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불자들은 얼마나 계를 지키고자 애쓰는지 낮 12시 해인사 보경당에 모여 점검해보자.(055)931-1001

3월 24일 (일)

■신라문화원 '성지순례'=경상북도 봉화 축서사, 안동 봉정사, 안동 제비원으로 떠나는 여행.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 보물 제55호 봉정사 대웅전, 보물 제115호, 제비원 마애불 등을 찾아 떠나는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전 8시 경주 고속버스터미널 옆 본원. 참가비는 3만원.(054)774-1950

3월 25일 (월)

■연화복지원 '생활꽃꽂이' 강좌=새봄을 맞아 집안 구석구석을 꽃으로 장식해 본다면 기분이 한결 상쾌해질 것이다.

이 강좌의 강사인 연화꽃꽂이회 회장인 보명 스님은 현재 불교방송에서 꽃꽂이를 직접 지도하고 있다고.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광림사 본원. 강의료는 무료.(02)2202-5831

3월 28일 (목)

■심리상담연구소 '어머니가 하는 상담' 강좌=부모 자식간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심리상담연구소 방기연 소장과 함께 그 해법을 알아본다.

이번 강좌는 28~29 양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한국일보 건너편 본원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10만원.(02)722-2757

영어·침술공부·봉사 바쁜 나날

우리 절 우리 신도

묘각사 신도회 나청자 감사



◇불자약사보리회 명예 회장 나청자 보살(오른쪽)이 한달에 한번 종묘에서 실시하는 봉사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주고 있다.

무료투약등 노인복지에 진력

"불자라면 포교 적극 나서야죠"

"부처님께서는 성도 후 열반의 순간까지 하루도, 아니 한시도 포교를 놓으신 적이 없었어요.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포교를 하시다 길에서 열반하셨습니다. 포교 속에는 자비와 지혜 그리고 원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포교가 바로 불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살은 완연한 봄이지만, 아직 찬 기운은 다 가시지 않은 12일, 서울 강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묘각사 신도회 감사를 맡고 있는 나청자(62) 보살을 만났다. 그가 병원을 찾은 것은 과로 때문. 그의 일과는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쁘다. 공부와 봉사활동으로 꽉 짜여져 있다.

나청자 보살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영어학원에 가서 공부한다. 그리고 아침 공양 후 다시 침술을 배우러 간다. 나 보살의 오전은 공부로 일관된다. 병원에서 만난 나 보살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침서를 놓지 않을 정도로 열심이다. 이렇게 영어와 침술공부를 하는 것은 모두 포교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봉사활동을 한다. 그의 봉사활동은 요일별로 하는데 폭 또한 넓다. 묘각사 신도회 활동에서부터 종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무료투약봉사 및 건강상담, 서초복지관과 가평 꽃동네 수지침 봉사활동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나 보살의 신행 원찰은 서울의 중심 종로구 숭인동에 소재하고 있는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 어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 묘각사 신도인 그는 신도회 부회장에 이어 현재 감사를 맡고 있다. 따라서 그의 묘각사 사랑은 남다르다.

"묘각사는 70년대 말 불교야학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도심 포교의 중심도량이었습니다. 지금은 각종 법회를 비롯해 신도교육을 위한 보살학교, 어린이집 운영 등 전법과 복지 등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수십 년 째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는 나 보살은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습이 되었다. 특히 나 보살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적극적이다. 창천노인문화교실에서 운영하는 노인 스포츠 댄스교실 등 노인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돕고 있다. 주지 홍파 스님이 상계동에 치매노인요양소를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도 바로 나 보살과 같은 헌신적인 신도들의 도움이 많기 때문이다.

나 보살은 봉사와 함께 불교 공부도 남다르다. 그는 10년 전 능인선원 경전연구반에서 〈금강경〉, 〈아함경〉 등을 공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불선원, 동산불교대학, 연등국제불교회관 등을 다니며 경전과 수행을 배웠다. 이로인해 지난해 조계종 제6차 포교사 고시에 남편과 나란히 합격해 교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 보살이 불교공부의 원력을 세운 것은 불자들 대부분 기복 불교에 치우쳐 올바른 신행활동은 물론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부터다.

"불교가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고 해도 전법이나 포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까지 불교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포교야말로 본교인이 해야 할 마지막 생명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하루빨리 기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대안이 공부와 수행 그리고 봉사입니다."

하루도 봉사와 불교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이 쑤신다는 나 보살은 "내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간다"며 "이러한 작은 활동이 불교의 대중화와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지 사찰에 다니는 신도가 아닌 체계적 교리공부로 교학과 실천을 겸비한 나 보살과 같은 불자들이 있기에 한국불교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김중근 기자

추천의 말

홍파 스님 묘각사 주지



묘각사는 1930년 5월 태허 대종사님께서 창건한 사찰로 〈법화경〉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대중불교운동을 지향하는 법화 신앙의 중심 사찰입니다.

특히 묘각사는 관음종의 근본 도량으로 전국 520여 사암을 대표하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5년 전 화제로 대웅전이 전소되었지만 신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불사가 한창입니다. 조만간 봉불 점안 및 낙성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나청자 신도회 감사는 요즘 보기 드문 불자입니다. 신심이 투철할 뿐 아니라 봉사와 불교공부에도 적극적입니다. 불자약사보리회를 조직해 활동을 하는가 하면, 묘각사 보살학교를 비롯해 여러 불교교양대에서 불교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묘각사의 행사 때면 가장 먼저 와 스스로 일을 찾아서 솔선수범해 신도들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 미주 선학 대학원 대학교 신입생 모집

1. 소 개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하고 있는 선학대학원(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은 미국내에서 최초로 禪과 명상 그리고 그것의 응용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미국 최초의 불교대학원입니다.
선과 명상에 관한 관심과 그것의 건강, 의료, 상담 등에의 응용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에서 유행하는 추세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주 선학대학원이 미국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펜실바니아 주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대학원 인가를 받은 것은 불교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9월에 선학대학원은 정식 개교되며 이에 따라 선응용학과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프로그램

2년 석사과정의 프로그램으로서, 졸업후 禪과 명상을 교육하고 응용할수 있는 석사학위가 주어집니다.
영어로 모든 강의가 진행되기에(미국인과 함께 수업) 선과 불교를 공부 함과 동시에 영어를 익히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응시자격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TOEFL 성적이 550점 이상이 되는 자.

4. 원서 교부 및 접수

2002년 가을 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6월 15일까지 소정 양식의 원서를 선학대학원 교무처에 (0011-215-884-8942) 제출하면 됩니다.

5. 기 타

원서 교부 및 입학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거나
email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info@woninstitute.org
과목 및 교수진, 학비 등 자세한 내용은 한글 홈페이지 www.woninstitute.or.kr
혹은 영어 홈페이지 www.woninstitute.org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37 S. Easton Road Glenside, PA 19038 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

미 주 선 학 대 학 원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54-3733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게 장점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염불선

1. 관정스님의 정토선
2. 전국염불만일회의 염불결사
3. 청화스님에게 듣는 염불선

불가의 수행법은 옛부터 염불, 참선, 간경, 주력, 참회 수행 등이 전해져 왔다. 이들 중 우리나라 불자들은 참선을 가장 수승한 수행법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의 참선법은 지관(止觀)수행이 아닌 간화선 위주의 화두(話頭) 수행법으로 보통의 불자들은 따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달리 염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무아미타불'만 부를 줄 알아도 염불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염불수행 결사인 '전국염불만일회(공동회장 보광, 김재일)는 염불이 부처님을 가장 쉽게 찾아가는 길이며 중생의 능력과 근기에 맞춘 대중의 수행법이라고 주장한다. 즉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염불수행은 불교 입문에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신심을 받쳐주는 필수적인 수행법이라고 말한다.

98년부터 2025년까지 27년 5개월간의 만일염불에 들어간 전국염불만일회의 결사운동은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수행체계의 하나다. 천년 세월동안 살아서 실천되고 있는 염불결사는 중국과 일본이 염불의 횟수를 중요시하는 것과 달리, 기간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일수염불(日數念佛) 형태를 띠고 있다. 각 사찰에서도 연중행사의 하나로서 단기간은 3일, 5일, 7일, 21일, 100일 염불기도 등이 있으며, 장기로는 1000일 혹은 만일염불 기도도 있다.

염불만일회는 서기 758년(경덕왕 17년) 발징(發徵)화상이 신도 정신(貞信), 양순(良順) 등과 함께 최초로 개설하여 기도정진한 것이 효시다. 그후 간헐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1908년 금암의훈(錦巖宜勳)스님이 1927년까지 제5차 만일회를 개설했으며, 정토사 회주 설산스님이 74년 5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1만일 염불정진을 계승했다.

염불만일회 회장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8세기경부터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는 염불만일회의 역사는 종교적으로 자각(自覺)과 반성(反省)의 운동이며, 경제적으로는 사원의 든든한 후원단체이며, 사회적으로는 국난의 극복 및 민중의 귀의처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염불에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稱名)염불, 〈정토삼부경〉이나 아미타불을 쓰고 그리는 사경(寫經)염불, 부처님의 공덕이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는 관상(觀想)염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생각하는 법신(法身)염불이 있다.

이중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이다. 칭명염불에 의해 수행자는 마음이 정화되고 깊어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관불(觀佛)삼매'의 세계에 들게 되면 비로소 수행자 앞에 나타난 아미타불이 자성미타(自性彌陀)임을 알게 되며, 정토왕생이라는 궁극의 세계가 펼쳐진다.

염불은 많은 선근을 심고 복덕을 쌓기 때문에 〈무량수경〉의 48원 가운데 제20원은 '자력(自力)의 염불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의 뜻은 제18원의 십념(十念)으로 왕생하는 '타력(他力)' 염불도 포함한다.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은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의 염불관은 자신의 업을 닦다 보면 비로소 정토에서 아미타불을 만난다는 자력과 타력이 조화롭게 만나는 대승의 정신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불수행은 아미타부처님을 일심으로 부르는 '아미타 정근'을 가장 중요시한다. '나무아미타불'을 3000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르는 '나무아미타불 삼천송', 발걸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행선염불' 등 아미타 정근의 방법은 다양하다. 북과 징을 치며 큰소리로 염불하는 등 운율에 맞추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98년~2005년까지 정진 | 칭명·사경·관상·법신 중
758년 발징화상이 효시 | 칭명염불이 제일 대중적

삼독심 고개드는 순간마다 '아미타불'

만일염불회 도량인 서울 정토사 주지 응천스님은 "탐내는 마음이 나올 때 나무아미타불! 성내는 마음이 나올 때 나무아미타불! 어리석은 마음이 나올 때 나무아미타불! 이와 같이 꾸준히 수행정진할 때 탐·진·치 삼독이 녹아내린다"며 일심칭명의 원리를 설명했다.

이처럼 아미타 정근은 탐진치 삼독을 제거해 신업(身業)·구업(口業)·의업(意業) 등 삼업을 정화한다. 아미타불 칭명염불에 의해 마음이 정화되고 깊어짐에 따라 아미타불이 현전하고, 드디어는 자성미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염불수행의 과정이다.

한편 염불의 실천방법을 서술한 것중에서 오염문(五念門)은 염불행자들이 거쳐야하는 필수과목으로 알려져 있다.

그 첫째가 예배문(禮拜門)이다.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는 것처럼 몸으로 아미타불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둘째는 찬탄문이다. 입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그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다. 입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만을 지성으로 부르는 방법과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는 작원문(作願門)이다. 사마타(samatha, 止)수행을 통해 오직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넷째는 위빠사나(vipasyana, 觀) 수행을 통한 관찰문이다. 지혜로써 아미타불의 장엄공덕과 극락세계의 장엄공덕, 그리고 모든 보살들의 장엄공덕을 관찰하는 것이다. 즉 예배, 찬탄을 통해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다섯째는 회향문이다. 예배, 찬탄, 작원, 관찰의 염불수행으로 이루어진 공덕을 일체 고뇌의 중생과 함께 하되 그들과 극락에 함께 태어나기 발원하며, 성취한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김재일 회장은 "아미타불의 정토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의 정토에 태어나겠다는 보리심의 증장과 더불어 주변의 도반들과 함께 불도를 이루겠다는 회향발원이 지극히 중요하다"며 "매일 오전 10시에 아미타불 1,000번을 정성껏 부르자"고 말했다.

염불만일회는다음과 같은 육염불생활(六念佛生活)을 통해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수행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한다(念佛) △말은 부드럽고 행동은 자비하게(慈悲) △여유있는 마음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자(儉心)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한다(孝道) △이웃에 부처님 법을 전한다(傳法)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회하자(懺悔) 등이다.

수행법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참선수행한 큰스님들도 병행"

74년5월~2001년 10월 1만일 염불회향 설산 스님


◇설산 스님

"고려시대의 고승 나옹화상은 염불수행을 하면 법신불이 된다고 살파했어요. 염불을 하면 내가 곧 부처님이요, 미타세계에 사는 것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 74년 5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1만일 염불정진을 회향한 전국염불만일회 법주 설산스님(정토사 회주)은 "염불은 누구나 쉽게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나무아미타불' 여섯자만 외우면 되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참선보다 못하다' 생각 버려야

설산스님은 "원효, 나옹스님을 비롯해 효봉, 청담, 동산스님과 같은 참선을 한 도인들도 아미타부처님을 염했다"며 "염불이 참선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법 천년에는 아미타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으니 염불수행으로 염불삼매를 얻기가 쉽다는 설산스님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 듯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염불"이라며, "언제 어느 곳에서나 염불하면 반드시, 수행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했다.

설산 스님은 일제강점기인 15세때 건봉사로 출가해 강원선방, 염불원에서 두루 정진했고 당시 오대산 상원사 조실 한암 스님 문하에서 참선수도했다. 6.25 전쟁을 만나 건봉사가 폐사되면서 서울 삼각산 정토사를 창건, 옛 건봉사의 염불만일수행을 계승해 나무아미타불을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염하고 있다. 85세의 고령인 스님은 오는 초파일을 전후해 상좌인 정토사 주지 응천스님에게 새로운 염불만일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3월-바라밀의 달
- 발보리심
- 발보리심의 단계
- 창조적 자기변화
- 바라밀의 완성

창조적 자기변화


◇청주불교신행회는 한달에 두 차례 청주소년원을 방문, 원생들에게 '자기변화'를 통해 선재동자의 길을 갈 것을 강조한다.

수행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방법이 있다. 성격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문희 보살(50, 서울 성북구 정릉)은 96년 교통사고로 18개월이나 병원신세를 졌다. 담당 의사조차도 제대로 걷기 힘들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다. 이 보살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이 보살은 병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자신보다 더 고통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나만 정직하게 살면 된다'는 예전의 소극적인 성격이 '이제는 남을 위해 살자'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현재 이 보살은 일주일에 5일은 무조건 복지관, 병원 등에서 무료급식, 간병 등의 자원봉사를 한다. 벌써 5년째다.

이 보살은 "남편과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몰라보게 바뀌었다고요.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라고 말한다.

청주불교신행회 신호식 회장(57)은 한 달에 두 번은 청주소년원을 찾아 이곳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을 한다. 신 회장이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자기를 바꾸라'는 것이다.

30세에 불교에 입문해 부지런히 공부했지만 불교지식이 쌓여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자신이 불만스러웠고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91년 청주불교신행회를 창립하면서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 회향하겠다는 발심을 하고는 대중법회와 교화사업을 벌여나갔다.

"만약 그때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뜻있는 삶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잘못된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즉, 고통을 발심의 동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고 수행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보면 '큰 생각'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다.

한명우 기자

모든것을 내탓으로 돌리고 아주 작은선행부터 실천을

신간!



Tel 02) 713-6363, 2237-1641
Fax 02)713-6362
백양출판사

세상의 총각들이여!

당신은 10년의 긴 세월동안 교제해온 애인이 다른 남자에게 강간당했다면
그 여자의 피치못한 사정을 이해하고 다시 포근한 사랑으로 감싸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당신은 아들의 애인이 직장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그를 죽인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며느리 감을 위해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고
다시 그녀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이며 출옥후 선뜻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사랑은 에로스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고급명령이 합일된 시작이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섹시함으로 시작된 에로스적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녀들은 법원 옆에 살아야 이혼 소송이 간편해집니다.



이 책을 구상한 것은

1994년,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원고지 몇만 장의 분량이 족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셈이다.
요즘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상점과 슈퍼에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먹거리가 부지기수로 널브러져 있다.
그 고도 성장의 한 모퉁이에서 새삼스럽게 50년 전의 퇴색된 역사를 끄집어 내어
분해하는 작업으로 글쓰는 것을 수없이 망설였다.
그러나 아직도 논바닥에 심은 벼포기를 이르러 '쌀나무'라고 칭하는 젊음이 있다면
아니, 배고픈 시대를 돌이켜 절약 정신을 일깨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 하고 간단하게 반문할 수 있는 엉뚱한 청춘이 존재한다면
그 마음편한 청춘들을 위해서 역사 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픈 사명감이 깊이 자리잡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저자의 말 중에서

• 저자 이진하 스님과의 대화
선문사 TEL 031) 867-5114

이진하 장편소설
아버지의 세월 1·2·3
298~304쪽|각권 8,000원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⑳

우주관의 변천

태양→별→은하→4차원 세계

경전내용 해석·실천방법
2000년전 옛방식 고집말고
現代人 인생관에 맞추어야

기원전 6세기 희랍의 탈레스는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며, 달은 햇빛을 받아 반사한다고 했고, 피타고라스는 원과 구의 조화사상에 따라 천체들은 각기 구에 붙어 회전한다고 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에서 달까지 이르는 지상계는 흙, 물, 불, 공기 등으로 이루어진 불완전한 세계이고, 달 밖의 천상계는 제5원소인 하늘로 이루어진 영구불변의 완전한 세계로 보았다. 이러한 우주관은 16세기 코페르니쿠스의 과학 변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지탱해 왔다. 한편 140년경 프톨레미는 실제로 행성의 운동을 관측하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다. 이러한 천동설이 중세 암흑시기에는 일종의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어느 누구도 이에 반대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었다. 그러나 1530년경 수학에 뛰어난 코페르니쿠스는 과거의 천체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야 한다는 지동설을 제창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까지 믿어왔던 원의 조화사상에 따라 모든 행성은 원 궤도를 돈다고 보았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새로운 과학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1600년경 케플러는 화성의 운동에 관한 과거의 자료분석과 관측에서 행성들은 타원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로 돌며, 그리고 궤도 크기와 공전주기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행성운동에 관한 3가지 경험 법칙을 내놓았다. 이러한 케플러의 경험법칙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면서 만유 인력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17세기 뉴턴이다. 뉴턴의 이론에 심취했던 철학자 칸트는 태양계의 생성에 관한 성운설을 제안했다. 18세기 후반부터 큰 망원경이 건설되면서 인간의 세계관은 태양계의 세계를 벗어나 먼 별의 세계로 확장됐다. 수많은 별들의 거리를 관측함으로써 2차원적 항성의 세계관이 3차원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졌다. 아인시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인간의 경험세계는 100억 광년을 넘어서는 넓은 4차원의 세계로 확장되면서 중성자별, 블랙홀, 퀘이자 같은 새로운 천체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지상관측의 한계를 벗어나는 인공위성을 통한 현지탐사는 정밀한 다량의 정보수집에 관한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결국 인간의 경험 세계가 17세기까지는 좁은 태양계의 세계에 국한됐고, 18세기부터는 별의 세계로, 그리고 19세기에는 더 넓은 은하의 세계로 확장됐다. 그러다가 측정기의 개발과 정밀성의 향상으로 20세기 들어 다양한 천체와 더 먼 과거의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오늘날의 4차원적 우주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우주관이나 프톨레미의 지구 중심적 우주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인식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마치 시골에서 살며 보고 놀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전혀 다른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인생관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우주관도 이와 같은 이치로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다.

그렇다면 불법이 자연의 섭리를 나타내든 또는 인간 위주의 도덕적, 종교적 내용을 나타내든 그 내용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시간과 공간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가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은 경전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방법 때문이 아닐까? 즉 현대인의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을 무시하고 과거 2000년 전의 옛 것을 고집하며 이러한 틀에 따라 해석하고 수행토록 한다면 이것은 경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과 같을 것이며, 어떤 분야의 구체적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현대적 술어를 마구 쓰며 거리낌 없이 경전을 재해석하는 것도 매우 그릇된 처사일 것이다. 새로운 세계관과 우주관의 습득은 새로운 세계와 우주라는 곳에 빠져 물을 실컷 먹어보고 난 후에야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언구나 소문에 의존해서 간단히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바가바드기타는 불교와 많은 유사점을 가졌으며 거기에 우주관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당신은 맨 처음이요, 한 옛적의 으뜸되는 신이시며 이 온 우주의 궁극의 쉴 곳입니다. 당신은 아시는 이요, 또 알려질 것이며 그 모든 것의 돌아갈 곳입니다. 끝이 없는 형상을 가지신 이여, 당신으로 이 우주는 꿰뚫려 있습니다. …만유 밖에 계시면서 또 그 안에 계시고, 부동이면서 또 동이시다.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멀리 서시면서도 그는 가까이 계시다." 기원 전 3세기 전에 나온 이 글은 시대에 따라 그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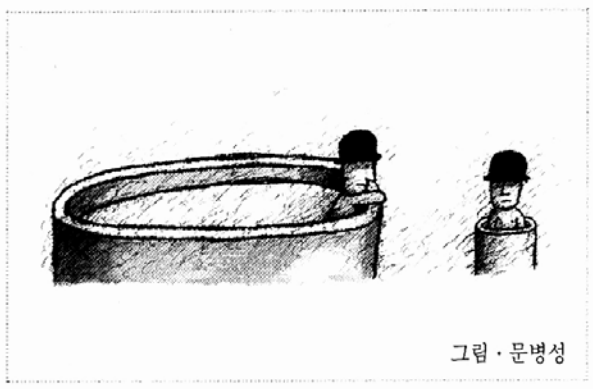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이렇게 들었다

잇단 총기강도 사건

富 정당한 노력으로 쌓아야

최근 은행 강도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살인강도 사건에 이어 4개월 동안 전국에서 4건의 총기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연쇄적이라 말해도 될 정도다. 8일 충남 서산 농협 현금수송차 탈취범들은 7억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한 순간에 거머쥐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나흘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재물은 생활을 영위하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하며, 분에 넘치는 재물을 탐하는 것은 수행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또 부(富)는 정당한 노력으로 얻어야 하며 그 부를 널리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스스로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르는 범죄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에 빠지게 한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나무가 필요할 때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만 그것들을 구하라. 부디 스스로 금 · 은 따위의 보물들을 받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니주계경>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 모으기에만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 두지만,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 때, 재물을 그 몸을 따라가 주지 않는다. <화엄경>

▧욕심 많은 사람에게 세상의 빈궁은 큰 고통이다. 다른 이에게 재물을 빌리고 재물을 빌린 뒤에는 남의 구박을 받으니 고뇌가 된다. 빚쟁이는 찾아와 독촉을 하고 그 때문에 끝내는 결박되나니 그 결박 무겁고 괴롭다.

<중아함경>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③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

본성 확고하면 어떤 경계서도 여여

임제가 이래 선방에서 앉아 졸고 있는데 황벽이 내려와 보고는 주장자로 선판(禪板)을 한 번 쳤다. 임제가 머리를 들어 황벽을 보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황벽은 또 선판을 한 번 치고는 윗 선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수좌가 좌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아랫 칸의 후생(後生)은 도리어 좌선을 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망상을 피우고 있어서 어쩌겠느냐?" 수좌가 말했다. "이 노인네가 뭐하나?" 황벽은 선판을 한 번 두드리고는 곧 나갔다.

선(禪)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떻게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선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식적 조작일 뿐이고 선이 아니다. 왜냐 하면,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합과 하지 않음이라는 두 경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계를 나누어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의식일 뿐 선은 아니다. 이러한 분별하는 의식은 허망하게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부른다.

선은 확고부동하고 불변하는 자리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경계가 닥치더라도 흔들리거나 휘말리지 않고 늘 여여부동할 수 있는 것이 선이다. 확고부동하고 불변한 자리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리에 머문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어떠한 의식적 경계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일러 '허공에 머문다' 고도 하고,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고도 말한다.

어떤 경계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가오는 경계의 본성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성자리에 머물게 되면 안팎의 모든 경계가 본성 아닌 것이 없어서 흔들림이 없게 된다. 겉보기에 아무리 다양하고 새로운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모조리 본성 아님이 없으니 경계에 딸려가서 미혹에 빠지는 일은 없다. 본성 자리에 있으면 경계의 다양한 모양은 사라져 버리고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본성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하나의 본성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본성은 본래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므로 얻거나 잃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모든 경계는 본성에 의하여 본성 위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본성은 다양한 경계의 모양에 오염되지 않고 늘 깨끗하다. 그러므로 이 본성만 확인하면 온갖 다양한 경계 속에서도 늘 여여하고 담담할 수가 있다.

본성이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왜 우리는 늘 여여하고 담담하지 못하고 매순간 다가오는 경계에 따라 바람에 흔들리는 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가? 그것은 스스로의 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왜 확고한 믿음이 없는가? 본성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본성을 확인하지 못하는가? 분별심으로 망상을 내어 여러 가지로 조작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생각만 쉬면 본성은 늘 변함 없이 맑아서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본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적부터 익혀온 습관에 따라 늘 경계 위에서 경계의 모양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달리 확인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본성이라는 모양을 확인하려고, 이른바 수행한다고 하는 여러 조작된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눈을 감고 있든 뜨고 있든,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본성은 하등의 차이도 없다. 수행이라는 이름의 조작된 행위는 오히려 이러한 변함없는 본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위험이 있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약사불 Bhaisagya Buddha(Medicine Buddha) 약사전 Hall of Medicine Buddha 미륵전 Hall of Maitreya Buddha 나한전 Disciples' hall

The hall of medicine buddha enshrines Bhaisagya Buddha who is the Universal Healer. He provides relief not only from disease and misfortune, but also from ignorance, which is the greatest ill to Buddhists. Bhaisagya Bodhisattva hold attribute objects. The alms bowl and the medicine bowl.

약사전에 모셔진 약사불은 만물의 치료자다. 그는 질병과 불행뿐 아니라 불자에게 있어 가장 큰 불행인 무지로부터 인류를 구원한다는 원을 가지고 있다. 약사불은 특징적인 지물인 보시함과 악함을 들고 있다.

The Disciples' hall is called the nahan-jon. There statues representing specific enlightened disciples of the Buddha are to be found. The statues are usually made of wood and number between sixteen and 500 serious-looking men. Each statue represents a disciple of the Buddha who attained enlightenment and each one has an individual story.

나한전에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제자들이 모셔져 있다. 각각의 조상들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보통 다양한 모습을 한 16나한이나 500나한을 모시게 된다. 각 나한들은 저마다의 각기 다른 설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제자를 나타낸다.

기도·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신간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Ⅰ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Ⅱ 아미타불의 본원
Ⅲ 염불의 공덕 Ⅳ 칭명염불 수행법
Ⅴ 관상염불 수행법 Ⅵ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지장신앙·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 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기 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목어 냉이맛이 말한다



생명현상에 신비롭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랴마는 이른 봄 차가운 눈 속에서 파란 싹을 내미는 머위 등, 봄나물들의 생명력 또한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식물에게도 주변온도에 따라 발열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온이 있다 한다. 식물은 그 체온으로 모진 겨울 추위를 견뎌내기도 하고, 이른 봄철에 열을 좀더 냄으로써 주변의 눈이나 얼음을 녹이기도 한다. 최고 섭씨 40도까지 열을 내는 식물도 있으며 연꽃의 경우 주변 온도 섭씨 10도 정도면 32도 안팎의 열을 낸다 한다.

겨울추위를 견딘 들풀들이 좀 더 열을 내며 눈을 녹이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쯤일까. 그들은 햇볕의 따사로움에서 그 신호를 받을 것이다. 생명력에 보내는 햇볕의 따사로움. 식물들은 그 따사로움에 생명의 발열로 화답하는 것이리라.

븜나물의 대표격인 냉이는 겨울에 강한 식물로 열도 많다. 따라서 더운 여름엔 잎이 말라 흔적을 찾기 어렵다. 초여름에 낙엽 지는 풀이라 할까. 가을에 생겨난 잎은 겨울로 접어들면서 검은 보라색으로 변해 땅에 납작 달라붙는다. 이 겨울 잎이 겨우내 뿌리를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겨울 잎이 뿌리를 길러내고 이른 봄이 되면 그 뿌리가 새순을 밀어 낸다. 새순이 나면 겨울 잎은 시들어 버리는데, 바로 그 겨울 잎이 길러낸 뿌리와 새순이 싱그러운 향과 함께 그윽한 맛을 낸다. 바로 모진 겨울이 길러낸 맛과 향이다.

그래서 냉이의 맛과 향은 지난 겨울의 추위와 비례하는 것인지 모른다.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지방인 이 땅에서 봄철 냉이 맛은 어쩌면 환경 건강의 수치를 잴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고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앞으로 우리들에게서 냉이의 깊은 맛을 뺏아갈지도 모른다.

을해, 유난히 빨리 오는 봄을 맞으며 '냉이의 맛'을 생각해 본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인간과 자연 지혜로운 조화 필요"



이 만
동국대 교수
불교학과

불자 세상보기

미국에 있을 적에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옐로우스톤을 간 일이 있다. 지금까지 그 곳이 인상에 남아 있는 것은 공원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이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 몇 년 전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의문스러운 것은 보기에 흉한 불 탄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안내원에게 물었더니, "공원의 미관을 위하여 나무를 새로 심거나 좋게 단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며, 인위적인 조성이기 때문에 내방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자연 모습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설명이었다.

일년이면 두 서너 번은 가는 우리 애들의 외갓집이 시골에 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마다 마을보다는 항상 높은 뒷산이 나의 시선에 먼저 들어오곤 했다. 흰 이빨을 드러낸 것 같은 암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볼 적마다 흉해서 조용한 농촌의 전경을 상상하고 찾아간 나의 마음 속에 아쉬움을 느끼게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석산으로 개발했다가 복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윌리엄 머서사가 세계 2백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질' 종합평가에서 서울이 94위를 차지했다. 환경을 감안하면 이보다 63계단이나 떨어진 157위였다. 심각한 문제는 스위스 취리히 등 상위에 오른 도시들이 모두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윤리란 공동체 사회에서 한 규범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와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인간만을 위한 자연훼손
쾌적한 삶위해 재고를

의 관계를 조화롭게 맺어주는 규정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윤리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위와 같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 자연의 일부를 파괴해도 좋다든지, 아니면 다소 불편과 불이익이 주어지더라도 '만물동근설(萬物同根說)' 적 입장에서 서로를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불교적인 관점을 보면, 이 현상계를 이루는 모든 것은 동체이다. '일체중생 실유불성' 적인 견지에서 해탈 이외에는 어떠한 생물과 무생물을 막론하고 그 가치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집착' 적인 가치 기준이 요청되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상대를 인위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범망경〉에서 "산림, 광야, 남의 집, 도성, 국유물 및 그 밖에 주인이 있는 물건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불태우지 말라"고 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북한산 국립공원과 불암산 등을 관통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것은 인간만을 위한 자연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이 무한하게 인간의 욕망에 적응해 줄 수만은 없다는 사실과 한번 손상, 파괴된 자연은 그것을 다시 복구하거나 재생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자본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또 구둣발 법당침입 '경악'

10일 오후, 조계종 포교사단이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 중이던 조계사 대웅전에 난입한 종로경찰의 행동에 경악한다. 이는 현 정권이 정치적인 잣대로 불교계를 무시한 처사다.

사찰의 대웅전은 부처님의 집이요, 불자의 자존심이며 수행처다. 법당은 예절을 무시한 채 함부로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아니다. 공권력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시설 보호 해산을 요청했다고 법당까지 군화로 유린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통탄스럽다. 군화발이 웬 말인가. 내 얼굴과 몸 그리고 마음이 짓밟힌 것 같다.

이러한 통탄에 앞서 불교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불자의 한사람으로 참회해 본다. 각성하고 참회하고 포용하자. 불자의 의식이 깨어있고 힘이 있다면 대웅전은 유린되지 않았을 것이다. 진정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되새겨 힘을 모아 단호히 정법을 수호하고 불자답게 주인의식으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역사는 말할 것이다. 종교의 성지와 수행자는 신성시보다는 존경받고 지켜야할 유산인 것이다. 한쪽은 이익과 편의주의로 부수려 하고, 한쪽은 지키고 아끼려 하니 아름다운 유산과 전통은 어느 곳에 설 것인가. 모든 불자여! 힘을 모아 이겨내자.

권오국(조계사 청년회 연수원 교무)

송광사 주변 골프장건설 '웬말'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에는 토성칠교란 문화유산이 있다.

길이 1800m의 산과 산, 계곡과 계곡을 메워 일곱 곳에 축조한 토성칠교에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전설이 전한다. 보조국사가 도포자락으로 흙을 뿌려 다리를 만든 성이라 이 다리를 건너면 극락왕생한다는 말이 전해진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도 칡덩굴이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유서깊은 토성칠교 일대에 90년부터 골프장 건설이 추진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현재 30% 정도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귀중한 산림을 파헤치고 문화유적까지 훼손하면서 골프장 건설에 혈안이 돼 우리가 가꾸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적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송광사와 3km 거리의 이 곳은 주암면과 송광사의 신작로가 나기 전의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적지에 환경 파괴의 주범인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교계에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훼손을 막아주었으면 한다.

조성익(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사형폐지운동에 앞서 업 짓지 않도록 교육강화

3월6일자 현대불교 9면 목어난 '사형제도의 찬반 논란'을 읽고 의견을 적는다.

품 속에 날아든 비둘기처럼 사형수(살인자)에 의해 죽음을 당하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 순간에 내가 대신 죽겠다고 살인자에게 몸을 내 맡길 수 있겠는가. 다른 사회단체는 몰라도 종교인 단체(스님 · 목사 · 신부 등)에서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펼치면서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고통과 절규, 가족의 아픔을 생각해 보았는가"고 말한다.

국민의 정신적 지주인 종교인이라면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서기 이전에 절 · 교회 · 성당 등에 오는 신도들을 가르쳐야 한다. 사형제도에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면 사형제도란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사형제도에 해당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생각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는 것이 우습다.

사상범, 정치 회생자 등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야지 폐지운동에 앞장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인 특히 불자는 업 중의 가장 큰 업을 짓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성호영(경남 마산시 구암2동)

첫 참선 · 108배 · 새벽예불
"불교에 눈떴어요"

옥정수 사회복지사 수련회 참가기



지난 9일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대구경북사회복지기관 시설연합회' 불교수련회에 참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했다.

자활후견사업은 프로그램 진행자의 인내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래 지켜봐 주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북돋아 줘야 한다. 처음으로 해본 참선, 108배, 새벽 예불 등의 사찰체험은 불교사회복지사로서 자질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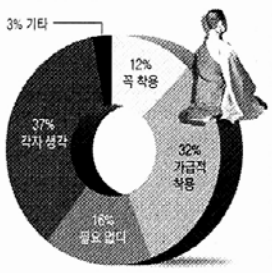
2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친구의 권유로 불교사회복지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신행생활이나 수행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사찰에 가면 주위만 둘러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번 1박2일 동안의 산사체험은 불교에 대한 눈을 뜨게 해 주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상주자활후견기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직업자활을 돕고 있는 나는 자활훈련을 받는 분들 대부분이 자포자기 생활로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을 방치해 놓다보니, 자활의지를 키우려 해도, 그동안 가졌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또다시 낙담하는 것을 보고 항상 안타까웠다. 이번 불교수련회에서 배운 참선, 절하기 등 마음 가다듬는 법을 복지현장에 적용시켜 보려 한다.

사실 몸담고 있는 곳이 처음에 불교계 사회복지단체인줄 몰랐다. 또 불교가 뭔지도 모르다보니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까지 고민을 했었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불교공부를 시작해 마음이 따뜻한 불교사회복지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불교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수련회에 꼭 참석하길 권해 본다.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자의 생각

법복착용



붓다뉴스 설문에 동참한 108명의 응답자 가운데 12%인 14명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32%인 35명은 가급적 착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복 착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가운데 54%(27명)는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이유로 꼽았다. 32%(16명)는 삼보에 대한 예의이므로 법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37%에 해당하는 41명이 각자의 생각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고 16%인 18명은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했다. 형식일 뿐이기 때문(60%, 23명)이라는 이유가 지배적이었다.

긍정적 54%, "경건해진다"

임연태 기자



법당을 정성껏 지어드립니다.

콘크리트 성형기법의 특징
○ 공사기간 단축
○ 현장시공 간편
○ 목조에 비해 공사비 저렴
○ 목조에 비해 마감이 정밀하고 부드러움
○ 화재 걱정이 없고 수명이 반영구적임

사업안내
○ 콘크리트 법당 설계 및 시공
○ 요사채 및 제실 설계 및 시공
○ 문화재 보수 및 복원
○ 전통한옥 설계 및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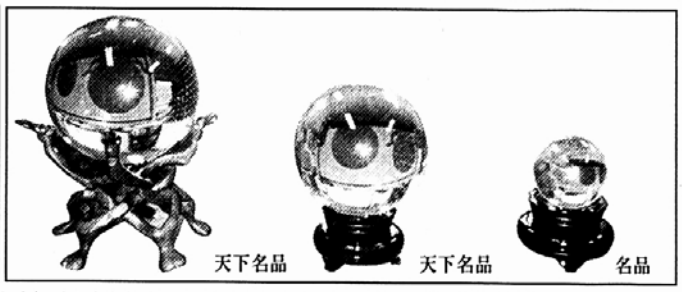
○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필요하시면 지명원 및 설계도,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 불사를 원하시는 스님께 방문하여 상담 및 자문하여 드립니다.

근영불교건축
031)827-5787 (代)
017)211-4029 (상담전화)

天下名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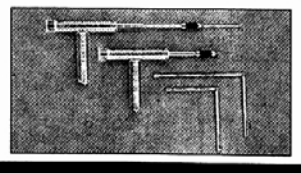
수정은 예언, 집중력 향상, 건강증진 명상수련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天下名品을 소량 한정판매 합니다)

수정구 사용법
● 명상수련
● 예언, 예측수련
● 氣, 건강수련
● 소원성취
● 만사형통
● 복부풀기 건강법
● 영기풀기 건강법
● 차크라 치유 수련



◆ 天下名品(19cm)
· 판매가 : 200만원
· 특별판매가 : 45만원
(유 받침대 : 5만원 별도)
◆ 名 品(10cm)
· 판매가 : 33만원
· 특별판매가 : 25만원

50억년 전에 생성된 수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氣에너지를 많이 받는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기수련, 건강증진, 소원성취, 명상, 예언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 일찍부터 점성가들은 수정구로 예언 예측에 사용해 왔습니다.
※ 천하명품은 중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명품이며 귀한 분들에게만 선물하였습니다.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시 강택민 주석께서 김대통령께 선물 하셨습니다. (KBS-TV)
▶ 수맥, 명당찾기 전자로드
수맥, 온천, 지하수, 명당, 금광 및 지하자원 찾기



전자로드(1Set) : 350,000원
전자로드(1개) : 180,000원
L-로드 : 20,000원
수정추 : 45,000원
펜드럼 : 10,000원
손동L-로드 : 40,000원

자연의 힘! 몸속의 노폐물을 뽑아내자!
몸에 독소가 쌓이면 만병의 근원



발바닥에 붙이는 수액시트로 봉안에 독소를 뽑아내자!
몸안에 독소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 술, 담배, 과로, 스트레스 악물복용 등 일상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목초수액 시트로 배출시켜 우리 몸을 상쾌하게 합니다. * 자연목초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이런분들은 더욱 좋습니다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굳어진 근육, 어깨부분, 허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 최고의 효도선물 ※
● 우체국 : 014092-06-011003 김건순

주요 납품처
광시한의원, 대웅한의원, 현대의원, 경의한방병원 원목실, 그랜드약국

02)455-6944, 02)453-5851 [韓國氣研究院]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카다로그를 보내드립니다.

불교여성지도자 7명 · 대만 불광산사

'훌륭한 여성 불자'로 뽑혀


◇증엄 스님


◇듭텐 쵸드론 스님


◇묘법

증엄 대만 불교구호단체 자제기금회 창설

묘법 한국에서 수계 … 위빠사나 명상강의 주도

불광산사 종파 불문, 깨달음 추구 여성 문호 개방

UN이 지정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7명의 불교여성지도자와 대만의 한 사찰이 '훌륭한 여성 불자'상을 수상했다고 태국 '방콕 포스트'(The Bangkok Post)가 6일 보도했다. 이 상은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와 세계불교대학, 마하추알롱콘 불교대학이 함께 선정하고 시상했다. 수상자와 그들의 공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증엄(Cheng Yen) 스님= 세계적인 불교구호단체인 대만 자제기금회의 창설자로 1991년 막사이사이 상을 수상했다. 자제기금회는 1966년부터 해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쿤닝 카니사(Khunying Kanitha Wichiencharoen) 스님= 20년 동안 폭력에 노출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해왔다. 여성지위향상연합의 공동 창립자로서 최근 방콕에 태국 최초의 비구니 불교대학 설립에 착수했다.

▲쿤 매 시리 크린차이(Khun Mae Siri Krincha)= 태국의 명상 지도가로, 태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명상강의와 설법을 했다. 위빠사나 명상의 지도적인 센터가 된 태국청년불교연합의 선임교사이다.

▲고타미(Gotami) 스님= 불교가 서구 심리치료와 결합해서 사회적인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 인도에서 비구니계를 받고 하버드 의대 정신과에서 근무하며 약물 재활치료, 가족 문제, 도박 중독증에서부터, 강간, 아동확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카운셀링을 하고 있다.

▲궁생(Guong Saeng) 스님= 유명한 사회사업가로서, 태국 사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뿐 아니라 학교 병원 등에 기부했다. 중국에서 비구니계를 받았으며, 제자들이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과 홍콩에 동행했다.

▲헬렌 잔다밋(Helen Jandamit, 한국법명 묘법)= 영국에서 태어나 한국 불교 계통에서 계를 받았다. 1974년 이후 위빠사나 명상 강좌를 주도하고 있고,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태국에 있는 국제 불교명상센터의 공동 창립자이다.

▲듭텐 쵸드론(Thubten Chodron) 스님= 현재 싱가포르의 아미타불 센터와 미국 시애틀의 법우회의 상임 법사로 있으며, 불교와 유대교간의 종교간 대화를 시작했다. 저서 〈열린 마음, 깨끗한 마음〉, 〈입문자를 위한 분노 다루기와 불교〉는 잘 알려져 있다.

▲불광산사(국제연대 부문)= 대만에 있는 이 절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종파에 개의치 않고 신도로 받아들인다. 전세계에서 온 여성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수계를 받아 비구니가 된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5. 삼불능(三不能)이란

오랜 세월 "부처님은 과연 누구였는가"라는 화두를 참구한 수많은 불교도들은, 부처님은 수많은 생애 동안 윤회를 거듭하면서 불과(佛果)를 이루기 위해 보살도를 닦아왔다고 한다. 부처님은 지혜의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의 중심인 것이다. 때문에 불자들은 열 가지 명호로써 부처님의 거룩함을 함축하여 담아내고 있다. 즉 부처님은 '여래(如來:진여에서 오신 분), 응공(應供:마땅히 공양받으실 분), 정변지(正遍智:바르고 보편적인 지혜를 증득하신 분), 명행족(明行足: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 선서(善逝:생사의 굴레에서 잘 떠나신 분), 세간해(世間解:세간을 모두 아시는 분), 무상사(無上師:위없는 스승), 조어장부(調御丈夫:세간을 잘 이끄시는 장부), 천인사(天人師:신과 인간들의 교사), 세존(世尊:세간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열가지 호칭을 갖고 있다.

여래십호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님은 지혜의 완성자이며 자비의 화신으로 중생을 깨우치고 복을 나누어주는 초인적인 존재로서 불가능한 일이 없는 삼계의 도사(導師)이며 사생(四生)의 자부(慈父)로 표현된다. 그러나 불교의 오랜 전통과 사상을 확인시켜주는 옛 경론과 선어록에서는 부처님에게도 세 가지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한다.

부처님 가르침 받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먼저 〈대승기신론〉, 〈대지도론〉64, 〈호법론〉, 〈전등록〉권4 등에서 설해지는 부처님의 세 가지 불능에 대해서 살펴보자. 부처님의 첫번째 불능은 '불능면정업중생(不能免定業衆生)'으로 정업을 고칠 수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정업이 다하지 않았거나 정업을 고치지 않는 중생은 부처님께서 비록 무상의 지혜를 구족하고 계시지만 선악의 결과를 불러오는 정업(定業)은 고쳐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두번째 불능은 '불능도무연중생(不能度無緣衆生)'으로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숙업과 근기를 알고 계시지만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것.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세번째 불능은 '불능진중생계(不能盡衆生界).' 모든 중생계를 다 제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부처님께서는 비록 일체중생을 다 제도하시고자 하지만 모든 중생계가 다 하도록 제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삼불능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숙업을 정화하지 않는 중생, 선(善)을 추구하는 의지가 없는 중생은 교화하여 인도할 인연이 없으므로 부처님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불능은 부처님 자신의 불가능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는 사람들의 불가능이다. 부처님의 삼불능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에피소드는 〈법화경〉 방편품에도 실려 있다. 내용인즉, 〈법화경〉을 설하려는 부처님께 증상만(增上慢)으로 가득 찬 5천명의 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퇴석하려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말리시지 않는다. 이를 경전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회중의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5천명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 계신 곳에서 퇴장하였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우며 증상만으로서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하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묵연히 말리시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계속해서 경전은 일불승(一佛乘)의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 지엽(枝葉)들은 다 털어버리고 정실(貞實)만을 남겨두었다고 적고 있다. 부처님께서 성도 직후 "욕망에 탐착하는 세간의 습관과는 역행되는 해탈의 가르침을 어떻게 설할 수 있겠는가"는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부처님의 삼불능이 의미하는 바는 '세간의 습관'과 역행되는 해탈의 가르침을 설한 부처님만의 고뇌이자 시련이었던 것이다.

끝으로 〈전등록〉권4에 수록된 숭악 원규 선사의 설법에서는 부처님의 삼불능은 응신(應身)의 부처님이 겪는 문제일 뿐 법신(法身)의 분상에서는 "결정된 숙업이란 항구적인 것이 아니며, 인연이 없다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며, 중생에게는 본래 증감이 없기 때문에" 삼불능은 본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삼불능은 불교가 갖는 본래적인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반성적 명제이다.

경학회 회주

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만화영화로

印·美 합작사 설립, 유럽시장 등 진출 겨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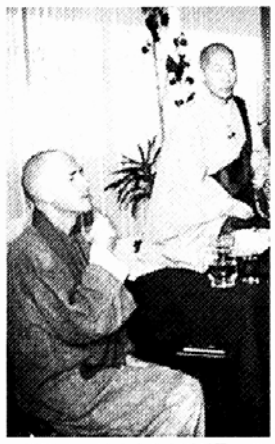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경(자따까; Jataka)〉이 인도에서 만화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다.

인도의 만화영화 제작업체인 빠드말라야 스튜디오(Padmalaya Studio)는 지난 2월 미국의 정글북 필름 클럽(Film Club of Jungle Book)과 영화 제작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본생경〉에 들어있는 500여개의 일화들 중 200개의 이야기들을 단편 만화로 꾸밀 예정인데, 편당 예상 제작비는 미화 약 15만 달러(우리 돈으로 약 1억 9000만원)로 앞으로 4년간 제작된다. 빠드말라야는 만화 본생경의 초반부 몇 편을 이미 시험적으로 제작하여 합작선을 물색하기 위해 작년 5월 칸느 영화제에서 상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작되는 만화 본생경은 미국과 유럽의 만화영화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서구인들의 취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캐릭터 디자인, 로고 디자인, 더빙 등은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도 뿌네= 이지은 통신원


◇멕시코 선련사에서 법회를 보고 있는 삼우스님(오른쪽)과 도안스님.

멕시코 첫 한국사찰 발원

자혜불교회, 추위구성 … 미국인 등 15명 교육중

지난 1967년 8월부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서 4곳의 선련사를 창건, 현지인 포교에 앞장서 온 자혜불교회(회주 삼우스님)가 멕시코 최초의 한국 사찰 건립을 발원하는 등 본격적인 멕시코 포교에 나선다.

지난 83년부터 멕시코인 도안스님을 중심으로 멕시코 선련사 포교당을 마련, 멕시코 개척불교운동을 펼쳐온 자혜불교회 회주 삼우스님은 지난 1월1일 처음으로 한인불교법회를 열고 이날 법회에서 멕시코시에 한인불자들을 위한 사찰건립을 만장일치로 결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삼우스님은 정갑환 이사장, 김재현 고문(전 한인회장), 강덕수 간사 등 임원진을 구성해 멕시코 포교의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초 3년만에 귀국한 삼우스님은 "현재 미국인 1명을 포함한 15명의 멕시코인들이 법사 및 승려 양성기관인 3년제 미륵상가대학을 이수하고 있다"며 "이들이 승가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멕시코 포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혜불교회는 현지인 대상의 포교사 양성기관인 미륵상가대학에서 정진할 해외 포교장학생을 모집한다. 18~40 세 미만의 영어 기초실력이 있고 불교공부와 수행을 통해 미주 개척불교에 헌신할 수 있는 장학생 15명을 3년제 미륵상가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교육시킨다. 미륵상가대학 졸업후에는 현지 포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문의=018-513-9403, 시카고 선련사=(773)528-8685

명상땐 집중력 활성화…방향 감각 활동은 둔화

뉴버그 美교수 연구

스님들이 명상(瞑想, meditation)에 깊이 잠길 때면 뇌의 집중력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성화되는 반면, 방향감각과 관련된 부위의 활동은 멈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방사선의학자인 앤드루 뉴버그(Andrew Newberg) 교수 팀이 티베트 스님들이 명상할 때 뇌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평소 활동적이었던 뇌 부위가 명상시에는 움직임이 없어지는 대신 평소 조용했던 부위는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BBC 방송이 2일 전했다.

뉴버그 교수는 "명상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흔히 자아에 대한 인식을 잃거나 공간 및 시간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다.

해외 불서



• 불성의 자각(Awakening the Buddha Within):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티베트 스님인 저자 라마 스리야 다스(Lama Surya Das)가 현대 서구불교의 수행자를 위해 8정도와 계정혜 3학을 중심으로 불교 수행법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성스러운 지혜, 명상수련, 이타행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와 생업, 가정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언급했다. 미국 Bantam Doubleday Dell 출판사 펴냄.



• 일본 불교문화의 실상: 불력(佛力)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종교인류학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제1장 종교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본 부처님과 법력, 제2장 교리불교와 생활불교(장례의식과 생활불교의 제문제), 제3장 불교와 민속종교의 사이(일본인의 신앙, 영혼과 힘, 종교의 원초적 형태, 불교교단과 장례의식, 불교와 치유) 등을 다루고 있다. 사사끼 코우간(佐佐木 宏幹) 지음, 일본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펴냄.

- 사람의 길흉을 아는데는 육임을 따를 학문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임은 군더더기가 없는 산뜻하고 정확하며 기민 한 복법 (卜法) 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이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하나면 내 활인 직분(活人職分)은 이제부터 걱정이 없다,,

◉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출생년월시를 묻고, 만세력을 펼치고, 간지 (干支)를 세우고, 대운을 묻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직분상 품위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딱 맞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행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사람이 찾아오거나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비록 오행공부를 못했더라도,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이 시간구분만 할수있으면 그 시간만 봐서 무엇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비밀한 사정을 안고 있는지를 **먼저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법력(法力)이지 육임이 아닙니다.

◉ 내가 자리를 비우고 출타를 합니다.
내가 없을때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와 똑같이 매일 매시간별로 온 이유, 겪는 입장, 비밀한 사정, 일의결과, 귀신침해, 산소탈여부 등을 **방문앞에 적어 놓을수 있고, 그것이 적중된다면** 그것 역시 육임이 아닌 나의 법력(法力)일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책을 보십시오!
내 활인천역의 차원 (次元) 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미 지난 2년동안 검증을 거친 책입니다. 값이 비싼 것 같지만 **활용 가치는 훨씬 비쌉니다.** 매일 한 장씩 꺼내서 시간별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동시에 오더라도 각각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책 값 : 좌정용, 1,300,000 (일백삼십만원) 휴대용, 1,500,000 (일백오십만원) 각 전 13권 (부록 , 비디오 포함)
주문전화 : 본 사 02 - 993 - 8680 담당 김 문 지
주문전화 : 부산지사 051 - 851 - 2349 담당 정 헌 철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 - 041583 - 13 - 101 김 영 란 도서출판 복문
출판등록 : 제 9 - 00076 호 사업자번호 : 210 - 90 - 78770
국립중앙도서관 부여 도서번호 (ISBN NO) 89 - 951716 set

■ 비디오수강신청 :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효사숙에서 매주 열리는 3개월 코스 육임강좌 내용 전부 를 생생하게 녹화하여 육임 기초, 기본에서부터 육임제비법까지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강 중 제 4강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값은 60 만원입니다. 위 구좌로 입금하시고 주소를 통보해 주십시오.
매 강의일로부터 3일후 도착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강좌는 매 금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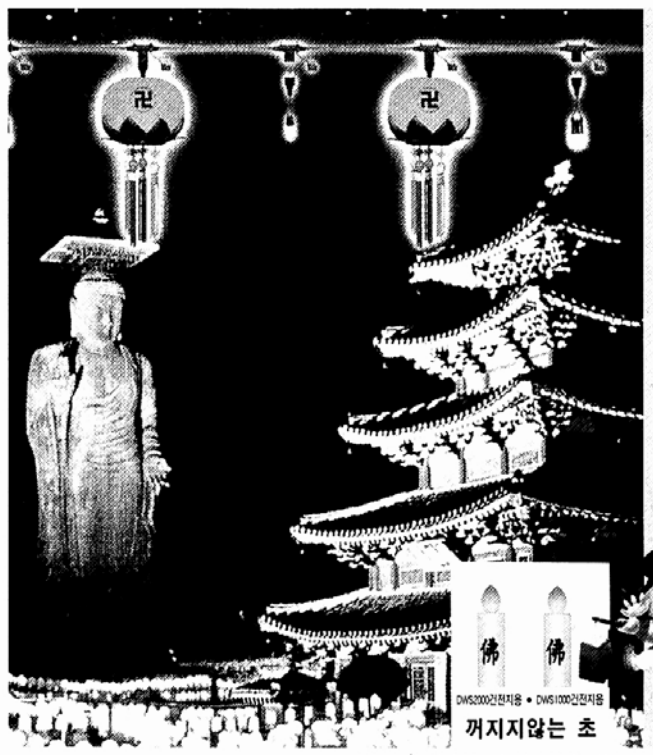
■ 출간도서안내 육임래정비법 개정증보판 값 350,000원. 육임세밀정단법 값 100,000원. 육임형이상비법 값 150,000원 . 육임 운명판단법 값 130,000원. 육임신수비결 값 250.000원

각종 카드로 장기분할 구입이 됩니다. 주문하신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도착시켜 드리겠습니다.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소 • 형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밝아 월등이 밝고 잘깬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2)2266-2634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3-2638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各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代拂, 小佛
佛壇, 탱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56



◇따로 법회를 갖거나 합창단을 꾸려 음성공양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치마 불교'라 불리는 불교계에 변화의 물꼬를 트고 있다. 사진은 수원 포교당 사자후 아버지 합창단이 연습하는 모습.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시부터 열리는 서울 광림사 아버지 법회는 부인들과 자녀들도 동참해 불교공부에 매진한다.

"신행활동 이젠 아버지들이 앞장서야 할때"



광림사 아버지 법회 김영일 회장

"처음에는 오고 싶어도 법회에 못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평일 낮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았지요. 그래도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들이 앞장을 서 보자는 취지에서 모임이 출발했습니다."

광림사 아버지 법회 김영일 회장은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절에서 남자들이 신행에 앞장섰다고 들었다"며 "아버지 법회를 키워 아버지들이 식구들을 법회로 이끌

불법 공부하며 '좋은 아버지' 다짐

수 있는, 가족 법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0여 년 전부터 장애인 차량 지원 봉사를 해 왔지만 아버지 법회를 계기로 일어난 변화도 크다. "아버지 법회에서 법문 듣고 불교공부하면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아버지가 되어 보자고 서로 다짐하고 있습니다"는 김 씨는 "무엇보다 법회에서 다른 아버지들과 자녀 교육, 직장 스트레스 등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헤쳐갈 수 있는 마음을 나누게 되어 법회시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고 강조했다.



◇수원포교당 사자후 아버지합창단이 1월 19일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 3층 만불보전에서 열린 성도절 맞이 '제2회 불자들의 작은 음악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최근 '보살 불교' '치마 불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사회를 결성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경쟁만을 부추기는 사회에서는 '명예 퇴직'이다, '감원'이다 위기의식만 쌓여가고, 가정에서조차 권위가 흔들리면서 아버지들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기만 했었다.

이러한 때 아버지들이 중심이 돼 '아버지 법회'와 '아버지 합창단'을 꾸려 부처님법을 배우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찾자는 모임이 속속 결성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모임은 서울 광림사(02-2202-5831) '아버지 법회'와 수원포교당(031-255-2692) 아버지 합창단 '사자후'.

신도회·법회·음성공양 적극 참여
한마음선원 등 남성합창단 맹활약

지난 12일 오후 8시 서울 송파구 석촌동 공동빌딩 6층 광림사(주지 해성) 법당. 매월 둘째 화요일, 아버지 법회가 있는 날이다.

아직은 불교계에서 약간 낯선 아버지 법회는 지난 해 12월 시작됐다. 1993년 결성된, 개인 택시를 모는 불자들의 장애인 지원 봉사단체 법륜회(회장 윤승봉) 회원 10여 명이 "봉사 활동뿐 아니라 불교 공부도 제대로 해 보자"고 뜻을 모았다.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자식들 키우는 고민을 아버지들이 함께 나누자는 의견도 보태졌다.

"사찰법회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전부 여자들이라 쑥스러워 못 가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 때문에 시간 내기도 쉽지 않았다." 아버지 법회 김영일 회장의 말이다.

그러나 아버지 법회는 석달이 못돼 가족이 모이는 가족 법회로 확대되고 있다. 첫 두 달은 아버지들만이 참석했지만 지난달부터는 부인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해 같이 공부를 하는 부부 불자들이 월등히 많아진 것이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온 아버지도 눈에 띈다. 윤승봉 법륜회장은 "부부가 함께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도 듣고 불교 공부도 하다 보니 가정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아버지 법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지도 법사 송위지(한국외국어대) 교수다. 송 교수는 불교 기초 교리 강의뿐 아니라 자녀들 교육이나 가정 문제 등의 상담도 해주고 있다. 김영일 회장은 "내 자식이니까 하는 욕심이 앞섰는데, 아이들을 훨씬 더 이해하게 됐다. 부처님 말씀을 잣대로 하니 사소한 갈등도 원만하게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상담료는 따로 없다. 보시함에 각자 알아서 넣으면 된다. 장애인 후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아버지 법회는 아직은 시작 단계. 조계종 중앙신도회에 따르면, 전체 사찰중 30~40%에 신도회가 결성돼 있고, 거사회가 결성돼 있는 사찰은 지역적으로 손꼽을 정도다.

"지금까지 보살들이 한국 불교를 위해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라는 아버지들의 단단한 발원은 법회 참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어머니들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돼 온 음성 공양에서도 아버지들의 열의는 뜨겁다. 서울 조계사, 봉공사, 강남포교원, 능인선원 등을 중심으로 혼성 합창단이 활동 중이고, 수원 포교당,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 등은 아예 남성 합창단을 꾸렸다.

"왜 노래만 하면 입이 부자연스러워지나요? 그러니까 억지 소리가 나잖아요."

"거사님들 목소리 큰지 다 아니까, 절대 크게 내려고만 하지 마세요."

13일 저녁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용주사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불교문화원 2층 관음전. 수원포교당 사자후 남성합창단(회장 김용가) 단원들이 지휘자로부터 발성이 안 된다고 연신 야단을 맞고 있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줄이야 알았지, 복식호흡이니 이런 걸 해 봤어야죠. 그래도 노래를 부르고 나면 환희심이 생깁니다."

권중서(경기남부지역 포교사 연합회 사무국장) 씨의 말처럼 지난 해 6월 결성된 아버지 합창단 '사자후'는 순수 아마추어들의 모임이지만 실력이 상당하다. 지난 해 8월 수원포교당 가릉빈가 어머니합창단 창립 15주년 기념공연에 찬조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제1회 경기도 남성합창제(지난 해 11월)에 초청됐고 경기도 어머니합창제(지난 해 12월) 때도 무대에 올랐다. 올 1월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 성도절 기념음악회와 3월 1일 경기불교문화원 점안식 때도 음성공양을 했다.

김대성 총무는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는 일이라 늘 설레고 보람이 크다. 음성공양이 작은 주춧돌이 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회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자후 합창단은 "거사들이 사중(寺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13명에서 시작해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40~60대가 함께 모인 회원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합창단 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한 서정탁 전임 회장은 98년 포교사 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던 경력의 소유자. 천직 성우 출신이 있는가 하면 김대성 씨는 수원 난타합창단에서 3년 동안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 아버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제 시작이지만, 활동하면 할수록 우리가 절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글=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ogo@buddhapia.com



사자후 남성합창단 김대성 총무

수원포교당 사자후 남성합창단 총무를 맡고 있는 김대성 씨는 합창단 결성의 일등 공로자는 "주지 스님"이라고 말했다.

남성합창단은 "사중(寺中)에서 거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업마 전까지 회장을 맡은 서정탁 씨는 수원 난파합창단에서 30년 활동한 김대성 씨에게

실력쌓아 교도소등 위문

도움을 요청했고, 김 씨는 산파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김 씨는 "간혹 아버지 합창단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래 못가 문닫는 경우가 많았다. 신도회나 거사회도 비슷한데, 신심도 신심이지만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중 스님들이 없다면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열심히 연습해 실력을 쌓아 가는 과정이라 사실 합창단이라고 하기에도 쑥스럽다"는 김 씨는 "앞으로 실력이 쌓이면 교도소 위문 공연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스님은 소득이 없어 카드 심사에서 번번이 제외 되신다고요?
부다피아 하나 카드는 스님께 우선적으로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동국대 병원 의료비 5~20% 할인 !!

조계종 스님은 물론 다른 종단 스님이라도 부다피아 하나카드를 소지하신 분이면
누구나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해당됩니다.)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⑱ 제9 수학무학인기품

아난다의 사적(事跡)

아난다는 숫도다나(淨飯)왕의 동생 아므리타(甘露飯)왕의 아들로 석존의 4촌 동생에 해당하며 데바닷다(提婆達多)의 동생이기도 하다. 석존께서 성도한 후에 처음으로 카필라바스투(迦毘羅衛城)에 돌아갔을 때 출가하여 제자가 되었으며, 그 후 샤리푸트라(舍利弗)와 마우드가리야야나(目連)의 추천으로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따르는 시자(侍者)가 되어 20여 년 동안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섬겼다.

그는 훌륭한 기억력을 가져 석존의 설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교단 가운데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 불렸으며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제1회 결집 때, 법(法) 즉 경전의 송출자(誦出者)로 선출되었다.

아난다는 매우 선량하고 온순하여 마음이 약한 데가 있었다. 그렇지만 석존에 대한 충직함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으니, 데바닷다가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 석존을 해치려고 했을 때에도 다른 비구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아난다 혼자만은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석존께서 성도하신 지 5년 후, 숫도다나왕이 천수를 다하였다. 석존께서는 장례를 위해 카필라바스투에 갔었다. 그런데 석존의 이모로 석존을 양육한 고타미(摩訶波 波提)는, 앞서 친아들인 난타(難陀)와 손자인 라훌라도 출가하고 또 남편인 대왕도 돌아가시고 보니 점점 세상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었기에 석존께 출가를 말씀드렸다. 그러나 석존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석존께서는 바이샤리(毘舍離)를 향해 출발했다. 궁전에 남게 된 고타미는 아무래도 출가의 뜻을 버릴 수 없었으므로 그 뒤를 따라갈 것을 결심했다. 그러자 남편들의 출가에 의해 같은 생각을 품고 있던 많은 부인들도 고타미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인들은 일제히 검은머리를 풀어내리고 허술한 옷을 걸친 후, 손에는 한 개의 나무 바루를 들고 맨발로 카필라바스투를 떠났다. 그리하여 석존이 계시는 정사(精舍)의 문밖에 겨우 당도했을 때는 모두 피로에 지쳐서 쓰러질 정도였다. 이 소식을 듣고 시자인 아난다가 나와 보았더니 고타미를 비롯하여 많은 부인들이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 깜짝 놀란 그가 그 사유를 묻자 불도에 들어갈 결심으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난다가 즉시 석존에게 이 사실을 고하자 석존께서는 "아난다여, 여인이 엄한 계율 아래서 도를 닦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포기하도록 설득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난다는 선뜻 승복하지 않았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세존의 가르침은 남자에게만 문을 열고 여자에게는 닫는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다. 진리라는 것은 인간계든 천상계든, 어디서나 진리이거늘 하물며 남녀의 차별 따위는 없다. 그렇지만 교단에

기억력 탁월, 설법 정확히 전수
여성출가 허용 간청…비구니 탄생

여자가 들어오면 교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세존이시여, 가르침의 문이 남녀의 어느 쪽에도 열려 있다고 하면 여인의 출가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아난다의 말에는 무리가 없었다. 원래부터 석존께서도 인정이 많은 분이었으므로 드디어 아무런 말없이 허락하게 되었다.

제1결집 직전에 마하카샤파는 다섯 가지의 허물을 들어 아난다를 결집회의에서 제외한 일도 있었다. 그 허물 중에 '여인의 출가를 억지로 세존께 간청한 것', '세존의 유체(遺體)를 맨 먼저 여인에게 예배시킨 것' 등 여인에 관한 조항이 두 개나 있는 것은 자못 아난다다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온화한 인품과 훌륭한 교학과 설법의 교묘함은 비구니 교단이나 재가 신도뿐만 아니라 차츰 교단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으니, 마하카샤파가 입적할 때에는 어느덧 교단 제일의 실력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계율은 잡념·망상 건지는 지렛대



가까이서 뵌 큰스님

도 견 스 님 (금성사 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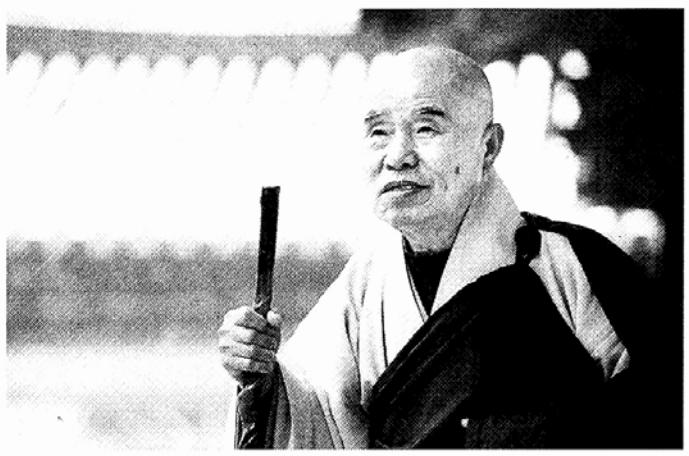
3월 초순 해인사. 만물의 생동을 재촉하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 신선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소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도견 스님(前 조계종 원로의원)을 찾았다.

해인율원에 있는 도견(道堅)스님 방에는 불이 꺼져있고, 섬돌에 놓여 있어야 할 고무신도 보이지 않았다. 수행자는 큰절에서 대중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한다는 노스님의 뜻을 헤아려 본다.

우두커니 마루에 앉아 추녀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니 도견 스님이 오른쪽 손에는 지팡이, 왼쪽 손에는 우산을 들고 산 윗쪽에서 내려오고 계셨다.



◇매일 아침이면 1시간씩 산내암자를 포행하는 도견스님.



◇계를 철저히 지켜 수행자라고 항상 강조하는 도견스님은 생활속에서 수행과 근검절약을 실천하여 후학들의 존경이 높다.

"스님 진눈깨비도 내리는데, 어디를 다녀오세요."

"눈이 땅에 떨어지면서 물이 되요"라고 선문답하시며 아침마다 1시간씩 인근 암자까지 포행을 하신다고 하셨다.

날씨도 쌀쌀하고 길도 미끄러운데 힘드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허허' 웃으시며 "一切有爲法(일체유위법)이 如夢幻泡影(여몽환포영)이요 如露亦如電(여로역여전)이면 應作如是觀(응작여시관)이라"라고 금강경(金剛經) 사구게(四句偈)를 읊으신다.

스님은 "모든 현상이 꿈, 그림자, 이슬, 번갯불과 같으니 변치 않는 진리를 바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다.

〈대비파사론(大毘婆沙論)〉에는 하루 24시간 동안에도 64억 9만 9천 80찰나에 오온(일체유위법)의 변화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으므로 항상 변화 중에 존재한다고 설한다. 찰나와 찰나 즉 생각과 생각의 사이에도 꿈(夢), 헛것(幻), 물거품(泡), 그림자(影), 이슬(露), 번개(電)처럼 멈춤이 없이 변화하는 것을 보라는 말씀일 것이다.

잠깐 莊子(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장주지몽(莊周之夢)'을 생각했다. 장자는 꿈속의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를 고민하며, 현실도 삶도 죽음도 구별이 없는 세계를 얘기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도 한낱 만물의 변화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현상과 자아의 구별

"모든 현상이 꿈·그림자·이슬 번갯불 같으니 변치않는 진리를 바로 보아야 한다"

내본성 찾아내는것이 성불
화두가 일념되어야 깨달아

도 사라지고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투철한 자각, 그것이 곧 깨달음이 아닐까.

도견스님의 방에는 금강경 관련 서적이 빽빽하게 꽂혀있었다. 최근에는 아예 부처님 마음자리를 법을 이해하고, 따르라는 뜻에서 〈금강경〉책을 1천여 권 제작하여 해인율원 스님들과 찾아오는 수행자, 재가 불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셨다.

내친김에 금강경의 핵심을 일러달라고 청했다. 스님은 중국 천하에 선의 불길을

도견 스님은?

몸에 밴 근검절약…불자들에 금강경 보시

도견스님은 1925년 인천시 강화군 화전면 부곡리에서 태어났다. 1944년 오대산 동관암에서 지월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45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3년간 교학에 정진했다.

스님은 이후 해인사와 순천 송광사, 선산 도리사, 부산 범어사 등 전국 각지의 선방에서 수행했다.

평생 공부에만 전념해온 스님은 80년대 중반 중앙종회의원과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냈다.

스님은 항상 계를 철저하게 수지하며 선정을 닦아 후학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생활 속에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스님은 수행자가 〈금강경〉을 통달하는 것이 그 첫째라며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금강경을 보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좌 혜만 스님(진주 은석사 주지)은 "은사스님은 평소 상좌들을 엄하게 경책하시며, 참선 상좌들에게는 화두를 주고 점검하는 것은 물론 포교하는 상좌에게는 법문을 들려 주신다."며 "계를 항상 수지할 것을 강조하여, 약간의 흐트러짐만 보일 경우 곧바로 참회정진을 명하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화방사 화방복지원 공고 제2002-01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 말사 화방사 화방복지원에서는 2002년 5월 노인복지시설 화방동산 개원을 앞두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코자 합니다. 어르신들을 친부모와 같이 모시고 헌신적으로 일할 자상하고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를 선발코자 하오니, 뜻있는 이들의 많은 접수를 기다립니다.

구 분	채용인원	지 원 자 격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1 명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1년 이상 경력자
생활 지도원	10명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병교육 수료자, 경력자 우대
촉탁 의사	1명	의사면허 소지자 / 경력자
간호사(1), 물리치료사(1)	2명	유자격자/ 1년이상 경력자
영양사(1), 사무원(여,1)	2명	유자격자/1 년이상 경력자, PC자격증 소지자
조리원(1),위생원(1),관리인(1)	3명	조리사, 세탁관련 유경험자 우대
구 비 서 류	응시원서(화방복지원 소정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최종학교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 각1매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안내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원서접수 : 2002. 3.18 ~ 3.23 (우편접수시 23일까지 도착분)
▣ 면접일자 : 2002. 4. 2. 오후1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합격발표 : 2002. 4. 8(월)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기타사항 : 가. 2002. 4.15 ~ 5.14까지 도내 우수 복지시설 견학 및 실습활동을 실시하며, 2002. 5.15일자로 정규직원으로 채용함.
나. 급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보수규정에 준함. (숙식 제공)
다. 응시원서(소정양식)는 전화연락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림.
▣ 주 소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448 / 화방복지원 사무국
▣ 문 의 : ☎ 055)863-2286 / 이메일 : hwabang@kornet.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 말사 화방사 화방복지원장

[급] 사찰안내



현재 짓고있는 대중방

사문 노승은 25년 전에 비구승의 단신 몸으로써 오직 남북평화통일 기도와 서부전선 여러 부대 법당를 설립하고 군포교활동과 과주경찰서 조립식사무실을 설립하여 포교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임진각 광장에서 10년간 법화경 일인 일자씩 사경기도와 분골쇄신 할 정도로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전진 부대 여러 사단장님, 참모님, 역대서장님등 여러 불자들이 서부전선에 호국승장이라 하였습니다. (신도는 500명 정도이고 축원카드를 보유 중) 병든 몸으로 밤낮으로 25년간 기도와 포교활동에 지쳐서 몸에 합병증이 생겨 현재 매일같이 병원을 찾고 있으니 꼼짝 못할 몸으로써 노령의 몸이 되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요하게 되어 살고 있는 사찰을 인연있는 승려가 있으면 급히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사찰은 15년 전에 지역사령관인 사단장께 대지 3천평을 사용승락서(사용땅은 1천평)를 받아서 해인사 용탑선원에 모셔진 대석불 좌상 삼존불을 윤 고암 큰스님의 뜻으로써 통일을 위하여 이 곳으로 모시고 대가람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좌석불은 석굴암 부처님 못지않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며, 35평의 큰방을 건립하기 위하여 적벽돌을 다 쌓아 놓고 있는 중인데 창건주 노승이 큰 병마가 생겨서 큰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니 돈이 없고 25년전에 소승의 조상 봉제사돈 5억을 가지고 와서, 서부전선 포교활동과 절 건립등 돈을 다 써버리고 현재 돈이 없어 입원도 못해 급한 사정에 놓이고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 스님이 계시면 1억 5천만 주시면 병원비와 방 한칸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되겠으니, 급한 안내 드립니다.(모든 의논이 가능합니다.) 임진각 부근 철마는 달리고 산은 아담하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찾아 주시던지, 연락 바랍니다. (방광하신 좌석불의 가치가 대단함)

◆ 전화 : 031)952-7031 ◆ 휴대폰 011)9941-5818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 1리 117번지(임진강부근)

평화통일사 창건주 사문 윤 동암 합장

●신도 회장을 비롯한 신도들의 뜻을 같이 하였음

제 1기 佛敎儀式 (범음 · 범패) 學人모집

한국불교범음회에서는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과정(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전문 범음, 범패)

● 모집인원 : ○○명 (선착순)
● 개강일시 : 2002년 4월 22일 (음 3월 10일) 오후 2시
● 매주 강의 요일 : 수, 목 (오후 5시 - 7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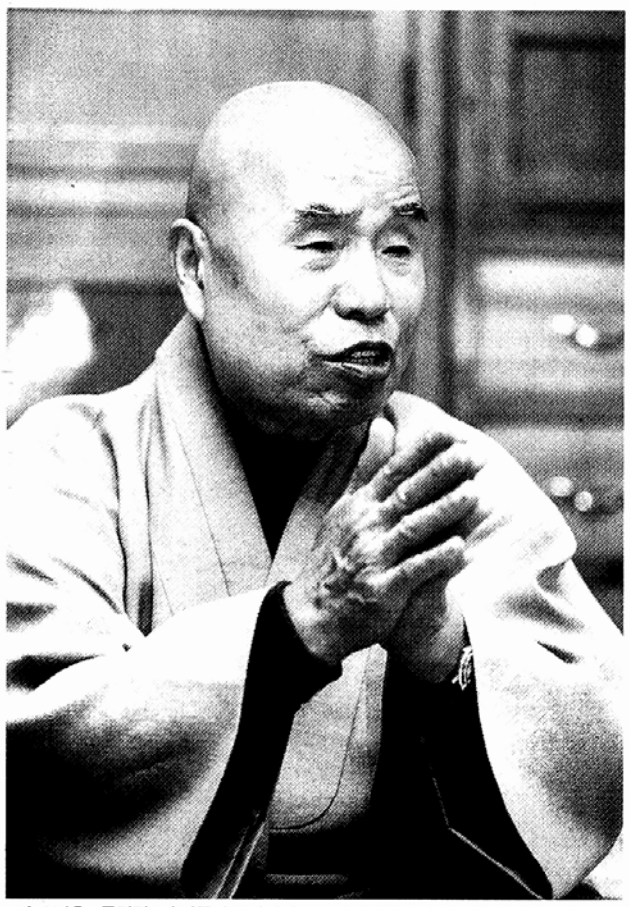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겸 강주 김도진 화상
사무실 051)554-1518
회 장 011)864-1518
총 무 011)816-3909, 054)372-3639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불자라면 반드시 5계 지켜야

치솟게 하신 육조 혜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금강경 莊嚴淨土分(장엄정토분)에 나오는 구절을 설하셨다.

"應無所住(응무소주) 而生其心(이생기심)이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을 굳이 말로 한다면 부처님의 마음자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스님은 <금강경>이 선종의 소의경전으로 채택된 선객들의 교과서라며 수행인들은 먼저 금강경을 공부하고 통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한 마음입니다."

스님은 이어 '有一物於此(유일물어차)하니 一物(일물)이 何物(하물)하고, 凡有事物(범유사물)이 小不能大(소불능대)하고, 大不能小(대불능소)로대 此則反是(차즉반시)하야 能小而細入隣虛(능소이세입인허)하고 能大而廣包法界(능대이광포법계)라' 는 함허스님(1376~1433)께서 설의(說誼)하신 <금강경오가해> 내용을 일일이 글자를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물(일물) 즉 한 물건은 다름 아닌 마음경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온갖 사물은 작은 것이 능히 클 수 없고, 큰 것은 능히 작아질 수 없지만 마음은 사물과 다르게 능히 작고 미세하여 해가 떠오르면 먼지 틈으로 들어오는 빛에 보이는 먼지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커서 법계를 널리 에워싸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천겁을 지나도 옛이 아니고 만세에 뻗쳐있어도 항상 지금 이 마음자리요, 우리들 누구에게나 있는 항하사 같은 커다란 마음자리를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크게 웃을 수 있다면 아마도 불법의 이치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 금강경은 교학에서만 가치가 있는 경전이 아니다. 오조 홍인(弘忍, 602~675) 스님 이후부터 선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채택된 선객(禪客)들의 교과서다. 수행인들이 무릇 먼저 공부해서 통달해야 할 근본 경전인 것이다.

스님은 껍데기로만 불교를 믿었지 자기 마음을 닦지 않는 사부대중들에게 크나큰 경책을 하셨다. 껍데기 불교를 믿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불자라면 마땅히 5계를 지키고 부부가 함께 신행하는 생활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금강경 공부로 근본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쭸다. 스님은 가차 없이 "계를 철저히 수지해야한다"고 말씀하신다.

"계를 철저히 지켜야 수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계율은 잡념과 망상, 게으름을 건지는 지렛대입니다. 계를 수지하고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계율은 수행의 결정체예요. 불법은 계율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계율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건물이 무너지고 맙니다. 불법은 반드시 계율이라는 그릇에 담겨야만 하는 것이지요. 설사 깨침이 깊어서 걸림이 없다 할지라도 함부로 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계율을 알고는 있지만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잊고 사는데, 이것이 계율과 현실의 괴리 때문 아니냐고 여쭈자 스님은 "승가에서도 계율을 현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불법의 근본 근본인 계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부분이다"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언젠가 해인사 경내를 거닐고 있는데 수각 앞에 있던 양복쟁이가 '스님은 살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런데 묻는 자체가 하도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그 양복쟁이는 목사였어요. 스님네들의 수행과정을 떠보느라고 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살생 안 한다' 고 하더냐 하고 대답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살생 안 한다' 고 했으면 할말이 많았을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물 한 바가지에도 8만 4천 충이 있다고 하니까요. 계라는 것은 원리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는 수행정진의 밀도와 강도를 높임으로서 자연스레 체화됩니다.

억지로 참고 부정하면 그만큼의 반작용이 있어서 무척 고통스럽게 됩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몸뚱이만 벗어버리면 되지만 여자에게 물리면 세세생생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님은 계를 지켜 선정을 닦고, 성불에 이르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임을 설명하셨다. 그럼 도대체 성불이란 어떤 것일까.

"성불이란 땅속에 묻혀있는 나의 본성을 드러내어 그것이 나의 본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화두 참선을 해야 성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참선하기 전에 먼저 모든 번뇌망상의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번뇌망상이 무엇이냐 하면 밀림에서 큰 나무를 베어서 가지고 내려오려면 가지를 모두 쳐야 하지요. 집착이 곧 가지입니다. 집착의 가지를 쳐 버려야 나무가 주루루 내려가지요. 집착을 끊고 화두가 일념이 되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두로 깨달음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직접 물을 먹어봐야 차갑고 뜨거운 것을 알 수 있듯이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아무리 차갑다고 설명해도 알지 못해요."

노스님께서 시자 한명 두지 않고 해인사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갑자기 궁금했다.

"나는 본래 오대산 문중인데, 해인사에만 있으면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 찾아오다 보니 60이 다됐는데 대중들이 주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주지냐고' 뿌리쳤는데 큰스님의 명이라 한 2년 반 정도 주지소임을 살았지요. 은사 지월스님도 이곳에서 열반하셨고 해서,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스님은 오후에 세간에 나가봐야겠다고 하셨다. 자동차가 없어 한동안 신세진 불자가족에게 가정법문을 들려주고 싶다 하시며 소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총총히 절 아래로 내려가셨다. 스님의 발목에는 요즘 들어 보기 힘든 행전이 쳐져 있었다. 서적에 의하면 한암 스님도 행전을 항상 하셨다고 한다. 아마도 도견스님은 큰 스님들의 법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행전을 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부부가 함께 신행하는 생활속 불교 바람직

해인사에만 있으면 알수없는 편안함이…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 기후스님



(전호에 이어)

6년 동안을 묵언수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스님을 만나고 돌아온 나는 6년묵언은 못하더라도 6일만이라도 침묵해 보고자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았다. 그 6일 동안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던지 꿈속에서 말을 해버리고 말았으니, 6년묵언 수행정진에서 나올 그 적정의 깊이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스님이 묵언을 풀고 태백산 기슭에 은거하고 있을 때, 스님을 찾아간 내게 묵언 기간에 필담으로 심중을 표현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고 했다. 스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리고자 했다. 십악중죄(十惡重罪) 가운데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다. 몸과 뜻으로 짓는 죄악이 각 세가지이지만 입으로 짓는 죄는 네가지나 된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입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사람은 나면서 입에 도끼를 물고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입은 재앙의 문이다"라는 말이 있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자주



나는 새가 그물에 걸릴 기회가 많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어지는 법이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니 말이 많으면 그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선원의 많은 스님들이 묵언패(默言牌)를 목에 걸고 침묵속에서 수행하는 것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다.

내가 런던에서 살 때 스님은 시드니에서 살았다. 런던과 시드니는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다. 우리는 잠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지만 스님은 나의 수행을 지켜보며, 해가 바뀔 때면 언제나 먹을 갈아 붓으로 자신의 수행 경계를 간단히 적어보내곤 했다. 이러한 일이 그가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진정한 도반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이다. 얼마 전 나는 런던에서, 그는 시드니에서 일시 귀국했을 때 참으로 모처럼 도반들과 한 자리에 앉았다. 모처럼 만난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웠다. 대화의 주제는 정(定)과 혜(慧)가 하나인가, 둘인가 하는 문제였다.

"정(定)없이 혜(慧)를 이룰 수 없으니 정과 혜는 하나이다" "정으로 인하여 혜를 이룬다고 하지만 정에 머물러 있는 한 정은 혜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과 혜는 하나가 아니다"

토론은 계속되었으나, 기후스님은 짧게 한마디 할 뿐이었다.

"정과 혜가 하나인가, 둘인가 하는 것은 지금의 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정을 습득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경험에서 우러난 그의 그 말 한마디는 토론을 종식시키는 힘을 가졌다. 토론에 열을 올리던 우리는 재주를 부리는 앵무새 같았고, 짧게 핵심을 찌른 그는 천고에 자취를 감추는 학 같았다.

일년 전 그는 강원 제자이자 6년묵언 정진 도반이며 영명사를 창건한 주광스님을 잃었다. 그래서 시드니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해 영명사에 주석하며 운영을 해야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스님은 영국에 있던 나를 불렀다. "나는 사찰 운영에는 능력이 없소. 내가 보기에 영명사는 대사가 아니면 다시 일으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대사가 좀 도와주시오. 나는 다시 산으로 가야할 것 같소."

그리고는 태백산으로 가 버렸다. 주지소임을 서로 맡으려 하는 이 시대 풍토에 기후스님처럼 절을 버리고 도망가는 수행자는 많지 않을 듯 싶다. 삼십여년 전 중강의 소임을 이어받았듯 이번에도 그의 청을 저버리지 못하고 나는 영명사에 엉거주춤 주저앉고 말았다.

매사 엄격히 자신다스려 영명사 맡기고 수행길로

"못 생긴 나무가 산 지키고 못생긴 중이 절 지킨다고, 나는 절에서 나이만 먹은 사람이오. 짐을 떠넘기게 되어 미안하오"

영명사를 내게 맡기며 그가 한 말의 전부다. 온 천하를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겸손으로 표현하는 스님은 정말 수행만을 위해 살고있는 출격장부답다는 생각이 든다. 곧게 자란 나무는 목수의 손을 피할 수 없다. 끊기어 재목으로 사용되게 마련이다. 굽고 옹이가 많은 나무는 아무 곳에도 쓸모는 없지만 오래 견딜 수 있다. 그러니 그런 나무가 오히려 아름답게 산을 지킨다. 기후스님은 바로 그런 나무 같은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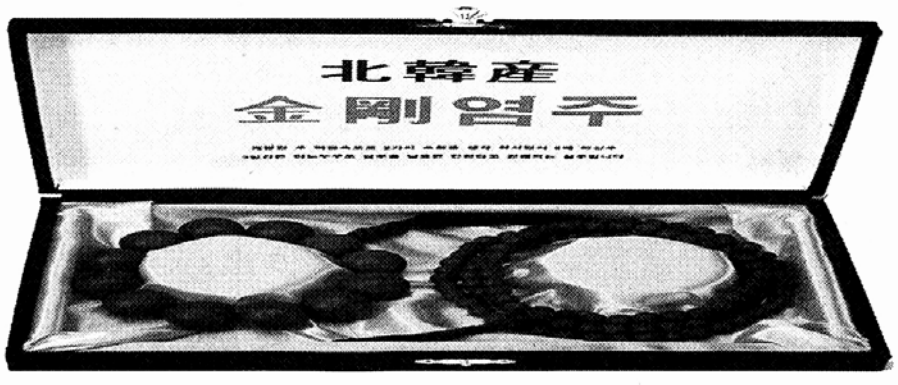
도반 같은 제자를 잃은 터라 며칠을 같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 산책길에 홀로 선 그의 뒷모습에서 침묵으로 관조하는 수행자의 외로움을 느꼈다.

"어이 대사! 우리 조금만 더 살다가 인도로 떠나세. 가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적한 길가에서 쓰러져 죽게 되면 누구인지 알 리도 없을 테고, 남의 신세도 적게 질 터이니 말일세."

"요즈음 한국 수행자들은 죽고 나서도 신도들 돈을 거두니, 업장만 두텁게 할 뿐 부끄러운 일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일세. 어쩌면 좋겠나?"

스님다운 이야기다. 나에게도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인다. ▩ 구미 영명사 주지

北韓의 세계적 신비의 명산품
北韓 金剛염주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친다는 靈驗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靈驗

金剛염주의 신비

北韓의 세계적인 신비의 명산품으로 원효대사께서 참선 안거하시던 평안남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광석으로 악귀와 액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신비한 영험으로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염주중에 최고의 염주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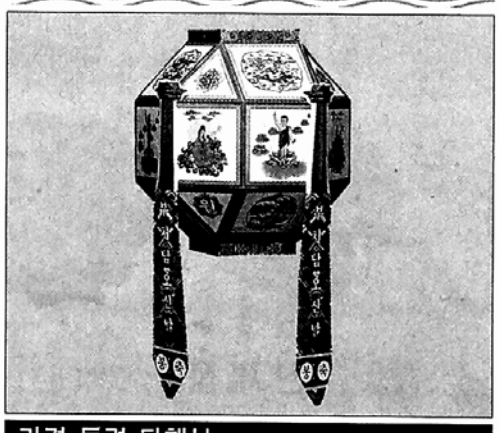
金剛염주는 상온(현재온도)에서 氣와 원적외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 유일의 염주입니다.

신청문의 전화 (02)704 -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원을 아래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신비의 금강염주 SE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농협 1127-02-175765

국내독점보급
金剛닥터KOREA
서울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B/D 406호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연등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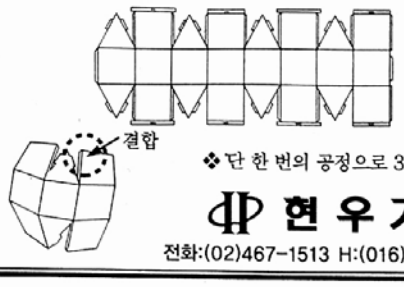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업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H:(016)552-9360



◇성철 스님이 생전에 입었던 누더기 승복. 불교의 무소유 정신을 말없이 보여준다. (사진제공 장경각)

성직자 服飾 60점 한자리에

대한민국 종교복식展 프레스센터서 26일~31일

'옷'은 가장 민감하게 시대를 반영한다. 오늘날처럼 '몸'을 보호하는 기능보다 '패션' 기능이 중요시되는 때는 더욱 그렇다. 또한 옷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복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종교 성직자들이 입는 옷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종교의 복식은 어떻게 변해 왔으며, 종교마다의 복식에는 어떤 차이와 특징들이 나타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대한민국 종교복식전'이 26일~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원불교 역사박물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불교 · 천주교 · 기독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성직자들의 복식 60여점이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유행'에 민감한 세속의 패션과 달리 종교의 복식에는 각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상들이 표현되어 있다. 성철스님의 잿빛 누더기옷이 불교의 무소유의 정신을 웅변하듯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전례복은 교황청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번 전시에서 불교 복식은 스님들의 일상복을 비롯해 가사, 장삼 등 의례복과 예비승인 사미승들이 입는 사미복, 행자복 등이 선보인다. 원불교는 대종사의 두루마기와 바지저고리를 비롯해 남녀 정복과 평상복 등을 전시한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각 종교의 의복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 공간도 마련하고, 의복뿐 아니라 각 종교의 의례도구도 전시하고 있어, 여러 종교의 같고 다름을 쉽게 알게하는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전시와 더불어 '한국의 종교 복식과 그 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02)813-2208

추구하는 가치·사상 녹아있어
스님 잿빛 누더기 옷 무소유정신 표현
전시기간동안 입어보는 체험공간도

문화 담당=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중앙박물관 '이달의 문화재展'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달의 문화재 전시' 3월 주제로 '고려말 조선초의 보살상'을 선정하고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관련 유물 4점을 박물관 로비에서 3월 31일까지 전시한다.

고려 후기는 통일신라 이래 이어져 온 불상 조성 전통이 이어지면서도 고려적인 조형 감각이 완연히 드러나는 세련되고 온화한 불상 양식이 유행하던 시기다. 또한 14~15세기에는 라마교가 들어와 이국적인 분위기가 짙은 불상 양식이 유행하기도 했다. 02)398-5000

제 27회 명무명인展

우리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 줄 제27회 명무명인전이 20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인간문화재 이애주씨의 승무, 안숙선씨의 판소리를 비롯해 대금산조, 살풀이춤 등 각 분야 명인들이 대거 참여해 우리 춤과 소리의 우수성을 선보이게 된다. 02)585-7318

"이 절에 특별한 음식이…"

사찰음식점 경영 김연식씨 '눈으로 먹는…' 펴내



◇용주사 무릇뿌리



◇신륵사 연잎밥

천연의 맛·향·색을 최대한 살리는게 사찰요리 특징

용주사 무릇뿌리 조림
향일암 뜸부기국
신륵사 연잎밥



◇해인사 머위탕



◇화엄사 상수리 쌈밥

시대가 변하면서 사라져 가는 것들이 있다. 사찰음식도 예외는 아니다. 스님들의 손끝으로만 이어져 와 점차 사라져가는 사찰음식의 조리법과 그에 얽힌 사연들을 담은 책이 나왔다.

서울 인사동 사찰음식전문점 '산촌'의 주인인 김연식(56)씨가 전국 사찰을 돌며 절마다 전하는 요리 비법을 기록해 펴낸 〈눈으로 먹는 절음식〉(우리출판사)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절의 안살림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 책에는 수원 용주사, 여주 신륵사, 합천 해인사, 구례 화엄사 등 일곱 군데 사찰의 요리 130여 가지와 그에 얽힌 설화와 벽화, 사찰 주위의 풍광까지 담겨있다. 용주사의 무릇뿌리조림, 신륵사의 연잎밥, 해조류인 뜸부기와 된장, 들깨로 만든 여수 향일암의 뜸부기국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찰음식들과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사찰음식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김 씨는 "절 음식이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지역과 사찰에 따라 재료와 조리법이 다르다"며 "어떤 음식을 만들든지 재료가 가진 천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사찰 요리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발우



◇오합



◇촛대

'비움 정신' 담은 문화상품
도쿄·파리 등 세계시장에

아름다움의 근본은 편안함이며, 편안함의 근본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라는 '비움의 정신'을 담은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들이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문화상품 전문회사 212가 '비움'을 주제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닌 생활소품들을 디자인 문화상품으로 내 놓았다.

나무로 만든 발우와 촛대, 은과 자개를 이용한 함과 시계, 천연염색 천을 이어 만든 보자기와 이불, 천연염색 한지를 접어 만든 편지지, 대나무로 만든 각종 공예품과 알파벳을 새긴 돌도장 등이 212가 선보인 디자인 문화상품들이다.



◇등각

212는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 한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디자인 문화상품 브랜드로서 '비움(VIUM)'을 처음 선보인 이래, 올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점을 개설하는 등 앞으로 해외 50여 비움 스토어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알리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 한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시내를 따라 이어진 오솔길을 걷는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숲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시냇물 소리가 들려오는 늦겨울 숲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키 작은 나무들의 가지 끝에는 봉우리가 맺혀, 누군가 "시작!" 하면 마치 팝콘이 터지듯 앞다퉈 새 꽃과 새잎을 피워낼 태세다. 겨울 동안 축 쳐져 있던 가지들도 이제는 물이 올라 하늘을 향해 곳곳이 뻗어있다. 새들의 노래 소리도 한결 명랑해진 것 같다. 꽃 망이 올라갔다 싶어 그만 발길을 돌려 내려오니, 어느덧 날은 기울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다. 앞산엔 뭉실 달이 떠오르고, 속세로 돌아가는 걸음을 따라 시냇물과 새소리가 따라온다. 이럴 땐, 왕유(王維, 699~761)의 '새소리 물소리(鳥鳴澗)'가 절로 읊어진다.

한가한 사람 곁에 계수나무 꽃 떨어지고
(人閒桂花落)
밤이 고요하니 봄 산이 비었어라
(夜靜春山空)
달이 솟으니 산새 놀라
(月出驚山鳥)
그 울음소리 봄 시냇물 따라 흐른다
(時鳴春澗中)

왕유의 '새소리 물소리'

달이 솟으니 산새 놀라
그 울음소리
봄 시냇물 따라 흐른다

이런 시를 읽을 땐 그 옛날 선(禪)과 시(詩)가 만나 활짝 꽃을 피운 당송(唐宋) 시대가 그리워진다. 선과 시처럼 궁합이 잘 맞는 게 또 있을까? 선은 시를 만나 몸을 얻었고, 시는 선을 만나 정신을 얻었다. 시는 선객(禪客)의 꽃이 되고, 선은 시인의 칼이 되었다. 선의 세계는 불립문자요 언어도단이지만, 그 오묘한 선취(禪趣)를 구태여 표현한다면 시의 형식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선 수행으로 얻어진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선, 시적 상징과 비유를 빌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한편 혜능과 그 제자들의 게송을 본 시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진심직설(眞心直說)로 표현된 선사들의 게송에서 까마득한 경지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시인들은 자신들이 찾던 시적 이상향이 선가의 삼매경 속에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왕유는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가다가 물이 다한 곳에 이르러/ 우두커니 앉아 구름 피는 것을 본다(行到水窮處 坐看雲起時)." 도의 경지로 나아간 시는 그 맛이 깨끗하기 그지없다. 말은 스스로 한계가 있지만, 시의 힘을 빌면 뜻을 무궁하게 펼 수 있다(言有盡而意無窮).

시는 선을 만나 단순한 방편을 넘어서는 '말 없는 말'로 승화되었다. 따라서 선학이 융성하던 시대에 선의 정신을 흡수한 당시는 중국 시가의 황금기를 꽃피우게 된다. 그리고 육조 혜능 이후 5종(임제, 운문, 조동, 위앙, 법안) 2파(황룡, 양기)의 가문에서 쏟아져 나온 한 · 중 · 일의 선객들은 하늘의 별처럼 찬란한 선시들을 토해냈다. 그 조상들의 유산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감사하기 그지없다.

■문학평론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시공된연등용 전선 케이블 ▼



만월등

종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통을 멸추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널리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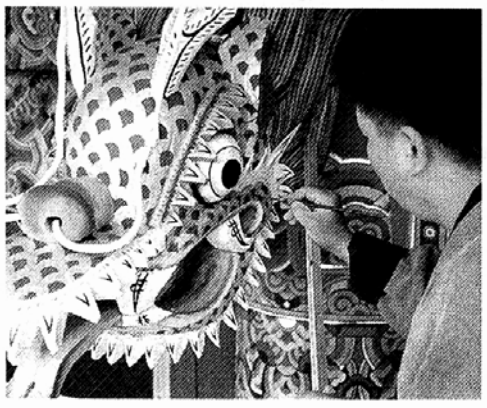


종등 보관상태



◆연꽃잎 저작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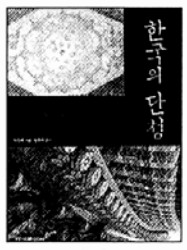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 792-6288, 794-4055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단청 교과서, 안료·도채법까지 소개

목조건축물·동굴벽화·장신구 등 광범
美 추구·날씨변화 따른 변형 막아

'한국의 단청' 곽동해 지음



단청(丹靑).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와 조화를 말한다. 하지만 단청이란 각종 안료를 사용하여 건물의 벽과 부재에 도채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더 넓은 의미로는 각종 조각상이나 공예품 등을 채색하는 행위나 서(書)·회(繪)·화(畵)의 개념을 망라한다. 따라서 예로부터 단청의 대상은 전통적인 목조 건축물은 물론 고분이나 동굴의 벽화, 칠기, 공예품, 조각상,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특히 목조 건축문화에서 단청은 필수 요건이다. 나무로 지은 집에 고운 색깔을 입히면 비바람이나 덥고 추운 날씨의 변화로 목재가 갈라지고 비틀어지거나 썩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미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단청은 그 건물의 위엄을 더해주기도 한다.

같은 사찰에서도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과 스님들이 거처하는 요사채의 단청은 격이 달랐고, 궁궐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이 중 사찰의 단청은 오늘날 한국 단청의 명맥을 이어오는 보고다. 사찰의 건물은 불전, 보살전, 영산전, 판전, 조사전, 종루 등 다양하다. 바로 이러한 건물들에 한국단청의 모든 조형 양식이 장엄되어 있는 것이다. 문양면에서 사찰 단청의 특징은 불교의 이미지와 관련된 소재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종류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단청〉(학연문화사)은 한국 단청의 기원과 역사, 조형 양식, 문양의 구성 요소와 종류, 그 상징 의미를 탐구했을 뿐 아니라 실제 단청에 사용되는 안료, 도채법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홍점쇠 씨가 직접 시공한 경주 금천사 약사전의 단청 시공의 과정과 순천 송광사 대웅보전·승보전, 제주 약천사 대적광전, 울산 한마음선원 대웅전 등의 건축 부위별 단청을 화보로 책 앞에 붙였다. 그리고 단청의 기원에서부터 도채법까지 그 동안의 단청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여기에 부록으로 단청 및 고건축 용어 해설과 문양초 130여 쪽까지 수록해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단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은이는 동·서양화를 비롯해 단청, 불화, 벽화 등 불교미술을 공부한 곽동해(동국미술인회 부회장) 씨. 값 5만원.

'영원한 대자유' 혜자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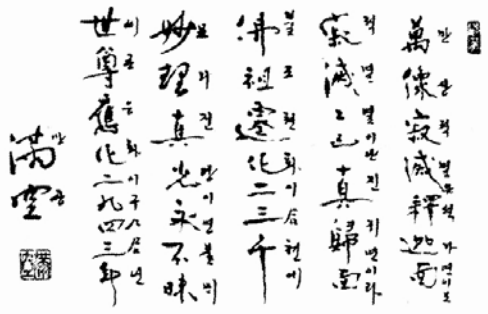
'청담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열반 순간까지 곁에서 시봉했던 혜자(서울 도선사 주지) 스님이 한국 선사들의 법문과 오도송 그리고 열반송 등을 통해 수행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영원한 대자유〉(전3권, 밀알)를 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선승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리고 죽음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모습과 감정에서 무슨 말씀을 남겼는지를 근·현대 선승 33인을 통해 보여준다. 한국 선의 중흥조 성우 경허, 천진불 혜월 혜명 스님에서부터 용성·한암·효봉·경봉·묵담·전강·청담·향곡·성철·탄허 스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현대 선승들의 오도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볼 뿐 달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달을 가리키는 사람조차 없다면 달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선승 33인의 삶은 바로 진리의 달을 보는 다리역할을 해준다. 특히 환희에 찬 오도의 순간, 열반을 앞두고 생사의 껍데기를 벗는 모습, 부드러운 대화 속에 살불살조하는 법거량, 중생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법문, 가슴 뭉클한 일화 등은 단순한 손가락 이상의 감동으로 다가온다.

지은이 혜자 스님은 역대 선승들의 행장을 정리하는 것을 미혹의 때를 벗는 일이라고 말한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중생들이 맑고 밝은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 선승들의 삶이 수행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 문중의 자료와 그동안 출간된 책을 토대로 3년여 간의 준비 끝에 근·현대 한국불교의 소맥을 이어온 고승열전 1차분을 펴냈다. 곧이어 월산·비룡·탄성 스님 등 최근 입적한 스님들도 책으로 묶어 펴낼 계획이다. 값 각권 9천원.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란 화두로 깨달음을 얻은 만공 스님이 직접 쓰신 게송.

선승 33인의 법문·오도송

출판 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처용이 있는 풍경' 김대식 글·사진



삼국유사 현장 돌아본 감흥

소설가이자 사진가인 김대식 씨가 〈삼국유사〉의 역사적 토대가 된 지역들을 돌아본 감흥을 글과 사진으로 엮은 사진 기행집 〈처용이 있는 풍경〉(대원사)을 내놓았다.

지은이는 〈삼국유사〉에 매료돼 5년 넘게 책을 읽었고 심지어 경주로 이사까지 했다. 그리고 황룡사터를 비롯해 절과 절터들, 경주 남산, 경주 주변의 왕릉 등 〈삼국유사〉의 현장들을 찾아 다녔다. 그는 "〈삼국유사〉의 현장들은 대부분 폐허이다. 사라진 세월의 설핏한 낌새라도 느낄 수 있을까 하여 폐탑이나 폐불 앞에서 서성이면서, 융성했을 옛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은 소슬하면서도 행복한 체험이었다. 그런 경험 후에 〈삼국유사〉는 매번 새롭게 다가왔다"고 회고했다.

폐허가 된 〈삼국유사〉의 현장에 선 지은이는 일반인들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칠 만한 곳들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역사여행을 떠난다.

경주 남산 탑골의 부처바위 주변에 있는 삼층석탑, 분황사 삼층석탑 뒤쪽 석조에 새겨진 주사의 글씨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기존 학설에 대해 조심스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흔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처용의 얼굴을 찾아서'를 비롯해 '어느 탑의 상처, 그 기구한 사연', '자장의 최후에 관한 추측' 등 모두 22편으로 구성돼 있다. 값 1만2천원.

'달라이 라마, 자유로의 길' 달라이 라마 지음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가 〈달라이 라마, 자유로의 길〉(이론과 실천)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죽음·환생·업 등 교리 곁들여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욕심이나 집착, 분노와 같은 망상으로 본다. 그리고 이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달라이 라마가 이 책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바로 망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들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망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 그 첫 단계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행복을 바라고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모든 존재와 똑같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할 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깨닫고 실천할 때 비로소 깨달음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며 보다 높은 앎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책은 티베트를 중심으로 불교의 가르침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죽음, 환생, 업, 사성제 등의 교리도 수행법과 함께 전한다. 특히 역사상의 여러 스승들의 사상과 그들의 일화를 적절히 연결시킴으로써 망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수행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해준다. 값 8천원.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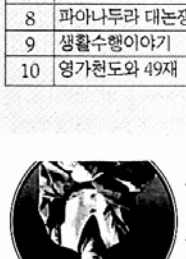
자신이 부처라고 해도 그 말을 이해하지 않고는 부처임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유가(唯家) 수행자들은 삶의 고정된 틀로부터 벗어나서 진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 남겼는데, 세친 보살의 〈유식 30송〉이 그 가운데 하나다.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정화 스님 엮음, 장경각)는 재가불자들이 송광사 정화 스님을 모시고 〈유식 30송〉을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관계 속의 변화'가 앎으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 '앎이 곧 삶'이라고 보는 것이 유식의 가르침이다. 이 책은 지식의 앎으로 끝나기 쉬운 유식의 어려운 용어들이 내면의 앎으로 다가오게 해준다.

지은이는 〈유식 30송〉을 10강으로 나눠 본문을 먼저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재가 불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한다. 한 재가 불자가 묻는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유식으로 설명됩니까." 이에 대해 정화 스님은 "그렇습니다. 유식이란 '삶의 다른 말'로서 인연이나 연기와 같은 말입니다. 유식은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특히 유식성(唯識性)을 통한 깨달음의 완성을 강조하는데, 유식성이란 '현전하는 부처' 즉 우리 자신들로서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은 잘나고 나는 못났다. 나는 잘나고 다른 사람은 못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활동하는 매순간마다 그대로 부처님 자신이며, 유식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생활 속의 유식 30송'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한순간 깨어남으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값 8천원.



유식 30송을 10강 분류
본문설명·질의·답변
한순간 깨달음 유도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회색 고무신	윤청광	시공사
2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재성	한국레일(상전협회
3	왕 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지외	민족사
4	극락은 있다	관정	붓다의 마을
5	참회 참회기도법	김현준	효림
6	참선교육	현담	선
7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택	김영사
8	파아나두라 대논쟁	오진	운주사
9	생활수행이야기	원황	불광
10	영가현도와 49재	박연진	민족사

도서 안내:(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1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313-2729

전화(02)588-0833 팩스(02)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청담 스님의 딸, 성철스님의 제자인 묘엄 스님 이야기

회색 고무신

불교서점 여시아문 베스트셀러 1위



묘엄 스님 구술·윤청광 엮음 | 신국판 | 356쪽 | 값 9,000원

성철 스님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사리!

청담의 딸, 성철의 제자! 세속의 잣대로 보면 왕대밭 소속이다. 그러나 출가 수행이 배경이나 그늘로 성취될 수 있는 여정이던가? 아버지와 스승의 이름은 짱짱한 유산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벽이다…… 노비구니 스님이 조곤조곤 구술한 극적인 일화와 수행의 역정을 격조 있게 꾸민 원로 방송작가 윤청광 선생의 솜씨도 돋보인다. 잔잔한 웃음이 일고 가끔씩은 아리한 감동이 목구멍을 막는다. 조선일보

속인들이 잘 모르는 절간 생활의 면모, 그 가운데 언뜻 비치는 사람살이의 푸근한 냄새,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구도행 등이 담담한 필치로 그려진다. 한국일보

묘엄 스님은 14살에 청담 스님에게 보내져 청담의 절친한 도반이었던, 전 종정 성철 스님을 스승으로 출가했다. 그 뒤 향곡, 운허, 경봉, 동산, 자운 스님 등 근현대 불교의 대표적인 고승들의 채찍과 자애로운 가르침을 받아 이 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성장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엔 근대 고승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한겨레신문



| 푸른 섬 비진도의 작은 스님 이야기 |

꽃담



외딴 섬 스님이 일구는 따뜻한 삶의 뜰

비구니 스님이 비진도 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따뜻한 시선으로 소박하게 담아 낸 산문집.

해만 스님 지음 | 국판 변형 | 237쪽 | 값 7,500원

성보박물관 운영 보물급으로



◇조계종 내 성보박물관이 30곳에 달하지만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은 6개에 불과하다. 사진은 월정사성보박물관 내부 모습.

조계종 주최 세미나

"종단서 관련 법령 제정 기틀 다져야"

30곳중 6곳만 정상… 거의 구실 못해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해 94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건립된 성보박물관은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경주 기림사 등을 포함해 30곳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성보박물관 가운데 학예연구사 등 전문인력이 있는 곳은 통도사, 직지사, 송광사, 금산사, 수덕사, 월정사 등 6곳이다. 대부분은 전문인력이 없다는 말이다. 심지어 개관은 했지만 전시를 하지 않고 있거나 몇 년 동안 하자 보수공사만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성보박물관 관계자들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마디로 "잘하는 곳은 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 (사)한국박물관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보박물관들의 운영 마인드를 확대해 박물관들의 수준을 끌어올려 보자"는 취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는 14일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사찰성보박물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성보박물관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재 각 성보박물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스님들은 몇 개의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소임과 겸직한다든지 해서 사찰 내 지위가 모호하다"며 "별정직으로 박물관장직을 마련하는 등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에 대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 체제의 통일안 마련을 지적했다.

'사찰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할 흥선 스님은 무모한 성보박물관 건립 추진을 문제삼았다. 흥선 스님은 "정부 예산으로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농후하다 보니 개관하더라도 막대한 운영 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얼마안 가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거나 문을 닫아야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등 극단적인 사태를 야기하기도 한다"며 "그 박물관이 보유하고 유물의 전반적인 성격이나 수량, 해당 사찰의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 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선시대 건물터 발견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조선중기 이후 옮겨온 듯"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 알려진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경북 문화재자료 92호) 아래서 조선시대 사찰 건물터가 발견됨에 따라 이 불상이 다른 곳에서 옮겨져 온 것임이 밝혀졌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발굴조사 결과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터와 연화하대석 및 지대석, 조선시대 분청사기, 백자 등이 발견됐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단은 "함께 출토된 백자와 분청사기로 볼 때 건물터는 조선 중기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상과 같은 시기인 통일신라시대 건물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조선 중기 이후 불상을 다른 곳에서 옮겨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불상 아래 기단토에서 연화무늬의 하대석과 지대석 등이 출토된 점으로 미뤄 건물터는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세워진 사찰 내 주요 전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 안계리 불상(경북 문화재자료 92호)아래서 발견된 조선시대 건물터 전경.

기단토 아래 다짐토에서는 통일신라~고려시대 수막새 기와와 고려시대 토기 조각 등이 함께 출토됐다.

박해당 씨 주장

조선시대 배불정책 대응

'불교 우위'서 '儒佛일치'로

성리학만이 유일한 정통 학문으로 위세를 떨치던 조선시대에 불교는 어떻게 이론적으로 대응했을까?

9일 열린 불교학연구회 10차 학술발표회에서 '조선시대 삼교론(三敎論)'을 발표한 박해당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은 "유교 지식인들의 배불론(排佛論)에 맞서 조선불교는 서로 같고 다른 점을 찾을 받아들이면서 공존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선불교가 다른 전통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삼교론(三敎論)을 다룬 유일한 저술인 〈현정론〉과 〈유석질의론〉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시도한 박 씨는 그러나 "〈현정론〉이 불교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드러내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면 〈유석질의론〉은 실질적으로 유불 일치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이러한 주장은 〈현정론〉이 여말 선초에 활약한 기화(己和, 1376~1433)의 저술인데 비해 〈유석질의론〉은 1465년 정도전의 배불논서(排佛論書)인 〈불씨잡변〉이 공식적으로 유포된 이후,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다.

바꿔 말하면 유교에 대한 조선불교의 태도가 '불교 우월론'에서 '유불 일치론'으로 변화했다는 말이다.

이는 두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유교 경전인 〈주역〉에 대한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현정론〉이 불교의 인과응보설을 옹호하기 위해 〈주역〉을 인용하고 있는 데 비해 〈유석질의론〉은 불교 교리와 〈주역〉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를 보여주는 데 저술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유석질의론〉에서처럼 서로 다른 현상적인 가르침의 동일성을 강조할 경우 세력이 강한 전통에 흡수돼 정체성을 상실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교적 충효의 가치체계 속에 불교적 가치가 종속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조선 중기 이후의 불교가 바로 그 좋은 예"라고 말했다.

보물 369호 석남사 부도

낭공대사 사리탑

지금까지 그 주인공이 밝혀지지 않은 보물 369호 석남사 부도가 낭공대사 행적(832~916)의 사리를 봉안한 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재구 학예연구관은 최근 나온 〈울산 연구〉(울산대 박물관) 3집에 기고한 논문 '신라하대 울산지역의 승탑(僧塔)'에서 "낭공대사 탑비는 954년(고려 광종 5) 봉화의 태자사에 세워졌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으나 승탑의 존재는 묘연하다"며 "현재 경남 언양에 남아 있는 승탑(석남사 부도)이 낭공대사 행적의 승탑"이라고 주장했다.

석남사 부도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석남사를 세운 도의국사의 사리탑이라는 설과 보조선사의 사리탑이라는 일설이 있으나 관련 기록이 없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었다.

소 연구관이 석남사 부도를 낭공대사 행적의 승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우선 석남사 부도의 양식이 낭공대사 탑비가 조성된 954년과 비슷한 시기인 10세기 양식이라는 점이다. 석남사 부도는 880년 무렵 세워진 장흥 보림사의 보조선사창성탑(보물 157호)의 양식을 계승했지만 시기는 훨씬 후대인 10세기 양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시대 탑보다 규모가 크면서도 보조선사탑보다는 규모가 축소된 점, 기단 폭이 좁아지고 상륜부가 강조된 점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낭공대사 행적의 승탑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보물 369호 석남사 부도.

현재 남아 있는 낭공대사 탑비의 비문에 낭공대사가 입적했다고 전하는 석남산사의 주변 형세가 기록되어 있는데, 석남사 부도가 있는 울산 언양의 가지산 석남사의 주변 형세와 일치한다는 점도 한 이유다. 〈동국여지승람〉를 보면 언양현조에 석남산이 소개돼 있지만 태자사와 낭공대사의 비가 있던 봉화현에는 석남산이란 지명이 없다.

소 연구관은 "낭공대사가 916년 입적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탑비가 세워졌음을 볼 때 석남사 부도는 낭공대사 행적의 승탑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高僧 다시보기

휴정 스님과 조선불교 중흥



◇청허당 휴정 스님 영정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청허당 휴정 스님(1520~1604)은 불교가 가장 탄압을 받았던 시기인 중종 15년 완산 최씨가문에서 태어나 이름을 운학(雲鶴), 호는 청허(淸虛), 백화도인, 서산대사라 했다.

숭인장로(崇仁長老)에게 출가하여 1540년에 일선(一禪)스님을 수계사로, 석희스님을 증계사(證戒師)로, 영관스님을 전법사로 계를 받고 1549년(명종 3)에 나암 보우스님이 부활한 승과 첫 시험에 급제하여 후에 선교양종판사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중에 스님을 불러 국난대처에 대해 자문하였고, 이에 스님은 승군을 모집하여 호국승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국가로부터 팔도선교도총섭이란 직함을 받았으나 곧 제자인 유정스님에게 물려주고 묘향산에서 머물렀다. 스님은 '국일도대선사선교도총섭부종수교보제등계존자'라는 시호를 받았다. 1604년 1월 묘향산 원적암에서 세수 85세 법랍 67세로 입적하였다.

스님은 생전에 정2품의 당상관 작위를 받고 그의

임란 일자 승병 일으켜 호국

선·교 대립때 선 우위체제로

영정이 해남 표충사, 밀양 표충사, 묘향산 수충사에 모셔져 지금까지 존숭을 받고 있다. 이렇듯 스님의 호국승병활동은 세간사람들이 나서서 맡아야 할 호국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깊고 두터운 4은(恩)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바릿대 하나, 한 벌의 옷으로 수행하면서 종풍을 확립하는데 애를 썼는데 이는 〈청허당집〉 〈선교결〉 〈심법요초〉 〈선교석〉 〈선가귀감〉 〈설선의〉 등의 저술을 통해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님은 한국불교사상 문제가 되어 왔던 선과 교의 대립·갈등문제를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는 선 우위의 체계로 정립하였다. 이미 규봉종밀스님의 〈선원제집도서〉 같은 저술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스님이 보다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였던 것이다. 또한 조주 스님의 무자화두를 들면서도 '닭이 알을 품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여야 한다'는 몽산덕이스님이나 '공부할 때 큰 믿음(大信根), 크게 울분함(大憤志), 큰 의심(大疑情)을 가져야 한다'는 고봉 원묘스님의 선풍도 강조하였다. 이는 스님의 법조인 벽송 지엄스님이나 멀리는 조계종의 중흥조인 태고 보우스님의 선풍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스님의 이러한 선풍은 편양언기 사명유정 소요태능 정관일선 중관해안 등 5대 문도를 비롯한 1000여명의 제자들이 부휴 선수스님의 문도들과 더불어 하나의 종풍을 지닌 조선불교의 승단을 이루게 하였고 지금까지 불교계를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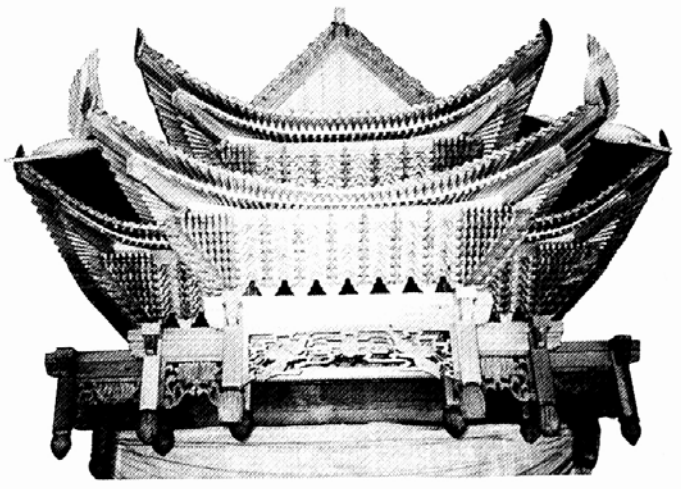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요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누리공방



불단 · 닫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7073(공방)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날마다 '마음의 인등' 켜세요"

중생구제도 착이 아닌지

문 어떤 것에든 착을 갖지 말라 하셨는데 착이 없이 어떻게 불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불도를 이루는 것도 착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과 많은 스님들이 득도를 하였는데, 득도를 하신 분들은 공할 것인데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착이 아닌지요. 그리고 득도를 해도 다시 윤회의 세상에 빠져들 수 있는지요. 절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마음 공부를 실천하지 않고 이렇게 사량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스님의 대자대비하신 도량으로 미혹한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답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건져야지 하고 내가 한다는 생각이 붙는 것하고 '내가' 라는 것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본래 아무 붙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 다 맡겨놓고 하는 사람의 일은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생각으로 지어서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발 많은 지네나 돈 벌레 같은 것을 보면 아주 다리가 많죠. 그런데 그것이 걸리지 않고 아주 잘 가다가도 '너는 다리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걸리지도 않고 잘 가니?' 그러니까

> 인연에 휘말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뿐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은 잘 가다가도 괜히 그렇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까다롭고 어렵고 그렇다' 그러시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유유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주인공 죽는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더하고 덜함도 없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하고 믿고 내가 지금 움쭉거리는 거,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또 회사에 나가서 직원을 부리든 직원으로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있으니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모두 나한테 비비는 거고 부딪치는 건데, 아니, 내가 나한테 '어, 모든 것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나한테서 해결해야지. 주처에서 다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인공, 당신밖에 없다!' 그러든지, '한마음, 너밖에 없다!' 이러든지 그래도 좋아요. 또 '영원한 친구, 너밖에 없어!' 이래도 좋고 '아버지' 해도 좋아요. 그것은 이름일 뿐이니까. 모든 거를 거기에다가 맡기고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고 실험을 좀 해 보시고 말을 하세요.

오늘부터 그렇게만 진실하게 해나가신다면 생활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우환이 없어지고, 병고가 없어지고, 병이 나더라도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관세음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 그것은 벌써 찰나 찰나에 바꿔지는, 활용이 아니라 중용으로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살기 좋고 그런지 몰라요.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즐겁게 삶을 사는데 왜 즐겁게 살수가 없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은 갈림길에서 계신 거예요. 차원이 올라서 모든 게 내 아님이 없는 도리를 아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뜨지 못해서, 의식만 있고 보지 못하니까 차원이 낮은 데로 떨어지느냐 하는, 여러분이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한 군데다, 이거 맷돌도 중심을 따악 끼워 놓고선 모든 물건을 넣고 돌려야 그 맷돌이 이탈이 안되고 갈려 나오지, 아니, 심봉을 딱 꽂지 않고 맷돌을 굴려 보세요, 그 맷돌이 이탈되지. 그러니까 딱 중심을 세우고 '주인공, 너밖에 없어. 지금 내가 회사에서 이러 이러한 일이 있는데 너밖에 해결할 수 없잖아.' 할 때, 그렇게 믿을 때 바로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실험하고 체험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착이 붙지 않는 진정한 자비를 홀연히 깨우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연한 인연이 있나요

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연한 인연이란 게 있는 건지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천생연분이 있고, 지상연분이 있고, 전생연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나머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상연분은 그냥 우연히 지상에서 만나는 인연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인연도 있나요.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우연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님 전생에 빚진 게 있어서 그런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연이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답 여러분이 수 없는 억겁 전으로부터 진화돼서 나오면서 그래도 선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인연이 없다면 모이질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손수건을 하나 들어도 인연입니다. 이 손수건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수건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써주니깐 바로 손수건이라는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도 같이 만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철 나와서 만남인데 이 만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느냐 구덩이로 들어가느냐' 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악하게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부드럽게, 더불어 같이 내면이나 외부나 모든 것이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놓으시고, 어떠한 억울함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맡겨 놓고 '너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져 말고, 말도 부드럽게 하면서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인연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내 팔자지' 하고 체념을 하거나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이끌어주려고 하는 공부 재료구나 하고 마음을 돌려놓았을 때 그 인연과 업보가 그대로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되고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아마 조건없는 사랑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이 미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 보십시오. 체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모를 겁니다.

제사를 지낼 수 없는데

문 저희 친정은 제사를 3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몸이 많이 아프셔서 지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올케가 기독교에 다니고 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사를 지내야 하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제사 지내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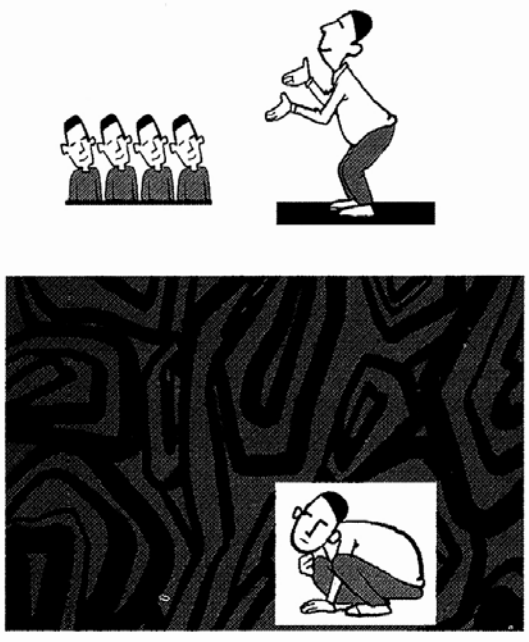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제사를 지내자니 거의 매달 지내야 하는 형편이어서 올케에게 억지로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고 참 난처합니다. 스님, 조상님께 누가 되지 않으면서 자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가르침 주시옵소서.

답 어떤 집에서는 일 년에 열 몇 번을 지내는 집도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는 맏아들은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질 않고 많든지 적든지 일년에 세 번씩이라도, 모든 조상들을 한데 합쳐서 세 번씩이라도 지내드리고 백중 때나 정월 명절에는 그대로 또 지내드린다면 누가 되지 않습니다. 찹쌀떡으로 세 둥치만 둥그렇게 해서 놓고, 과일 세 가지 나물 세 가지, 그리고 향, 초 켜놓고 청수 한 그릇을 놓는다면 아주 만점이라고 봅니다.

1배를 하더라도 한데 둥글려 지극하게 해야

아주 깨달은 분들은 그것도 저것도 없어도 되겠죠. 그건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그렇다 쳐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상당히 자손들한테도 고통을 주는 거고 또 지낼지 안 지낼지도 모르는 일이니 제사가 많은 집들은 일 년에 세 번으로 아주 매기단을 해놓고, 찹쌀로 조그마하게 떡 세 켜 해 놓고, 좀 넉넉하면 큰 걸로 하고 넉넉하지 못하면 그저 한 조각이라도 하되, 한 조각을 셋으로 나누어서 놓으면 또 되고. 그러니까 과일 세 가지, 나물 세 가지를 한데 합쳐서 놓으시고 나중에 또 그걸 식구가 잡숫게 하면 되죠. 떡도 냉장고에 넣어 뒀다 남편이나 자식들이 좀 헛헛할 때는 그걸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이고, 왜냐면 지금의 후손들이 바로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먹어주는 거는 대신 후손들이 먹어주고 정성을 들이는 까닭에 후손이 대신 먹는 거거든요. 그 정성의 마음은 바로 조상들이 다 한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러니 마음의 인등을 켜세요. 날마다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만 인생이란 게 과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스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 본래는 온 곳이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본래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있고, 이 사바 세계의 모든 근본은 인간 마음 속에 가설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생명의 근원을 말해본다면 지수화풍, 즉 말하자면 바람과 흙과 결국은 물과 한데 혼합이 되니까 온기가 생기고 그래서 생명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많은 생명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맨 나중에 출현했으니 결국은 수억 겁 광년을 거치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되어서 인간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인간이 되어서도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과거의, 즉 말하자면 전생과 전심(心), 전신(身) 이 세 가지가 한데 혼합이 돼서 또 현실에 질문하신 분이나 나나 모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지나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지금 현재에도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조건이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모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하나도 고정된 게 없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50%의 물질세계에서만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무리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은 벗어날 수 없는 도리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 세계의 50%를 맞춰서 100%를 만들려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육식(六識)을 통하여 생긴 이 의식들은 우리 인체에 간단히 쳐도 16억이라는 숫자 아닌 숫자가 나옵니다, 그 의식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또 의식이 있고, 또 의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숫자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내 한마음 하면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는 우주와 이 사바세계와 나의 내면세계의 의식들이 전부 한마음으로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내 한마음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배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선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나라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 주인공에다일체를 맡겨 놓는다면 삼계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참선입니다. 주인공에다 진정코 맡겨 놓고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수박 씨 얘기를 많이 했죠. 수박 씨는 내 안에 수박 씨가 있다고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 놓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맡겨 놓고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걸 그렇게 하면서 온갖 생활을 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좌선이다 이거죠. 앞뒤 없는 대피리처럼 안이나 바깥이나 다 어디에고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찰나찰나 돌아간다, 그러니깐 어떻게 돌아갈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니까, 앞에서나 뒤에서나,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머무르지 말라, 걸리지 말라, 이 소립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 참 좌선이다 이겁니다. 번뇌 망상을 피하지 말고 나온 자리에 다시 놓아서 녹이라고 했습니다. 용광로에 넣듯이 일체를 믿고 놓는다면 바로 그것이 열반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론으로 알려고 하는 그 마음도 그 자리에서 나왔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일어나는 생각이나 알음알이도 진정코 주인자리에서 알려주게끔 다시 되돌려 놓는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절을 시키는 이유는

문 부처님은 절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절에 다니다 보면 절을 많이 하면 좋다고 하면서 삼천 배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삼 배만 하는 거와 삼천 배를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득 어느 불자께서 부처님께 열심히, 정성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답 우주가 지금 돌아가는데 일분 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염주 돌리는 것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생각을 하느라고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니까, 그 생각을 녹이라고, 번뇌를 없애라고 모두 백팔

> 일체 믿고 놓으면 바로 그것이 열반 들어가는 지름길

배를 하니 염주를 돌리느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천배' 라고 할 때 '삼천' 하고 한번 불러 보세요. 삼천도 하나죠? '하나' 하면 하나죠? '둘' 하면 하나가 없어지죠. '셋' 하면 둘이 없어지죠. 그냥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천 배가 일 배요, 일 배가 삼천 배요. 만 배가 천 배요, 천 배가 바로 일 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삼천 배를 시키는 것도 일리가 있죠. 모두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복만 받으려고 삼천 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뭐든 잘 되려고만 하니까, 그러니 힘들게 삼천 배하고 그 대가를 받아가라는 소립니다,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삼 배밖에 못했는데, 백팔 배밖에 못했는데 하고 야단들을 하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 돈을 못 벌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이 돈을 벌어 준다 이 소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글쎄, 절을 일 배도 안 해도 허공에 꽉 찬 그 자체가 바로 둥글러서 자기 아님이 없기 때문에, 절하는 것도 모두 자기 아님이 없는데 어디다 대상을 두고 절을 합니까, 예? 그렇게 돌아가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절을 많이 해야만 좋다더라, 절을 많이 해야만 복이 온다더라, 이렇게 잘못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하더라도, 일 배를 하든 삼배를 하든 마음을, 가정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조상이든 전부 한데 둥글려 놓고 일 배를 올리더라도 지극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절을 못하게 되면 아주 지극하게 마음으로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일 배를 올리시란 말입니다. 바쁠 때는

☞ 18면으로 계속

가슴 저린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 17면에서 계속

말·뜻·행이 함께 에너지로 化해야

그렇고 바쁘지 않을 때는, 시간에 쫓기지 않을 땐 둥글려서 놓고 삼 배를 지극하게 하세요.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전의 수행자들이 몸뚱이로 많이 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법을 알라. 몸뚱이 고생을 하다가 몸뚱이 떨어지면 그 행도 떨어지느니라." 이러셨거든요. 영원한 자기를 습득을 하고 그걸 깨우쳐야지 몸뚱이로만 단련을 한다면 몸뚱이 떨어지면 그 단련하면 것도 떨어진다 이 소립니다. 송장이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다 꺼내어 쓸 수 있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눈물의 의미는

문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렀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지장보살을 세 번하고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친척집에 전화를 거니까 친척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후로 또 그런 일이 수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답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육체는 없어지고 사대로 흩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댁의 마음하고 결부가 되니까 녹아버리는 겁니다. 둘이 아니게 녹아버리는 까닭에 눈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것이 봄이 오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면 그냥그냥 녹습니다. 그러니 고드름이 녹아서 물이 떨어지듯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녹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저하면 주저하는 대로 한 발 떼어놓지 못하게 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부탁할 것은, 겸손하세요! 안다고 해서 나서지 마세요.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발을 드문드문 떼어놔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척 하고, 남이 알고 뭐 이런다고 법석을 해도 모르는 척 하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태도죠. 겸손함을 가지세요. 정히 니 앞에 일이 닥쳤을 때 진짜로 말 한마디 허 줄 수 있는 거는, 그 말이 말 한마디로 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법에 접촉이 돼야 한다고 할까요? 이거는, 즉 말과 뜻과 행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에너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로만 가서 안 되고, 에너지와 말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법에 접촉이 돼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을 한마디 누구에게 해줄 때 그 말이 법이 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찾아와서 꼭 대답을 해 달라고 합니다. 대답을 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왜?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고만 가면, 용건만 얘기하시고 자기한테 딱 놓고 믿으신다면 그게 백발백중이지만, 말의 뜻도 모르고 대답만 해 달라고 애를 쓰신다면 그거는 될 노릇이 아니겠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있어요. '아이구, 병원에서도 내버린 건데 이거는 할 수 없어. 절에서 무얼 해? 그런데 남의 소릴 들으니깐 뭐 그냥 정성들이고 그러면 된다는데.'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죽든 살든 난 당신을 믿는다. 너무 늦어서 죽더라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태세를 갖는다면 죽든 살든 뭐 결판이 나지 않겠느냔 말입니다. 일체가 다 그래요.

모든 걸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대답한 거지 저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소릴 들으셨습니까? 저 해가 그냥 비춰주고 있는데 해더러, 나 지금 방에 앉았는데 추워죽겠으니 햇빛 좀 이 방으로 들여보내서 뜨뜻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대답해 달라고 그러면 대답해 주겠습니까? 저 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도 그렇고, 스스로 눈물이 나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생각이 나는 것도 그렇고, 좋게만 생각을 하세요. 꿈은 얼토당토않게 꿨는데 좋게 그냥 생각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가 규정을 해놓은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거기다 붙이면 됩니다. 이 오묘한 마음의 법칙을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수행 아닌지요

문 저는 스님 법문을 1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공부해 오신 것처럼 유생 무생이 한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한밤중에 산에도 가보고 묘지에도 가봅니다. 또 TV를 보면서도 무심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잘못된 수행인지 아닌지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답 그렇게 하다가 허약해서 몰로 보면 잘못되는 것이고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을 하시려고 그런다면 모습으로 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가오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체를 다 한 군데에다만 놓으시고 한 군데서 나오는 줄 아셔야 됩니다. 한 구멍으로 일체를 넣고, 한 구멍에서 일체가 들고난다는 거를 아시면, 모두가 한 군데서 나오고 한 군데로 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놈도 그놈이고, 체험을 하게 하는 놈도 그놈입니다. 결국은, 그게 아직 납득이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한 군데로만 하세요. '너만이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어,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할 수 있어.' 하고 모든 거를 그 자리에 맡기셔야 합니다. 일체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모두 말입니다. 그래야 옛날의 선지식들이 바다를 삼키고 바다를 토했노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도 알 수가 있겠죠. 토해서 중생들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귀를 띄워주고 또는 눈을 띄워주고 모든 자비를 베풀어주었다고 하는 그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가 한 군데로 나고 한 군데로 드는 것이라는 걸 진짜로 믿고 하세요.



그림 · 최주현

육신의 옷을 벗으면…

문 제가 공부하는 도중 의정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우리가 한 철 나왔다가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신령한 의식만 남는다고 하는데 그 의식은 한 점의 불씨로 분리되는 것 인지요, 아니면 한마음 바다에 그냥 있는 것 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답 꽃씨가 떨어져서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연어가 자기 몸뚱이를 또 다시 형성시켜놓고 죽듯이 자기 껍데기 한 옷을 벗으면 새 옷을 다시 입고 다시 형성이 돼서 나오듯 그렇게 한 찰나에 돌아갑니다.

알고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차원이 높으면 차원높은 끼리끼리 모이고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끼리끼리 모이고 그래서 소천세계 · 중천세계 · 대천세계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지 그 세계가 그대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네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철에 차원이 높아서 한 발을 벗어 놨다면 우리는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을 겁니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요, 자유스럽게 껄껄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자유인이시죠.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모두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라고 했고, 둘이 아닌 까닭에 여여하게, 마치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듯이 돌아가니까 즉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느 한 분 한 분을 가지고 부처라고 했던 게 아니고 여래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기를 진짜 부처로 만드실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신앙적 편견 없애려면

문 스님, 저희 집은 오래 전부터 성당에 다녔습니다. 저는 마음에 닿지 않아서 잘 가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굉장히 열성적이십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몸이 편찮으신데 다른 신앙인들이 편견을 갖고 있듯이 불자인 저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천주님이 이름만 다를 뿐 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고 완고하셔서 마음의 문을 닫으시고 기복으로 기도만 하시는데 제가 한 마음 주인공에 관해도 이것이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어머니 병환이 차도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 한생각으로 아량을 베풀면 나으실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어머니 쪽에서 생각으로 그렇게 나와 상대로 둘로 보시니까 그릇이 없어서 담기지 않는 격이죠. 그러니까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아드님이 아무리 줘도 받질 않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 해외에 나갔을 때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상대를 믿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든 카톨릭교든 불교든 모두가요. 근데 불교라는 것이 원래 그대로가 다 진리거든요. 불은 일체 생명을 불(佛)이라고 하고, 일체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돌아가고 말과 말이 통해서 돌아가고 통신과 뜻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교(敎)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떠한 종교를 불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안에 전체가, 불교가 진리니까 불교 안에 전체의 종교가 있는 거지, 불교가 어디 따로 있어서 머리 깎은 사람들만 믿고 공부하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더러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몸이 나무라면 주처의 뿌리는 어머니 마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마음 속의 그 주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바깥으로 찾지 마세요. 주님이 나한테 있다. 내 안의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서 낫게 할 수 있으니 안으로 찾으세요.' 라는 것만 일러드리세요. 그러면 대번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체가 한곳으로 들고 또 한곳에서 나오는 것

소천 · 중천 · 대천세계 우리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卍 대창 목재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1자 ~ 2자까지

준양목 / 적송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전화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이종봉 합장 H·P 019)327-0374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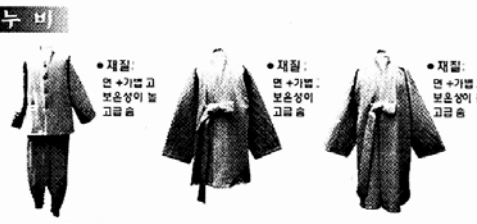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1.중방 · 바지 조끼 ●재질: 모직(울50 %) w160,000
2.중방 · 바지 ●재질 모직(울50 %) w160,000
3.두루막 ●재질: 모직(울50 %) w140,000

누 비



4.중방 · 바지 : w200,000 조끼 : w60,000 ●재질: 면 +가볍고 보온성이 높고 고급 솜
5.중방 · 바지 : w220,000 ●재질: 면 +가볍고 보온성이 고급 솜
6.두루막 : w160,000 ●재질: 면 +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 솜

잔누비 / 조끼·움베



7.셔츠 : w60,000 바지 : w70,000 ●재질: 면 +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 솜으로 흠뻑이게 누볐음
8.조끼 + 움베 w60,000 ●재질: 면이고 질적 적인 고급 재질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횡단)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생식마을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분당 차병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남원 소림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을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깨끗한 재료를 이용해 고을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분당 차병원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을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생식의 1석 6조
1.체질개선 2.건강증진 3.피로회복] (생식요법) 4.완전한 다이어트 5.완전식사 6.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엽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도 좋습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1개월분(40g × 60포)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19만명의 고객이 체험으로 전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생식 완료 현미, 메추콩, 적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대맥, 밀, 당근, 우엉, 신선초, 케일, 참프리, 감잎, 홍삼, 강, 호박, 솔잎, 다시마, 칡, 구기자, 연근, 프로바보,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효박액기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전국지점 및 대리점 모집중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양평 명달리 주민 '생태 산촌 만들기' 개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뽑혀



◇명달리 주민들은 개발보다는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마을을 살리는 길이라는 인식하에 '서종면 녹색산촌 추진위원회'를 결성, 생태산촌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공원 유치보다 환경보호마을 만들자"
폐교 명달분교를 '환경교육센터'로
"조건 비슷 강원도 양구로 확산 계획"

옛 어른들은 물 한 바가지라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다. 뜨거운 물일 때는 꼭 식혀서 버렸다. 미물이라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몸에 베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관습이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 생활문화의 전통을 고스란히 되살리려는 노력이 온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서울에서 한 시간 반 거리의 수도권 지역이지만 자연환경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시상태다. 중미산 소유 계곡의 산길에는 잣나무 숲이 울창하고 길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은 사철 마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속속 떠나기 시작했다. 명달분교가 폐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남아 있는 주민들 사이에는 삶의 터전에 대한 절박함이 일기 시작했다. 궁여지책으로 명달리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생태산촌만들기모임(회장 양병이)'의 김성일(서울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를 비롯한 생태학자들은 명달리의 자연환경에 주목하고 군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공원 유치보다 잘 보존된 환경을 이용해 마을을 활성화시켜볼 것"을 권유했다. 친환경적인 주민자립형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2000년 여름 명달리의 '생태산촌만들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자연을 보존해야만 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김성일 교수와 김재현(건국대 산림환경과학) 교수 등 환경전문가들의 설득과 거듭된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마을 주민들이 '서종면 녹색산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생태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게 됐다. 이제 주민들은 마을 산의 산림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체험학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폐교된 명달분교를 '산촌환경교육센터'로 꾸리는 문제까지도 마을 회의에서 이야기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명달리는 지난달 9일 환경부가 지정한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풍부한 임산자원과 원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장수하늘소와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결성해 환경보호 운동을 전개하는 뜻을 높이 산 것이다.

지금 명달리에선 마을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발을 주민회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과 마을 부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사업, 마을에 오수정화시설을 들이는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유기농산물 생산과 산촌체험 프로그램 등의 수익사업도 준비 중이다. 생태산촌만들기 모임은 주민들의 땀으로 일군 이 생태마을을 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명달리에서 진행되는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2004년.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현 교수는 "명달리 녹색마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강원도 양구 등 자연조건이 비슷한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꼭 일본사죄 받고 말겠다"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11년간 절규

13일 오전,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김순덕(82) 할머니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한복을 꺼내 곱게 차려입었고, 강일출(75) 할머니는 연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할머니들이 찾아갈 곳은 500회 수요집회가 열리는 일본대사관 앞.

일대사관 앞 500회 수요집회

"옷차림 하나라도 단정하게 해야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여온 수요집회가 13일 500회를 맞았다. 할머니들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명예대표 윤정옥, 이하 정대협)와 함께 92년 1월 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첫 시위를 한 이후 11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이다. 95년 고베 대지진 때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단 한차례 쉰 것을 빼면 할머니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시위를 거르지 않았다. 처음 시위를 시작할 때 얼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던 할머니들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이날 집회에는 나눔의 집 할머니 다섯 명을 비롯해 김포와 대구에서 올라온 10명의 할머니들이 참가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과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철폐'를 요구했다.

현재 전국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142명이다. 고령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소원은 '죽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과를 듣는 것'이다.



◇13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500회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이 진입로를 차단해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대식을 가진 '할머니 지킴이' 대원들과 합류하는 것으로 시위가 끝나자 김은례(77) 할머니는 "죽는 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일"이라며 발걸음을 돌렸다.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처님이 안겨 준 행복 ㊦



그림 · 이준석

한달 하안거 후 건강 크게 호전
문학의 길 걷게… 여생 부처님 품에

구인사에 도착하여 4박 5일간의 기도 접수를 마쳤다. 그리고는 대법당과 적멸보궁과 삼보당에 인사를 올린 후 4층 기도실에서 수행에 들었다. 그곳은 약 천여 명이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방이었다. 나도 많은 사람들 틈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 을 되뇌었다.

그렇게 며칠동안 기도를 하다보니 차츰 머리 아픈 것이 줄어들었다. 나는 마음 다잡고 밤에는 기도에 열중하고 낮에는 밭일을 하며 설거지에도 재미를 붙였다. 그러니 마음도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 4박 5일의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무엇인가 큼직한 것을 가슴속에 안고 돌아오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구인사를 떠날 때는 여러 신도님들과 함께 행복감에 젖었으며 그로부터 내 마음은 불심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옥돌부처님을 모시는 일에 동참한 후 한 달간의 하안거도 탈 없이 끝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달간의 동안거를 마치기 사흘 전, 기도를 하던 새벽 2시경쯤 나의 코에서 한약 냄새와 쑥 냄새가 진하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날이 밝자 내 몸이 한결 가벼워지며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 기분이 좋아지니 마비되는 증상이 없어졌음은 물론이고, 침침하던 눈도 또 멀어진 귀도 확 뚫리는 것을 확연히 느꼈다. 참으로 놀라웠다. 나는 새삼 관세음보살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부처님은 나의 고민과 고통을 없애주시고, 내가 지혜를 원할 때 지혜를 안겨주셨다. 어디 그뿐인가? 부처님은 내게 크나큰 선물을 안겨주셨다. 내게 대룡사 법전을 안겨주셨고, 마침내 점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 그리고 부처님은 내 주변에 얽히고설켜 복잡했던 금전거래 소송에서 10여명의 거짓 증언을 물리치고 승소하게 해주셨으며,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짓게 해주셨다.

부처님은 또 나에게 문학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셨다. 월간 한맥문학의 신인문학상에 당선되고, 그에 힘입어 시집 '마흔 네 살의 산하'를 출간할 수 있었던 것도 짚어보면 다 부처님의 은덕임을 새삼 깨닫는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이제 나는 오직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찾는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분을 위한 기도가 되었으며, 그 어떤 원을 세워 기도를 하면 원하는 답이 얻어지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역시 좋은 결과를 낳았다.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나는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 이제는 무슨 일이든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무리는 무리를 잉태하고 또 실패할 확률도 높다. 모든 행동을 절제하며 살아갈 것이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안정된 생활과 종교생활을 하게 된 이 행복을 오래오래 감싸 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나를 닮은 분들에게 포교하며 살아갈 것이다.(끝)

김숙희(경남 진해시 용원동)

세상에! 이렇게 좋은 종무관리가 공짜라니..!

상황 종무 관리 프로그램 무료 보급!
모바일통신료 20만원을 내시면 획기적인 종무관리가 됩니다.

상황모바일버전 이래서 좋다!

- 문자메세지 발송 – 한번에 수천명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 E-mail 발송 – 법문 · 안내문 등 E-mail 발송 가능
- 음성 · 음악 · 벨소리 전송 – 모닝콜 기능
- 기존 데이타 자동 변환
- 각종 인쇄물 글자 크기 조절 가능
- 실시간 불교뉴스, 각종단 게시판 열람
- 관리비 없이 자동 업그레이드
- 사찰과 신도가정의 인터넷 네트워크 형성

타 종무관리 프로그램과의 비교

구 분	상황종무관리	G	D	K
가 격	무 료	320만원	150만원	무 료
관 리 비	무 료	2만원/월	3만원/월	20만원/교육비
업그레이드	무 료	유 료	유 료	
인터넷기능	불교뉴스, 정보 등	없 음	없 음	없 음
문자메세지	30원/건당	기능없음	기능없음	기능없음



상황 종무관리 설치 방법

전화주문 : 02)722-4162(현대불교신문사)
↓
통신료 20만원 선납금 납입 : 국민은행 006-01-0773-240 (현대불교신문사)
↓
우편으로 CD받기
↓
안내문따라 설치
↓
인증받기 02)365-5933(지우커뮤니케이션)
↓
기존의 D/B 자동 이전

■ 무료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 기술개발 : 지우커뮤니케이션 02)365-5933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㉜







• 사명수인법 익히기 •

1. 손은 단전에 놓고 가부좌를 하고 앉는다.
2. 팔꿈치를 올리고 사명 수인법을 취하면서 정신을 집중하여 천천히 손을 올린다.
3. 다시 단전을 향해 손을 아래로 천천히 내린다.
4. 심장 부근으로 손을 가져와 단전을 이완시키며 '이' 소리를 낸다.

정신 집중되고

폐활량 늘리는 효과

5. 다시 '뭐' 소리를 내며 손을 왼쪽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심장 부근으로 가져온다.
6. 심장부근에서 앞으로 손을 내밀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폈다가 다시 손을 단전으로 가져온다.
7. 단전에 놓은 손을 위로 가져갔다가 '꼬' 소리를 내며 심장으로 가져온다. 정신집중과 폐활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춘곤증

춘곤증은 봄철 환경변화로, 생체리듬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만성적인 피로감, 졸음, 식욕부진, 소화불량, 두통과 현기증은 춘곤증의 대표적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당한 휴식과 운동. 하지만 음식물을 이용한 몇 가지 대응법도 있다.

우선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섭취는 춘곤증 극복에 좋다. 특히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거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요즘 봄나물이 식탁에 풍성하게 오르는데 이중 풋과늘, 쑥, 원추리, 들나물, 취나물, 도라지, 두릅, 더덕, 달래 등은 입맛을 돋아주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녹차, 모과차, 당귀차, 생강차, 계피차 등도 비타민B · C가 많아 피로회

미네랄 풍부 풋마늘 · 쑥 등 좋아

복과 체내의 독소배출을 원활하게 해준다. 반면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잠시 나른함을 사라지게 하지만, 오히려 몸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위해서는 흰쌀밥보다 현미에 보리, 콩을 넣은 잡곡밥을 먹는 게 낫다.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위해 생선, 콩류를 먹는 것이 좋고, 가급적 기름진 육류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양파 반쪽을 썰어 칼집을 내 머리맡에 놓아두거나, 솜베개를 메밀베개로 바꾸는 것은 숙면에 좋다. 또한 3~5분 정도 사우나를 한 후 5~6회 냉온욕을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숙면에 들게 해 준다. 점심식사 후 10~20분간 잠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춘곤증 극복을 위해 권할 만하다.

花信 잰걸음…가자! 꽃피는 山寺로



◇3월중순부터 4월초에 걸쳐 전국 산과 들은 꽃대궐을 이룬다. 사진은 노란 산수유가 어우러진 내소사 경내.

남도로부터 꽃물이 번져오고 있다. 동백꽃 빨간 물은 남해 바다를 붉게 물든인지 오래고, 매화꽃도 차츰 북쪽으로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3월중순부터 4월초에 걸쳐서는 산수유와 벚꽃이 전국의 산과 들을 꽃구름으로 뒤덮을 것이다. 지금 전국에서는 꽃축제가 한창이다.

가자! 산사와 봄꽃이 어루어진 들로 산으로.

동백꽃

남쪽바다 거문도, 오동도, 지심도 일대는 동백군락지다. 충남 서천의 동백정 일대도 사람들이 동백을 보기 위해 몰려오는 곳. 현재 거문도 동백은 이미 졌고, 오동도와 지심도는 23일까지 절정을 이룬다. 서천 동백정도 지금 피기 시작해 절정은 3월말~4월초로 예상하고 있다. 바로 이 기간 '동백 축제'가 열린다.

●거문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수월산 등 섬일대에 수백년생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삼산면사무소: (061)690-2607. ▷찾아가는길: 호남고속도로 순천IC-17번국도-여수항 쾌속선 이용. ▷인근 사찰: 향일암과 흥국사가 있다.

●지심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섬을 뒤덮어 '동백섬'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일운면사무소:(055)639-3622. ▷찾아가는길: 남해고속도로-서마산 IC(14번국도)-고성~통영~장승포행 여객선 이용.

●동백정= 충남 서천군 서면. 아랍드리 동백이 우거진 바닷가 언덕 위에 있는 정자.

▷동백정 관리사무소: (041)950-2466. ▷찾아가는길: 경부고속도로 천안IC(21번국도)-예산-홍성-보령-서천. ▷인근사찰: 무량사가 있다.

☞선운사 동백은 3월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4월말까지 절정을 이룬다.

매화꽃

섬진강변 백운산 자락의 매실단지는 벌써 꽃동산을 이뤘다. 매화잔치는 전남 광양시 다압면 섬진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청매실 농원에서 25일까지 절정을 이룬다. 이 농원에 가면 50년동안 청매실농원을 일군 홍쌍리 여사의 강연을 듣고, 남도의 봄냄새가 물씬 풍기는 봄나물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매실원액, 매실 장아찌 등 매실로 만든 갖가지 특산품도 살 수 있다. 6회째를 맞이한 광양매화축제에서는 '매화꽃길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매화 마라톤대회' '매실시음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광양매화축제(www.maehwa21.co.kr)= 23일까지 청매실농원(061-772-4066)등지에서 열린다.

▷찾아가는길: 호남고속도로 익산IC(799지방도)-봉동-17번국도-남원 19번국도-구례19번국도-861번 지방도(신원리 방향). ▷인근사찰: 쌍계사와 칠불사, 연곡사 등이 있다.

산수유꽃

지리산 만복대와 노고단이 이룬 계곡의 전남 구례 상위 월계마을과 화엄사 입구는 산수유꽃이 지천으로 피고지는 산수유 마을이다. 국내 최대의 산수유 단지인 상위 마을을 걷노라면 노란 꽃구름 속에 파묻힌 별천지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24일까지 열리는 산수유 축제에서는 '산수유꽃 스케치 대회' '녹차 시음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주말에만 시간이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24일까지 철도청에서 운행하는 봄꽃관광 열차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오전 8시 서울역을 출발해 임실역을 거쳐 구례에서 내리면 된다.

●산수유꽃 축제= 24일 지리산 온천관광지 일대.

▷구례군청: (061)780-2496. ▷찾아가는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17번국도-임실-남원 19번국도-밤재터널-상위마을. ▷인근사찰: 화엄사와 천은사가 있다. 또 내소사 산수유꽃도 유명하다.

벚꽃

한반도에서 화신이 가장 먼저 찾아 온다는 진해. 16만 그루의 벚꽃이 활짝 피고, 수양버들 사이로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리며 터널을 만들어 장관을 이룬다. 진해군항제는 올해부터 매년 4월 1~10일에 개최한다.

▷진해시청 관광계: (055)548-2043, 축제준비위 (055)546-4310. ▷찾아가는길: 경부고속도로 대구~구마고속도로-마산-창원-진해

☞화개장터에서 쌍계사 들어가는 입구의 십리 벚꽃길과 경주 보문단지에서도 3월말에서 4월초면 흐드러진 벚꽃을 즐길 수 있다.

선운사 등 3월 중순~4월 말 동백꽃 절정
광양매화축제 다양… 주변엔 쌍계 · 연곡사
화엄사 입구 산수유 만개… 봄꽃열차 편리

불교대중음악 시대 '성큼'

김민종 등 불자가수 등 음반 '인연' 발매

불교음악과 대중가요가 만나면 어떤 음악이 나올까. 아마도 새로운 퓨전장르가 탄생될 것 같다. 이른바 '불교대중음악(CBM, Contemporary Buddhist Music)'.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이 함께 부르고 느낄 수 있는 불교음악이란 뜻이다.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 장르의 음악이 불자 가수들에 의해 국내 처음으로 음반화됐다. '인연'이라는 제목의 이 음반은 불교음악과 대중가요가 섞인 새로운 음악으로 김민종, 김홍국, 이은하, 조관우 등 불자이거나 집안에서 불교를 믿는 이들이 참여했다. 또 비록 종교는 갖고 있지 않지만 신세대 인기 가수인 前 젝스키스 멤버 은지원과 이재진도 함께 뜻을 모아 음성공양을 했다.

이 음반에는 김민종의 '인연'을 비롯해 이화수의 '연꽃세상', 이재진의 '어머니', 조관우의 '사랑했으므로', 은지원의 '이제' 등 불교와 맥이 닿는 가요들이 담겨있다. 여기에 한마음선원 합창단과 봉은사 합창단, 관음사 합창단, 법화사 합창단 등 4개 사찰 합창단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등 대중적인 찬불가를 불렀다. 이렇게 창작곡과 기존곡들을 합해 모두 13곡이 수록돼 있다. 음악을 들으면 기존 찬불가요 음반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인기가수들이 불러서인지 아니면 대중적인 기교를 가미해서인지 음악을 듣는 재미가 색다르다. '인연'과 '일주' 등 발라드 풍의 노래에서는 마음이 차분해지며 가사의 내용을 곱씹어 보게 한다. '연꽃세상'과 같이 약간 빠른 리듬의 노래에서는 환희심이 생긴다.



'연꽃세상' '어머니' 불음가요 수록
한마음선원 합창단 등 찬불 합창

이번 음반은 김민종씨의 前 매니저이며 서울음반 등 국내 유수의 음반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주니기획 송성준 사장의 신심에서부터 비롯됐다. 송성준 사장은 "3년전부터 일반대중들이 접하기 힘든 찬불가를 대중속으로 쉽게 융화시키고 개신교의 캐롤송과 같이 불교의 부처님오신날에도 의미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며 "다양한 연령층들이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불교대중음악의 음반을 5개 정도 시리즈로 발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3453-3593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디스크,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61)772-4109
061)772-5401
011)9302-1618

포교원 안내
- 위치 : 남원시내 광화루 1000m 지점
- 부지 : 대지 161평 건물 25평
- 현시세 평당 40만원 절충가능 불사 할 수있는 도량

063)634-1592
011)9646-1592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써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망 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100만원

011)9770-1581

사찰 안내(급)
- 위치 : 경기도 합천군 쌍책면
- 대지 : 78평
- 건물 : 법당, 요사채(35평)
- 뒤산은 울창한 대나무 숲
- 가액 : 2500만원

011)513-2745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580평 법당 : 15평
- 삼성각 : 4평(조립식)
- 요사채 : 35평(현대식)
- 가액 : 9천 5백만원

011)9704-2558
043)832-4785

토굴 안내
- 위치 : 대전 유성터미널 2분거리
- 평수 : 재지 157평 건평 5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그린벨트 해제 예정 지구
- 주위 사찰 : 자광사, 광수사

042)823-1600
016)9562-2600

역사가 깊은 사찰매입
- 위치 : 김천 이남 지역
- 가액 : 1억미만
- 사찰을 스님과 함께 운영하실 신심깊을 공양주보살님 구함

016)811-6787

임야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남후면 중앙고속도로 남안동 IC 부근

2180평, 총 1500만원
054)855-6461
011)522-1122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수원에서 30분거리)
- 대지 : 220평, 법당 23평
- 요사채 : 60평, 산신각 4평
- 답사 후 절충

서해안 고속도로 근교(교통편리최적)
011)226-28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 부지 : 1,100여평
- 법당 : 10평
- 요사 : 22평
- 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016)635-4569

서울 근교 경관수려한 광릉내 사찰
임대 보증금 1천만원 월 150만원
02)525-894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수산스님의 기체험 기치료 역학상담
02)3444-4376
www.bulljichon.com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제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수강생 모집
범음 범패 및 각종의식 바라춤, 나비춤, 사물 배우실 분 연락바랍니다
017)550-6581

각종의식, 불공 기타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오참법수행
엄장소멸로 청정한 자성을 몸, 영기로 인해 난치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병시식 영가천도로 완치 자신 함.
※ 비른 수행 설법강좌
- 진정한 수행자의 길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0
호동골토굴 017)859-1389

평생 함께 사실 스님을모십니다. 행자스님도 모십니다
▷ 천안영락사
041)584-6675
011)289-1635

포교사, 법사 자격시험
▷ 전형일자 : 원서 접수 후 개별통지
▷ 접수일자 : 매월 30일까지(우편가능)
▷ 응시자격 : 포교사 분야, 법사 분야
▷ 시험장소 : 현대 교학대학원 법회실
▷ 검정방법 : 서류전형, 논술과 면접
▷ 특전 : (1) 본원의 임장자격 부여
(2) 불교문화 신문사 포교
(3) 현대 교학 대학원 포교
법사권장해 편입하여 수료증 받을 수 있음
▷ 접수처 : 서울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대표전화 011) 412-8040
한국 불교 지도자 연합회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활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40~50세 금호동
02)2234-331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천안 호두마을 위빠사나수행원
※ 급여등은 상담 바랍니다.
041)567-9374
041)567-2842
031)713-2842
선병옥
011)204-6768

무보시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 경기지역에 운영이 어려운 사찰(보살절 노장스님 절)의 고사 · 천도재 · 각 불공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2)943-9942
913-6668
011)9115-994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원주)
033)734-6789

행자비구스님 모십니다
▷ 충북 괴산
043)832-4624
011)606-84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해발 600M 높은곳에 위치한 사찰
054)535-0005
011)803-3689

행자 모심
(타종단 스님 조계종으로 계종 환영)
▷ 45세 미만 고졸이상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지원
02)917-3363

스 님
· 신용카드가 필요하십니까?
부다피아하나카드 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부다피아하나카드 발급 대상 스님, 종무원
• 문의전화 : 02)6678-1115~6
현대불교 부다피아 카드 사업단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인연을 바랍니다
▷ 경기도 가평
031)585-1502

비구니 스님 또는 신심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40대~50대 초반)
당사는 운영은 건실하나 스님(비구)이 연로로 오시는 분에게 일체 운영을 위임 함
(가능하면 포교나 동양철학에 뜻이 있는 분)
충남 예산
041)337-6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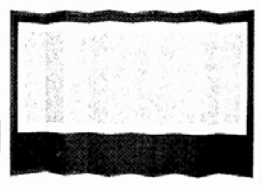
부처의길(修行의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願力있는 미혼여성 한분을 道伴으로 모십니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번지
능인선원(무문관)
018)415-0086

비구니부전스님이나 행자스님기도 하실 분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주 원성사 비구니도량
054)746-7025
011)9798-846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불심이 돈독한
40세~60세의 공양주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구례 화엄사
061)782-0016

기도스님 출가 행자 모십니다
031)444-5935~6

제주 금강미륵사
(관광협회등록사찰)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최근 제주의 명당 무릉땅에 창건된 미륵사 입니다. (대지천평하신요사채)
소원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한국,일본,중국 등) 많은 불자님들의 참배를 바랍니다
※ 열린 법당, 노천법당, 관광사찰
금강소원미륵사 주지 합장
011)9089-3538

금강경 병풍보급안내
기도많이 하신 스님께서 쓰신
* 순수 경면주사 영인본 10폭
* 원하시는 분에는 표구전의 글씨상태로 보급합니다.
문의전화
031)257-3565
011)213-1514

* 형식 : 10폭 날개병풍
* 폭 10자 * 높이 5자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b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女)사찰 사무원 구함
신심있는 여성불자 초보자도 가능함
041)673-3222
041)673-1888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생모집
교육내용(불전의식)
♦일용의식(도량석 · 종송 · 예경 · 각단예불)
♦상용의식(불경 · 천도재 · 시식)
♦제반의식(점안 · 이운 · 방생 · 다비시다림)
※범패 · 작법도 병행해서 교육함
♦교육기간 : 6개월(속성반)
♦교육일정 : 매주 수 · 목요일(오후 5 · 7시)
☎ 02)921-3425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

신심있는 공양주 구함
▷ 40~60세 울산
052)288-4520
011)860-8793

서울포교당 운영 하실 분
011)221-3186

♣ 보 리 수 ♣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수액시트의 배독요법
병을 고치려면 먼저 독을 빼라
『발바닥에 수독과 노폐물을 빼니 놀랄만한 효과』

무릎통, 어깨통, 요통, 류머티스, 각종 관절염, 통풍, 간염, 신장병, 위염, 천식, 감기, 불면, 당성피로, 심한가려움증, 비만, 고혈압 노장래, 치통, 암의 후유증, 냉증 등 80여 질병
• 실제 배출되는 노폐물은 확인 된다
• 병원의사도 인정하는 배독요법
• 빌바닥과 환부에 붙인다
한국목탄연구소 소장 강재윤 저
10,000을 보내면 백과 체험시트 3일분 보냄
한빛은행 114-07-124799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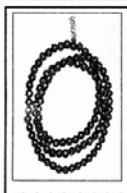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광역시 시내 (지하철역 200m)
• 대 지 : 110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 30평
• 양도가 : 3억 2천
• 역사 오래된 도심 사찰 임
• 위 치 : 춘천시내
• 부 지 : 2만 5천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양도가 : 5억
• 산새 및 계곡이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진주 20분거리)
• 임야 : 5,000평, 종교부지 8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주지실(황토방 30평)
• 가액 : 3억 2천만원
• 특징 : 경치수려, 기도도량 적합
011)804-856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양정 4거리
• 평수 : 25평
• 특징 : 배란다, 옥상 사용가능
• 가액 : 2,000만원에 월 20만원
011)550-4425
2시 이후 전화가능
스님 건강 관계로 보살 처사 환영
즉시 법회 가능

포교당 안내
• 안양시내 2층
• 평수 53평
• 법당 주방 방1개
• 보증금 17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9135-8229

포교원 양도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사거리에서 5분 도심 포교의 중심
• 보증금 25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집기물 : 부처님탱화,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TV, 경장, 시설일체 제공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1)9937-0108


벼락맞은 벽조목 염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 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단주,인감도장등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서험합격,결혼성취,부부화합,사업번창,전강쾌차,매매,사고예방,취업,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주십시요.
부처글 지장암 054)383-8553 · 011)9585-4908
염주 大 12만원,中 6만원 단주 6만원, 인감 5만원
농협703088-52-037905 이만택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법당 : 22평
• 요사 : 5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부산 • 법당 : 30평
• 요사 : 75평(기와,단허필)
• 부지 : 548평 • 가액 : 8억 5천
대출 3억 가능, 시내에 있으며 경내 노송이 어우러져 산사냄새가 물씬 풍기는 운치있는 사찰 임
• 위치 : 오산
• 법당 : 30평
• 요사 : 7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4억
※ 전국사찰, 포교당다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인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정사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근교
• 대지 밭 합 600평 이상
• 신축한옥 30평 큰창고 2동
• 사철 맑은 계곡과 좋은 교통 및 경관
• 가액 : 8500만원
054)337-5156
011)9857-5156
박청산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 대지 : 347평(20년 전통)
• 건물 : 법당 40평 방3개 사무실 산신각 주차장 20평
• 특징 : 팔공산 갓바위 대불 모셔져 있음. 바다가 내려다 보임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524-808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 3동 부근
• 건물 : 법당 2층 (4평) 방 3개 삼존불(동)
• 교통 : 부산 정보대학 100M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5만원 권리금 7,000만원
055)353-6209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천구 신정동 신정역 2분거리
• 평수 : 40평
• 보증금 1,000만원
• 월 47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2)2601-7759

전화요금 절반
시외전화 55%할인!
시외전화(1분)87 → 39원(55%)
휴대폰에 걸때(10초)19 → 14원(26%)
캐나다 (1분)1488 → 97원(94%)
통신비 절약방법도 財테크!
MTT 월드폰 02)424-9427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근교 백두대간 산간오지(700고지) 양지전망 좋은
• 상태 : 전기 전화 없음 사륜 구동차 진입 가능 집지을 통나무 많이 있음
• 평수 : 밭 2630평 • 대지 : 104평
• 가액 : 3300만원
054)637-8354/011)9542-2537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13-1
• 부지 : 약 10000평 이상
• 신축 대웅전 20평, 요사채 1
• 실 2억 7천, 가액 1억 7천 전세도 가함
亂世最吉詳之地
061)867-2878

신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지리산)
• 부지 605평, 황토 한옥 32평, 요사 9평 자연석 탑 둘레 25m, 연못, 남향 뒷산 5200평 매입 가능
• 가액 : 대출 5000만원에 현금 9천만원 공사비용 1억 9천만원
• 토굴터 2583평 중 대지 100평
• 가액 2천만원
055)963-496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
• 건물 : 3층건물중 2층(30평)
• 법당, 방2, 주방, 사워실, 베란다
• 삼존불, 상단후불탱화, 신중탱화, 220관음소불, 220지장소불
• 에어컨, 도시가스난방, 물기일체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900만원
• 스님사정으로 급 안내
02)426-2182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동령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터어 아주 좋음
• 가액 : 4천 5백(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남기읍시내
• 조경경관 양호
• 사정상 급매
• 가액 : 4천 5백만원
011)9801-3431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 부지 : 108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억 2천(산 아래)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경남 사찰(급)안내
• 부지 : 약 3천평 • 법당 : 27평
• 요사채 : 50평 • 주지실 : 12평
• 삼성각 : 12평(목조)
• 특징 : 좌청룡 우백호가 두루 좌고 소나무가 우거지고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보임
• 주차장 : 200평 대형차량진입가능
• 가액 : 4억 5천 ※ 불사할 것 많음
017)844-9448
016)207-560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한강이 흐르는 나루터
•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120평 대법당
• 방 4개 샤워 주차장 완비
• 보증금 3천만원 70만원
• 운영할 분 연락
02)2201-0796
017)390-090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덕천 전철역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건물 : 60평(3층) 방 4개 삼존불, 지장보살님 후불탱화, 신중, 지장탱화, 산신탱화
• 시설비 : 2천 5백만원
• 보증금 : 1천 5백(월 50만원)
055)386-7463
016)355-4264

암자 인수하실 분
• 요사채, 돌탑, 연못(신축) 완비
• 위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소재지
• 대구 김천 구미 외간 중간 지점
• 야산 5000여평 사용 가능
• 320평 총 8천만원
• 창건주 직접
017)813-9126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 부지 : 임야 7만평 (절터사용 1만평)
• 가액 : 평당 3천원 (절충가능)
• 특징 : 산수 수려하고, 냇가가 있어 전망좋은곳 임
011)9370-2629
(실 소유자 연락처임)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 4동(시내소재)
• 건물 3층 법당 (46평)
• 기존시설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칠성부처님, 문수원불 52불 관세음보살원불 30불, 대형에어컨
• 요사채 : 방 3개(주방포함)
• 가액 : 보증금 1천오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가액조정)
016)875-09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건물 :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정남향, 목재 기화, 종교시설, 등기, 방 2개, 입식 부엌
• 대지 : 88평
• 연혁 및 특징 : 40년 교통, 주차편리, 인적 부지 매입가능, 중창불사 원력 있으신 분 적합
• 가액 : 9천만원
011)879-4791
055)852-4130

포교당 안내
•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지하철) 5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43평
• 건물 : 일본식 2층, 벽이 흙벽집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집기일체 완비
011)514-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 1동
• 건물 : 4층 건물 중 2층 지장사
• 평수 : 85평
• 법당, 주지실, 종무실, 선방, 주방, 창고 1개(배란다 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 산신, 108불 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에어콘, 주지실, 법당, 주방용품 일체 보시함
• 스님 급한 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500만원 월 75만원 권리금 4,500만원 절충가능함
017)737-451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 안양
• 평수 : 206평, 110평 (두평수 사이가 약간 떨어져 있음) 아파트 주위에 있음
※ 사찰 건축지로 최적 ※ 교통 최고 보장
• 가액 : 270만원(평당)
031)469-7550
016)320-755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 7동 → 삼각로타리
• 3층 건물 중 3층(85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삼존 부처님 법당 시설 완비 (시설비 1000만원) 가액 조정 가능
011)507-7712

포교원 안내(급)
• 위치 : 김해 동상동
• 법당 : 삼존불,지장,산신,용왕,지장소불, 108불, 영가단, 후불, 흙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3개,주방,샤워실,주차장완비)
• 전세 : 3,000만원 월세 47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17)550-658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 대지 : 1,400평
• 법당 30평 요사채 60평 산신각 4평 용황당 8평
• 양도가 4억 8천
• 신축사찰 임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변두리 노포동에서 5분 거리
• 대지 250평 건평 40평
• 양도가 2억(평당 80만원)
• 특징 : 포교당 적격, 재건축 가능 주변 시세 평당 100만원 임

영남지방 전문 사찰컨설팅 (사찰 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법왕사 불교종합복지관 기공

2005년 완공 서울등 5개분원과 복지네트워크化

도심포교의 선두주자인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가 복지중심도량으로 거듭난다.

법왕사는 11일 대구시 수성구 파동 공사현장에서 '불교종합복지관' 건립 기공식을 갖고, 앞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대구 · 부산 · 서울 등의 전국 5개 분원을 묶는 '복지네트워크망'을 갖춰 명실상부한 종합복지도량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법왕사가 복지불사에 나섬으로써 현재 3개의 복지법인이 있는 대구지역 불교사회복지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게 됐다.



◇법왕사 불교종합복지관 조감도.

만불전 · 유치원 4국어 동시통역회의실 등
경북 보령에 복지종합타운 건립도 추진

2005년 완공예정인 법왕사 불교종합복지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건평 3천 평 규모. 100여 평의 만불전을 비롯해 각 층별로 전시장, 유치원, 생활복지시설, 예식장 등 각종 문화 복지 공간들이 들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자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복지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 특히 4개 국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국제불교 회의실은 그동안 지역 불교행사의 공간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등 대구지역 포교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보인다.

이와 함께 법왕사는 이미 경북 보령 지방에 50만평의 부지를 매입, 종합복지타운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불교종합복지관 건립 기공식은 유치원에서 노인복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불교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평생복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왕사는 회주 정무 스님을 비롯해 신도회장인 한나라당 이원형 국회의원 등 4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1일 기공식을 가졌고, 10일에는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기공식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포교사단 창립2돌…기념법회 · 품수식

새 포교사 308명 배출
'포교회관' 건립불사 시작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과 총무부장 원택스님, 포교부장 상운스님,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주년 기념법회 및 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했다.

이날 포교사단 김대중 단장은 기념사에서 "포교사들은 교육과 수행, 포교를 위한 포교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사이버포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군 불교진흥의 해를 맞아 군포교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우수 포교사 시상식은 서울경기지역 군포교 4팀과 강인구 포교사에게 총무원장상이 수여되는 등 모두 43개부문의 시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포교회관 건립 모연문 서명식을 열고 오는 2007년 건립을 목표로 하는 대작불사의 본격 개시를 알렸다.

한편 기념법회에 앞서 포교사단은 308명의 신규 포교사들에게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품수식도 거행했다. 2000년 3월 12일 출범한 포교사단은 현재 2천5백여명이 4백여곳의 포교현장에서 정진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포교사단은 10일 조계사에서 포교회관 건립 모연문 서명식을 가졌다. 왼쪽 4번째부터 도영스님, 상운스님, 김대중 포교사단장, 김기병 전 단장.



육군 제2훈련소 3천여명 수계

육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법사 최재필)는 10일 연무사 법당에서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을 초청,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3천여명의 훈련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지홍스님은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불퇴전의 신심으로 군생활을 하는 동안 솔선수범하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수계사로 나선 지홍스님이 불자장병의 목에 염주를 걸어주고 있는 모습.



미륵종 창종3주년기념식 봉행 의결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윤송정)은 11일 경남 진주시 불동암(주지 행인)에서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열반재일을 맞아 창종 3주년 기념식과 부처님 열반재를 봉행하기로 의결했다. 미륵종은 이날 보살계 수계식도 거행한다. 총무원장 송정스님(가운데)이 종회를 주재하고 있다.

게시판

▲'거룩한 어머니상' 대상자 추천=부산 두송복지관은 거룩한 어머니상을 제정, 수여하기 위해 대상자 추천을 받는다. 29일까지. (051)265-9471

▲어린이집 교사 모집=부산 용호복지관은 어린이집 5세반 보조교사 업무를 담당할 파트타임 교사를 모집한다. (051)628-6737

▲불교기초교리 및 해심밀경 강의=마하연 포교원은 '불교기초교리 및 해심밀경' 강좌를 연다. 동국대학교 교수 묘주 스님이 강의하며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02)523-9911

▲'한마음 가족 교실' 프로그램=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한마음 가족 교실' 아동 자아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월부터 10개월간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3~4시, 셋째주 토요일 오후 4~5시에 열린다. (02)2282-1100

▲미술치료 강사 자원봉사=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에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365-3677

▲작가와의 만남=은평구립도서관은 4월 3일 오후 3시 전원일기의 집필작가 김정수 씨와 함께 '드라마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을 연다. (02)385-1671

▲안부전화서비스 자원봉사=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들의 말벗이 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628-6737

태고종 각급기관장 인사단행



◇원법 스님



◇무공 스님



◇법선 스님



◇수열 스님

교육원장 원법 스님
포교원장 무공 스님
재경원장 법선 스님
연구원장 수열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3일 교육원장에 원법스님(前 총무원 부원장 · 대전 보은정사), 포교원장에 무공스님(前 종정사서실장 · 서울 무량사)을 각각 임명됐다. 또 재정경제원장에는 법선스님(前 총무원 재무부장 · 서울 불국사), 종승연구원장에는 수열스님(前 총무원 규정부장 · 제주 선광사), 종정홍보원장에 용복스님, 중앙복지원장에는 원봉스님(총무원 부원장 · 청주 보현사), 전통불교문예원장에 지족스님(서울 대흥사), 국제불교문화원장에 혜당스님, 고시위원장에 학성스님(부산종무원장 · 부산 대승사), 정수원장에는 지허스님(순천 선암사)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운산 총무원장이 2월 15일 화합집행부를 구성한데 이어 1개월여 동안 원로 · 중진 스님들을 두루 만나 추천받아 전문성과 화합,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확보 능력, 개혁성향 등을 고려해 인선했다는 후문이다. 각 원의 부원장은 다음과 같다.

△교육원 부원장= 수암스님(제주 금붕사) △포교원 부원장= 종운스님(서울 해원사), △재정경제원 부원장= 일운스님(부천 보리정사) △종승연구원 부원장= 만춘스님(서울 봉원사) △종정홍보원 부원장= 청봉스님(양평 용천사) △중앙복지원 부원장= 도인스님(부산 일원정사) △전통불교문예원 부원장= 구해스님(서울 봉원사) △정수원 부원장= 학현스님

이경숙 기자

목탁소리

고국부처님 모시러…

김 원 우 (취재1부 차장)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살고 있는 이영미 포교사가 한국에 왔다. 20여 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가 올해 조계종 포교사가 된 이영미 보살이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 고국 부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다.

이 포교사가 불교와 인연 맺은 지는 2년 남짓. 볼자집안에서 자란 이 포교사는 어느 날 자신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고국에서 딸을 생각하며 계속해 불공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교포 2천여 명이 살고 있는 투산 지역에 한국교회는 10여개나 있었지만 한국 절은 한군데도 없었다. 부득이 인근 태국사찰을 몇 개월 다녔으나 정서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 포교사는 남편에게 부탁, 1년 6개월 전 대지 1천여 평의 가옥을 매입 열림원이라는 절을 개원했다. 애리조나주 최초의 한국사찰이었다. 열림원에는 부처님 교리에 목말랐던 교포 30여 명과 유학생 20여명이 매주 찾아왔다.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애리조나주 주 수도인 피닉스 등에서 50여 불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고, 현지인 10여명이 매주 선수행을 하고 있다.

최근 열림원 신도들은 5월 부처님오신날 인근도시에서 찾아오는 불자들을 위해 사찰명도 새로 정하고, 한국 불상과 한국 스님을 모시자고 발원,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 이 불자들의 발원이 이뤄지도록 해보자며 한국 땅을 밟은 이 포교사. 조계사 인근 불구점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불사금이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했다.

이 포교사는 "애리조나주 불자들이 불단을 조성하고 한국부처님 모셔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후원 019-677-4139(한국), 001-1-520-579-3350(미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3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육신의 영생법

육신의 영생법은 장보승스님이 수십년간 수도 하시어 깨달으신 내용들을 서술한 신앙수기이다.

육체는 죽으면 매장하여 흙이 되거나 화장하여 한줌의 재로 변화여도 결국 흙이며 그 흙은 신체의 일부이자 지구이며 다른 식물의 거름으로 또는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활동함을 설파하시면서 육신의 영생법을 알아야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도 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기도 하셨다.

가정에서 사심구재를 지내는 내용이나 방법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생활불교의 길잡이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육체이탈 현상이나 악신을 물리치는 퇴마사로서의 경험담도 수록하였다.



● 신국판 260면 정가 1만원 ● 소포비용은 별도

● 연 락 처 : 031)532-6661
017)380-6661
● 계좌번호 : 농협 225070-51-054089 장석근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蔓蔘(黨蔘)을 드시기쉽게 달여 드립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북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현대불교사회문화원
불교지도자 아카데미
(Buddhism Leader Academy)
스피치 과정 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고,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필요한 자신감을 갖추어 대중포교에 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자신있는 화술이 필요한 스님과 포교사
◇ 교육기간 : 1개월 과정 총 12회 강의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실
◇ 개강 및 강의일정 : 5월 27일 ~ 6월 지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 강의내용 : 불교스피치 방법론, 명지도자는 명스피커, 효과적인 내용구성법, 발성 및 스피치 훈련(I), 스피치 실습 및 평가(I), 연단의 자세와 제스쳐, 음성표현의 5대원리, 유머 스피치, 유명성직자 화술분석, 불교스피치 예화 사용법, 발성 및 스피치 훈련(II), 스피치 실습 및 평가(II)
◇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현재 접수중(2002년 3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 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사무국
- 문의 : TEL : 02) 736-6940 FAX : 02) 730-1203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 동일빌딩 603호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아카데미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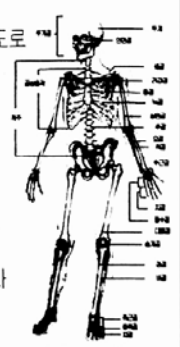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법당 재건립 발원 매일 새벽정진

5773부대 장병들 현 호국용주사 비좁고 붕괴 위험 커



◇육군 5773부대 불자들은 군법사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 법당 건립을 위한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박운범 신도회장, 법완스님, 박종남 사단장과 부인 김금례 여사.

사단장을 비롯한 간부 불자들이 군법당 건립의 원력을 세우고 매일 새벽기도 정진에 임하고 있어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당 건립을 위한 불사금이 턱없이 모자라 불자들의 후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육군 제5773부대 불자장병들은 부대 군법당인 호국용주사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는데다가 공간이 비좁아 법회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14일 법당 재건립을 위해 현 법당을 철거하고 불사를 시작했다.

사단장 적극 후원…총 85평 6월 완공예정

신도회 사재보시 · 기금 마련 바자 20회

법회 때마다 낡고 협소한 공간에서 법회를 열어야 했던 400여명의 불자 장병들은 이번 불사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60평 규모의 법당과 25평 규모의 요사 등 총 85평 규모로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불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2억 3천여만원. 군법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신도회를 중심으로 불사가 추진되고 있다.

불교신도회는 지난해 9월 불사금 마련을 위해 모연문을 배포해 모금에 나서는 한편 매일 새벽 5시 예불과 신중기도, 108배 등 정진을 시작했다. 봉은사, 대원정사 등지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바자회를 개최했으며, 옷과 김치 등을 판매해 이익금을 불사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또 회원들은 매월 월급에서 10~30만원씩 보시하고 있다.

특히 박종남 사단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 정진과 신중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월 50만원의 불사금을 희사하는 등 불교신도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1억5천여만원을 더 모금해야 하는 불교신도회는 불사금 마련을 위해 조계종 포교원과 각 종단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종남 사단장은 "군불자 장병들이 여법한 공간에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적극 후원해달라"고 말했다. 017-672-8973(박운범 중령) 후원계좌:국민은행 833-01-0131-364(예금주 용주사)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외국인용 사찰안내서

사찰구조·용어등 수록

국제포교사회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는 9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월드컵 템플스테이 지원 등 국제포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국제포교사회는 32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템플스테이 외국어 자원봉사자 2차교육이 시작되는 22일 전까지 외국인용 〈사찰안내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한국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이 책자는 한국불교의 역사, 사찰 구조 및 예절, 불교용어 및 사찰정보 등이 수록된다.

국제포교사회는 또 불교 영어 수업을 원하는 사찰 및 단체에 대한 인력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주한외교사절 초청법회와 외교관 부인 초청법회 등도 실시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할 예정이다. (02)722-2206

김재경 기자

김태복장군 4차공판 열려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된 채 진행

군 법당 건립과 관련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김태복 소장 사건에 대한 4차 재판이 14일 국방부내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재판장 남재준 중장)는 3차 재판에서 김태복 장군이 제출한 재판관 기피신청서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영오 원사(당시 불교회 부회장)에 대한 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증인의 불출석으로 취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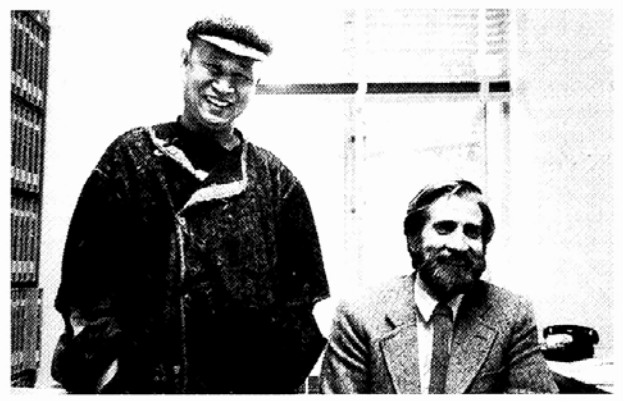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서영오 원사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는 한편 김 장군측이 추가 요청한 증인 소상섭 소령(당시 법당 재무장교)과 차원준 대위(당시 여단장 전속부관)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박봉영 기자

불교사회 네트워크

22, 23일 워크숍

불교NGO들의 연대를 추진할 불교사회네트워크 워크숍이 3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다.

경불련, 대불청, 불교여성개발원,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좋은벗들, JTS 등이 참가하는, 이번 워크숍은 불교시민운동가들이 불교NGO단체들의 연대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유신 기자



◇중광스님이 미국 불교학자 랭카스터 교수와 자리를 함께 했을 때의 모습.

중광스님 타계

기인·예술인 숱한 화제 정대스님 등 빈소 찾아

일명 '걸레스님'으로 불리어 온 중광스님이 9일 타계했다.

승속(僧俗)을 넘나든 기인이자 다재다능한 예술인으로 한평생을 살다 간 스님은 빈소와 다비장에서도 숱한 화제를 낳은 채 한 점 재로 돌아갔다.

13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스님의 다비식에는 주지 현문스님을 비롯, 태응 신허 스님등 3백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이에 앞서 서울 풍납동 중앙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해 백담사 회주 오현스님, 구룡사 정우스님, 출판인 김종규씨, 가수 이남이씨, 탤런트 강부자씨 등 평소 스님과 친분을 나누었던 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935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스님은 26세 때인 60년 통도사로 출가해 구하(九河)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77년에는 조계종 종회의원까지 지냈다. 그러나 잇단 기행과 파계로 79년 10월 승적을 박탈당한 뒤 승속을 오가며, 시 · 서 · 화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해 왔다. 국내 보다는 외국에서 인정받은 스님의 그림은 미국 뉴욕의 록펠러 재단과 샌프란시스코의 동양박물관, 대영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다. 이은자 기자

김충렬교수 추모시

중광스님의 입종 소식을 듣고 학계의 원로 김충렬 교수(고려대 명예교수)가 추모 한시를 보내왔다.

悼重光畸人(도 중광기인)
月落無痕潮寄返(월락무흔조기반)
索徽行怪聖嚴憚(색미행괴성엄탄)
與君雖交道頗難(여군수교도파리)
霞沒西天惹惋歎!(하몰서천야완탄)

중광 기인을 애도함
지는 달이 흔적을 남기던가 조수는 밀려와서 밀려가는 것/괴상한 소리 기이한 행동 성인은 이를 기탄하셨지/그대와 나 사귀기는 하였으나 서로의 길이 달라 띠악한 지 오래건만/서천의 노을 한 조각 홀연히 졌다 하니 불쌍하고 안타까움, 탄식되어 입니다

지리산 살리기 종교연대 창립

100여 사찰 · 교회 · 성당 참여, 공동대표 도법스님

지리산 인근 지역의 4대 종교인들이 7일 함양성당에서 지리산 환경보존을 위한 지리산권 종교연대(공동대표 도법스님)를 창립했다.

지난해 지리산 문정댐 건설 반대투쟁 당시 지리산 환경보존을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가져 왔던 4대 종교인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리산을 살리기 위한 종교연대를 결성 한 것.

지난해 11월 창립 준비모임을 가졌던 지리산권 종교연대에는 경남 함양군, 산청, 거창, 전북 남원시, 전남 곡성군 등 지리산 인근 지역의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에서 1백여 사찰, 교회, 성당이 참여했다. 특히 불교에서는 실상사, 겁외사, 벽송사, 금수암을 비롯 40개에 달하는 사찰이 동참해 지리산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지리산권 종교연대는 창립 모임에서 김용민 함양성당 신부를 상임대표로 추대하고 원불교 이선종 교무, 원응스님, 행본스님, 수경스님 등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등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각종 훼손과 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지리산을 환경중심적으로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 결성된 지리산권 종교연대는 앞으로 지리산의 훼손을 막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공동모색하는 한편 종교 간 갈등해소와 화해 등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대구경북 '불교복지망' 구축

40여 시설 · 단체 · 종단 법인 등 묶어

대구경북 지역에 '불교복지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등 지역복지가 활성화되고 있다.

대구경북불교사회복지기관시설연합회(회장 성웅, 이하 대경불사련)는 9일부터 이틀간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불교수련회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산재된 40여 곳의 불교사회복지 관련 개별단체, 종단법인, 개별법인, 개인법인 및 산하시설 등을 한데 묶는 '대구경북지역 불교복지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프로그램 호환, 인적 · 물적 교류 등 정보교류망을 마련한 대경불사련은 실무자 모임 정례화하고 불교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및 불교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대경불사련은 단계적으로 △불교적 마인드를 갖춘 중간관리자급의 양성 △지역성과 현장성에 근거한 '풀뿌리 불교사회복지시설 연합체' 발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우 기자

금강산 신계사서 연등법회 봉행

민족화합을 염원하는 연등법회가 금강산 신계사 터에서 열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 이하 민추본)는 5월 5일 신계사 터에서 연등법회와 연등 점등식을 봉행한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신계사에서 불자들은 통일기원발원문 낭독, 통일염원 등표 달기 등을 통해 민족화합을 기원한다.

한편 이날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해금강 등 명소 관광과 평양 모란봉교예단 공연 관람, 금강산 온천 관광도 함께 한다.(02)720-0531.

강유신 기자

사찰생태연구소 개원

10년간 108곳 사찰주변 생태계 조사



◇김재일 소장

자연생태 조사 · 연구를 통해 환경운동을 펼칠 '사찰생태연구소'가 16일 개원했다.

두레생태기행은 16일 '사찰생태연구소'를 발족하고 소장에 김재일(두레생태기행 회장)씨를 선임하는 한편, 박원규(충북대 산림학) 이병인(밀양대 환경공학) 교수 등 관계 전문가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찰생태연구소는 향후 10년 동안 전국 108개 사찰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환경 조사사업을 전개하며, 올해에는 지리산 화엄사, 남원 실상사, 안성 칠장사 등 11개 사찰을 우선 선정해 3월말부터 조사를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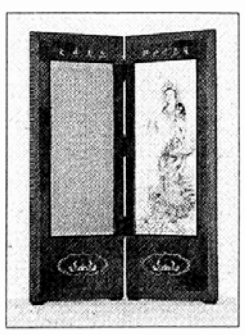
이와 함께 사찰생태연구소는 전국 사찰환경을 감시하기 위해 사찰환경 모니터도 실행하고, 지자체의 건설공사나 국책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사찰의 지나친 불사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감시활동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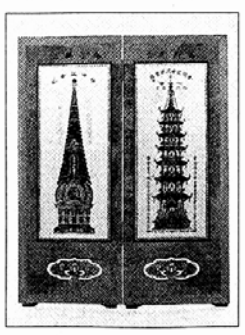
강유신 기자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느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품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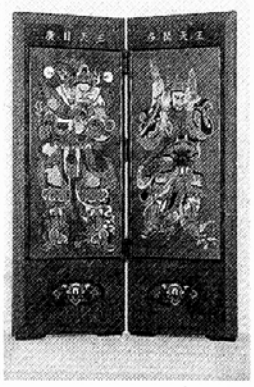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탁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세상의 온갖 악(惡)을 경계하며 불법(佛法)에 귀의하는 중생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서… 부처님을 모신 사찰은 모두 청정도량임을 증명해주시는 사천왕 4분을 모신"

사천왕(四天王) 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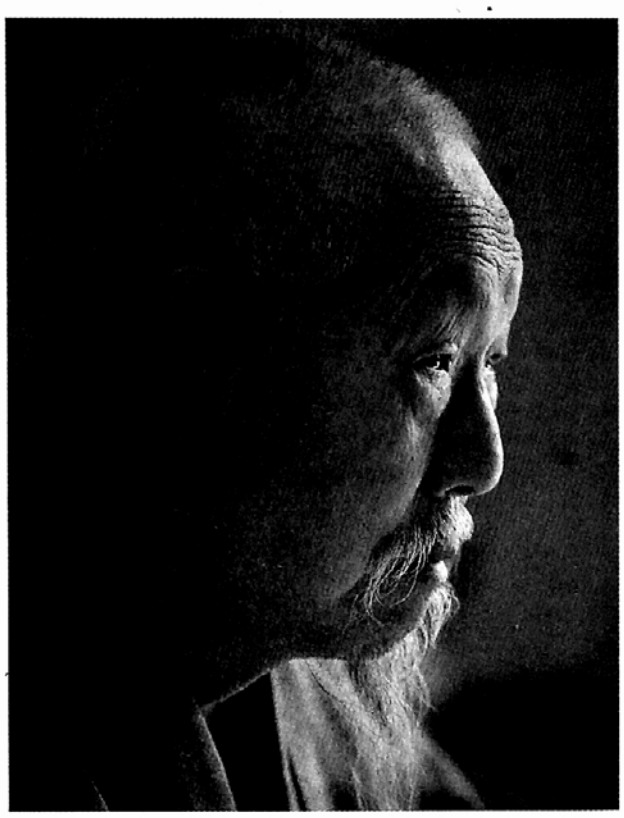
규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사천왕이 모셔진 사찰은 신도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고 사찰이 나날이 번성한다 하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사찰내에 모셨으면 하고 원하시던 사천왕이 장소에 구애 받음이 없이 영구적으로 편리하게 모실수 있도록, 목재와 황동판을 사용하여 성품(聖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포교당이나 작은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모시기가 적절한 규격으로 조성되었사오니 이번기회에 사천왕 네분을 모셔 보십시요. 원력을 세우신 스님께는 큰 도움을 주실것이며, 스님의 신도들을 악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심(佛心)을 더욱 깊게 넣어주시어 도량의 번성에 큰 기여를 해 주실것입니다.
현재 본 사천왕 병풍을 보신 신도들이 자신의 공덕을 짓기위해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사천왕 병풍을 보시하고자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오고있습니다.

특징
① 법당이나 요사채 등 신도들이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펼쳐 놓을 수 있도록 사천왕을 2폭씩 나누어 모셨습니다.
②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네분 모두 각각 황동판위에 모시어 표면에 특수 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 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때는 고운 융걸레 등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2폭씩 양쪽으로 펼쳐놓았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접 보시기를 원하시면 날자를 정하여 스님을 찾아 뵙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오대산의 얼굴 인허스님

소박한 성품…경전 통째 암기

사람이 한 30년 쯤 한 곳에 살면, 지나는 구름이나 바람과도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꺼풀의 꾸밈도 없는 인허 스님을 뵈면서 '자연스러움'의 미덕을 배웁니다.

경전을 보시면 한 권을 통째로 외워버리신다는 인허 스님. 고지식함과 꾸밈없음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인 모양입니다. 아직 부처님의 지음(知音)이 되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낮추시는 스님.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1916년에 나셔서 36년 상원사로 입산, 한암 스님의 문하에서 정진하셨고 현재는 월정사의 회주로 계십니다.

문수보살 상주도량 깨달음의 달 둥실

그 절에 가면

오대산 월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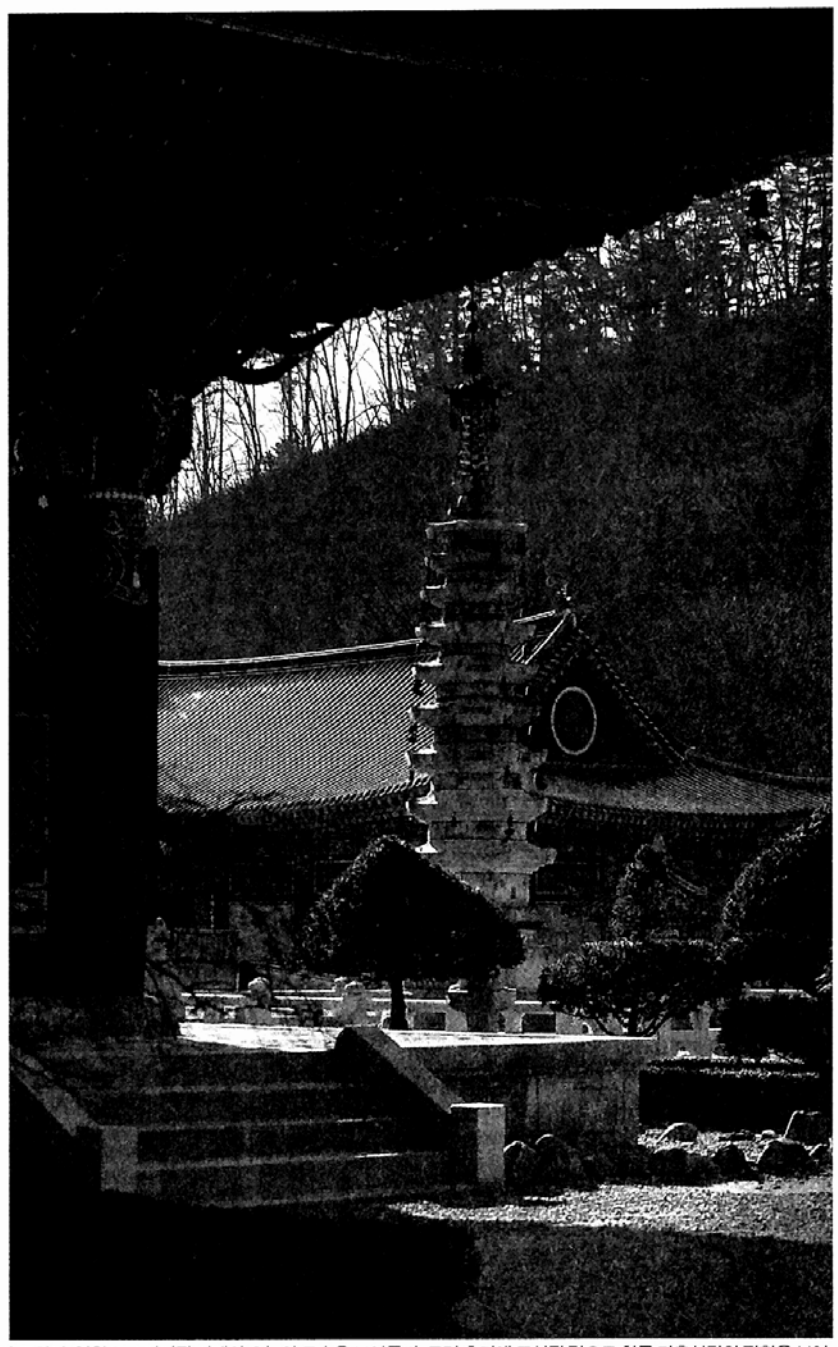
아직 봄은 저 남쪽 마을에서 딴청을 부리고 있나 봅니다. 오대산 자락에는 아직 드문드문 눈이 남아 있습니다. 오대천 가장자리에도 얼음장이 괜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반짝이는 건 분명 '봄볕'입니다.

오대산의 수호 신장인 전나무 숲길에도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세한(歲寒)의 강건미를 보여주던 짙푸른 기운도 연록빛 봄의 미스를 띄고 있습니다.

귓속으로 고이는 오대천 시린 물로 마음 한 귀퉁이 헹구고, 금강교를 건넙니다. 질척거리는 길바닥이 발바닥을 간지럽힙니다. 싫지 않습니다. 몇 발짝 옮기니 월정사가 코앞입니다.

새로 지은 금강루가 조금 생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옛것 또한 한때의 새것이고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겠지요. '옛 길에 새 걸음'입니다.





◇월정사 팔각구층탑(국보 제48호)과 전각들의 조화가 영원으로 이어질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보여준다.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한국 다층석탑의 전형을 보여주는 팔각구층탑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37과를 봉안하고 있다.

"佛法 길이 번창할곳"…사자암 등 五臺 여래·보살들의 主處

새롭게 단장한 도량을 둘러보노라니 '자비 도량'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낱말이 떠오릅니다. '전쟁'입니다. 특히 월정사는 6·25전쟁의 불길에 잿더미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듯 전쟁은 인명만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문화 유산'에 대한 '분서갱유(焚書坑儒)'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흔히 '불성'이라고 말하는 본래의 마음자리는 세상의 어떤 불로도 태울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성인이 세상에 나오시는 뜻이 이것으로써 분명해집니다. '겁화(劫火)의 진화(鎭火)'.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월정사의 이런 모습도 탄허 스님이나 만화 스님과 같은 분들의 중건 원력이 끝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양보다 그 정신을 올곧게 받들 일입니다.

월정사는 어디에 견주어도 아랫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두 가지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대산이라는 물리적 배경이 그 하나요, 개산조(開山祖)인 자장 스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적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분리 불가능한 둘입니다. 하나된 그 둘의 이름은 '문수보살'입니다.

오대산은 1만 문수보살이 항상 머무시는 도량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간단히 그 내력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장 스님은 신라 선덕여왕 때인 당나라 태종 정관 10년(636)에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려고 중국 오대산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문수보살의 석상 앞에서 이레 동안 기도를 하니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네 구절의 게송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어로 된 것이어서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어 수심에 잠겨 있는데, 한 승려가 나타나서 뜻을 새겨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사 한 벌과 부처님의 바루와 머리뼈 한 조각을 주면서 "그대 나라의 동북방 명주(지금의 강릉) 경계에 오대산이 있는데 1만의 문수보살이 언제나 그곳에 머물고 있으니 가서 뵈십시오"하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스님은 용의 청의 받아들여 이레 동안 공양을 올리니 용이 나타나 "어제 게송을 전하던 노승이 바로 진짜 문수보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얘기로 개산(開山)의 내력이기도 합니다. 한편 월정사의 창건에 대해서 삼국유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의(信義)는 범일대사의 문인이었는데, 이 산을 찾아와서 자장법사가 머물렀던 곳을 찾아 암자를 짓고 살았다. 신의가 죽은 후로는 암자 또한 헐어 있더니, 수다사의 장로 유연(有緣)이 암자를 다시 짓고 살았는데, 지금의 월정사가 바로 그곳이다."

또 이 책은 "나라 안의 명산 중에서도 이곳이 가장 좋은 땅이므로 이 곳은 불법(佛法)이 길이 번창할 곳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불법과의 인연이 참으로 깊다 하겠습니다.

옛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오대산의 다섯 대(臺)를 둘러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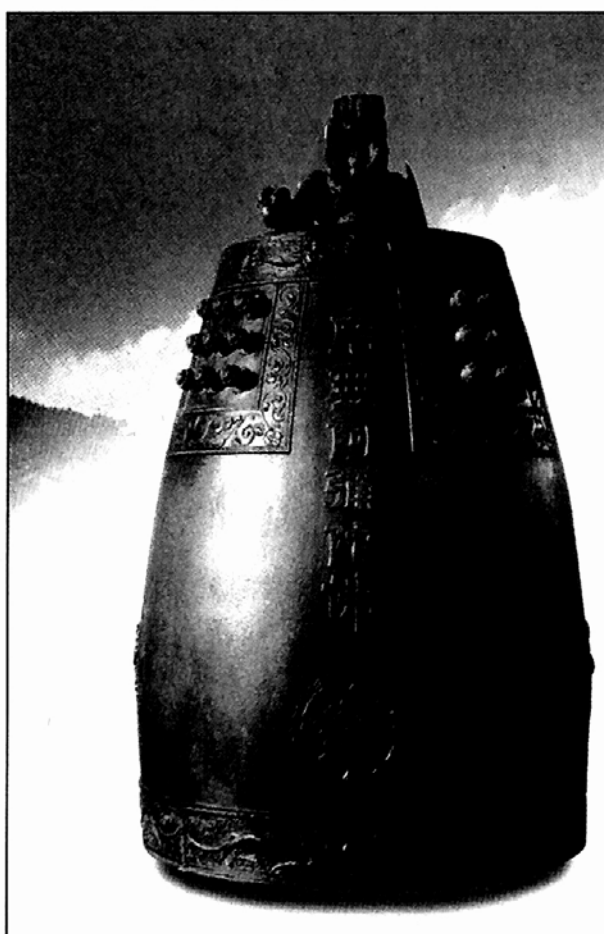
중대 사자암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동물의 왕인 사자에 빗대어 붙인 이름으로, 적멸보궁과 상원사 사이에 있습니다. 보궁의 노전으로 향각이라고도 합니다. 동대 관음암은 동대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관음보살이 상주한다고 합니다. 서대 수정암은 서방 정토를 주재하는 아미타여래의 주처로, 상원사의 남서쪽 호령봉과 비로봉 사이로 흘러내린 기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대 지장암은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건넌 곳에 자지잡고 있는데, 지장보살이 상주한다는 도량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입니다. 끝으로 북대 미륵암은 상왕봉 중턱에 가부좌를 틀고 있습니다. 석가여래의 주처로 가까이에 나옹 스님이 수행한 곳이라는 나옹대가 있습니다.

오대산과 월정사를 말하면서 적멸보궁을 빠뜨릴 수는 없겠지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로 자장 스님이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대천을 거슬러 올라 상원사를 거쳐 비로봉의 동쪽 기슭으로 오르면 됩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상원사에 들러 세조가 직접 보았다는 문수동자 좌상(국보 36호)을 뵙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월정사의 주요 문화재로는 적광전 앞의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 석조보살좌상(보물 139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문화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6·25때 한암(1876~1951) 스님께서 국군들이 상원사 법당을 태우려 하자 소신(燒身)의 자세로 맞서 지켜낸 것과 같은 불법 수호의 정신일 것입니다.

오대산 비로봉 위로 천년 세월을 뜨고 진 깨달음의 달, 자장·신의·나옹·사명·한암·탄허·만화…. 그 환한 달빛을 밟으며 산문을 나섭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